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해녀 어휘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양희주

2014년 12월

제주해녀 어휘 연구

지도교수 강 영 봉

양 희 주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양희주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목 차

I.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선행 연구	4
1.3. 연구 방법과 범위	6
II. 해녀 어휘의 체계와 분류	9
2.1. 해녀 명칭 관련 어휘의 분류	9
2.2. 바다류 관련 어휘의 분류	16
2.3. 작업류 관련 어휘의 분류	26
2.4. 해녀복 및 작업 도구류 관련 어휘의 분류	33
2.5. 채취물류 관련 어휘의 분류	48
III. 해녀 관련 어휘의 구성 방식	60
3.1. 전부요소에 따른 어휘 구성	62
3.2. 후부요소에 따른 어휘 구성	77
IV. 결론	93
<참고문헌>	96
<Abstract>	99

표 목 차

<표 1> 제보자 정보 및 조사일	6
<표 2> 선행 연구된 해녀 명칭과 관련된 어휘	10
<표 3>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해녀 명칭 관련 어휘	11
<표 4> 해녀 명칭과 관련된 어휘 분류	11
<표 5> 선행된 바다류와 관련된 어휘	16
<표 6>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바다류 관련 어휘	17
<표 7> 바다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18
<표 8> 선행 연구된 작업류와 관련된 어휘	26
<표 9>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작업류 관련 어휘	27
<표 10> 작업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28
<표 11> 선행 연구된 해녀복류와 관련된 어휘	34
<표 12>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해녀복류 관련 어휘	35
<표 13> 해녀복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36
<표 14> 선행 연구된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	40
<표 15>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작업 도구류 관련 어휘	41
<표 16>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43
<표 17> 선행 연구된 채취물류 관련 어휘	49
<표 18>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채취물류 관련 어휘	51
<표 19> 바다 식물과 관련된 어휘 분류	52
<표 20> 바다 동물과 관련된 어휘 분류	55
<표 21> 단어 형성 방식의 분류	60

I. 서론

1.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제주해녀 관련 어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나아가 이들을 조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해녀 관련 어휘는 연구자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느낌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에 논의된 해녀 관련 어휘를 한 자리에 정리해 보고 이를 조어법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주해녀 관련 어휘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제주도 방언의 조어론적 특징뿐 아니라 국어의 조어론적 특징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흔히 제주도는 삼다(三多)의 섬으로 불린다. 이는 돌과 바람, 여자가 많은 섬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에 여성이 많다고 알려진 것은 통계상 여자가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개재해 있다. 제주도는 마을이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해변에 형성되어 있고, 이 해변마을들에는 많은 적든 몇 명씩의 해녀들이 있다. 해녀들의 삶은 반농반어(半農半漁)로 바람 잔 물때에는 바다에 들고, 바람 거칠고 물때가 아닌 날에는 밭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갔다(오성찬 1987: 27).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제주도는 여성이 많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존재로 알려진 해녀¹⁾는 제주도의 특수 직업 계층이면서 제주도의 가정뿐만 아니라 제주도 경제의 주역을 담당했다. 그러므로 해녀는 근대 제주 생활사의 살아 있는 증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해녀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는 해녀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해녀를 특징 짓는 주요 어휘인 ‘물질’에 대한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물질’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문자왕 13년(503년), 여름 4월 초에 “섬나에서 야명주가 진상되었다.”라는 기사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

1)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부터 물질이 시작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조선시대 기록에는 남자인 포작인들이 전복을 채취해 진상해 온 것으로 나와 있으며 1629년 이건의 『제주풍토기』에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해녀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이익태의 『지영록』, 위백규의 「존재전서」 등의 여러 문헌자료에 나타나고 있다.²⁾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 중 조선 정조 임금이 수라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해조류와, 패류 찬이 눈에 띄었다. 주변을 살살이 묻고 난 다음에야 이는 제주 해녀들이 깊은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과정을 듣고서 전복을 공물에서 먼제하고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입에 대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³⁾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해녀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해녀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은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방언적 특수성을 보여 준다. 먼저 제주도방언에는 바다와 관련된 많은 어휘를 간직하게 했다. 제주 바다는 단순히 생태환경적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어장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산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제주 바다는 제주도 사람에게는 전담과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다. 내륙의 농경문화에서 농사에 관련된 어휘가 발달했듯 제주에서는 바다에 관련된 어휘가 비교적 발달했다. 이러한 제주해녀 어휘에는 그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 사면이 바다라는 점과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은 언어적으로도 독특한 방언권을 형성하게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중엽인 1692년(인조 7)부터 제정되어 200여 년간 시행된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켰다. 이 영향으로 외부와의 소통이 거의 단절되어 언어적으로 육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즉, 다른 방언과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언어 체계는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생적으로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방언에는 과거의 언어 현상이 마치 화석처럼 남아 있어 국어학계의 관심을 받아 왔다.

이 논문에서 해녀 관련 어휘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해녀라는 특수 직업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해녀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

2) 이에 대해서 해녀박물관(2012: 7)를 참고함.

3) 이에 대해서 김영돈(2002: 13-14)를 참고함.

계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⁴⁾ 또, 해녀는 육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해녀가 곧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해녀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곧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제주 해녀는 4,500여 명 정도이지만, 그중 절반은 70대 고령이다.⁵⁾ 해녀가 사라지면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든 언어 문화는 물론 나아가 제주도 문화와 특색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하루 빨리 제주해녀가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하고, 기록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해녀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해녀 어휘를 기록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해녀 어휘를 집대성하여 해녀 어휘 목록을 체계화시키고, 어휘의 전부 요소와 후부 요소로 나누어, 그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녀 관련 어휘 내부에서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주로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이 해녀 어휘를 구성함에 있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물론 그동안 해녀어휘에 관한 언어학적 고찰을 시도한 연구는 없지 않았다. 특히 어휘 구성 방식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본고에서 쓰인 분석방법인 해녀 어휘의 직접구성요소(IC)를 중심으로 복합어를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를 통해 분석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방언의 하위분류인 해녀 어휘에 대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해녀 어휘를 모아보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녀 어휘 전체의 체계망을 한눈에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조사된 어휘를 중심으로 조어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휘의 구성 방식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4) 지난해 미국의 '뉴욕 타임스'와 이탈리아 '라 스타파'에 이어 스위스의 '노이에 취리히 짜이퉁'이 올해 신년 특집으로 제주해녀를 소개 등 미국과 유럽의 유력 일간지들이 점차 사라지는 해녀의 삶과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송경훈 기자, “스위스 유력 일간지 해녀 소개”, 제주일보, 2006년 1월 27일자 기사.)

5) 도내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4574명으로 줄어든 데다 절반 가까운 47%가 7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제주해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년 후에는 80%까지 감소해 아예 자취를 감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김태형 기자, “사라지는 ‘숨비소리’... 명맥 잇기 본격화”, 제주일보, 2013년 12월 13일자 기사.)

1.2. 선행 연구

제주해녀에 관한 여러 방면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속학적인 연구는 물론 사회학이나 인류학, 그리고 관광학 분야에까지 다양하다.⁶⁾ 그러나 이들 연구는 해녀 어휘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해녀 관련 어휘와 관련하여 먼저 관심을 둘 것은 해녀 명칭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관해서는 강대원(1973), 경수(1992), 김영돈(1996) 등의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들 논의에 따르면 바다에 들어가서 어떠한 장치 없이 물질하는 나잠업자를 ‘잠수’(潛嫂), 또는 ‘잠수’, ‘잠녀’(潛女) 또는 ‘잠녀’, ‘해녀’(海女) 등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해녀’라는 호칭은 일본인의 식민지 정책상 천시해서 그런 것이므로 ‘잠수’라고 불러야 한다거나(강대원 1973: 22), 해녀는 원래 일본 용어라는 점 때문에 ‘잠녀’ 또는 ‘잠수’라는 용어의 회복과 정착이 바로 탈식민화의 과정이라는 주장도 있다(전경수 1992: 487-493). 그러나 김영돈(1996)은 ‘잠녀’라는 용어가 제주도만이 아닌 일본에서도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이고, ‘해녀’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일본에서 온 말이지만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부녀자 또는 어린 여자를 낮추어 부른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잠녀’만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해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녀용어 관련 설문조사(해녀박물관 2012: 76)를 통해 나온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61.9%가 ‘해녀’를 쓰고 ‘잠수’ 21.6%, ‘잠녀’ 16.5%순으로 호칭을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좌혜경(2006)에서는 결국 ‘잠수’나 ‘잠녀’는 행위자·내부자의 통속적인 용어이고, ‘해녀’라는 명칭은 관찰자·외부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분석적·과학적 용어로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녀’의 호칭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지만 정작 해녀 관련 어휘에 관한 연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먼저, 김영돈(2002)는 해녀 연구에 있어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해녀의 모든 것을 조사, 분석한 개론서이다. 해녀의 특이성과 연구 방법, 해녀 기술, 해녀복과 도구, 해녀와 관련된 민속, 해녀바다, 바깥물질 등 총 10개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특히 4장 해녀와 관련된

6) 지금까지 해녀에 대한 연구 중 민속학 분야의 연구는 강대원(1976), 김영돈 외(1996), 이성훈(2006), 좌혜경 외(2009) 등이 있고, 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양원홍(1999), 인류학 분야의 연구는 유철인(1998), 안미정(1998) 등이 있다. 이 밖에 의학 분야의 연구는 이종관(1968), 김병길(1970) 등이 있고 기타로는 강대원(2001), 유형숙(201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민속에서 직업어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해녀가 쓰는 특수한 어휘들을 직업어 속에 묶어 해녀들의 물질과 관련시키면서 풀이했다(김영돈 2002: 249). 또한 김영돈(1990: 761-797)에서는 제주해녀 연구가 민속학적, 경제학적, 문학적, 법사회학적, 생물학적 측면의 광범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직업어(occupational language)라 볼 수 있는 해녀집단의 특수 어휘 연구 역시 중시되어야 하며 화급한 과제라 강조하면서 해녀 어장, 해녀 작업, 해녀 도구, 해산물, 해녀 노래로 대별하고, 그 어휘의 실상을 간추려 도출되는 의미를 집약하였다.

좌혜경(2008)은 해녀민속의 가치는 민중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민속지식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언어 표현은 삶을 승화시키는 진실 된 방법으로 해녀노래, 전설, 생업담을 주로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생업 지식이 속담과 금기담을 통해 언어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였다(좌혜경 2008: 101-130).

김순자(2009)는 해녀어휘를 방언학적으로 접근하였는데, 이는 제주도의 5개 지역에서 6명의 제보자와 2개의 잠수회를 대상으로 어휘를 조사하여 해녀의 생애구슬과 해녀 관련 민속어, 해산물 관련 음식 이름, 물질 방법과 물질 행위 관련 어휘 등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녀어휘를 기록하였다.

김윤창(2013)에 ‘해녀사용언어를 중심으로 본 제주도방언의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해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극소수의 해녀들에 의해 특정하게 생산된 언어가 아니라 연령계층을 망라한 대다수의 여인들이 해녀 상황을 통해 공유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언중과 불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해녀 언어에 대하여 해녀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화체 중심의 제주도방언 형성에 큰 몫을 해왔다고 본다면 해녀들의 전용어로 구분하여 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기존의 해녀어휘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해녀 명칭, 바다류, 작업류, 해녀복 및 작업 도구류, 채취물류와 관련된 어휘를 분류하여 어휘를 정리했다. 본 연구는 이들을 한데 모아보고 이들을 조어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해녀 관련 어휘의 특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1.3. 연구 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제주해녀라는 집단에서 쓰여 온 어휘를 중심에 두고, 어휘 구성 원리를 밝히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헌을 통하여 기존에 연구되었던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 문헌 조사는 김영돈(2002)과 김순자(2009)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는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해녀가 사용하는 해녀 명칭, 바다와 관련된 어휘, 작업과 관련된 어휘, 해녀복 및 도구와 관련된 어휘, 채취물과 관련된 어휘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지역은 현재 행정체제 기준으로 나뉜 제주도 동북(조천읍 조천리, 구좌읍 행원리), 서북(제주시 이호동, 한림읍 귀덕1리), 동남(서귀포 법환동, 남원읍 태흥2리), 서남(안덕면 사계리, 대정읍 하모리)의 해녀를 직접 만나 조사를 하였다. 제주도방언을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나눈 기준은 김순자 박사학위논문(김순자 2011: 11)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한 것이다.

제보자는 조사 지역 출신으로 물질을 40년 이상 해 온 이들로 선정하여 조사 어휘의 신뢰를 높인다. 제보자 선정은 한수풀 해녀학교 교장의 도움과 조사 지역 해안가 근처에서 물질하는 해녀로 선정한다. 제보자 현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보자 정보 및 조사일

번호	이름	나이	성별	물질 ⁷⁾ 기간	조사 지역	조사 일시
1	김덕순	74	여	35	제주시 이호동	2014. 09. 20
2	이정아	82	여	63	한림읍 귀덕1리	2014. 09. 20
3	김연선	62	여	40	안덕면 사계리	2014. 09. 27
4	이춘열	64	여	45	대정읍 하모리	2014. 09. 28
5	문춘선	72	여	54	서귀포 법환동	2014. 10. 03
6	김경자	62	여	41	남원읍 태흥2리	2014. 10. 01
7	이정자	70	여	48	조천읍 조천리	2014. 09. 26
8	고면옥	60	여	40	구좌읍 행원리	2014. 09. 21
9	홍순공	82	여	64	구좌읍 행원리	2014. 09. 21

본고에서는 해녀 명칭에 관련된 어휘, 바다에 관련된 어휘, 작업에 관련된 어휘, 해녀복 및 작업 도구에 관한 어휘, 채취물에 관련된 어휘를 분류하고, 해녀어휘 구성을 분석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먼저, 김영돈(2002)과 김순자(2009)를 바탕으로 해녀 명칭, 바다, 작업, 해녀복 및 작업 도구, 채취물에 관련된 어휘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 뜻을 풀이를 하였다. 더 나아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된 김순자 외(2013) 자료집을 통해 최근 조사된 새로운 어휘까지 참고하여 본고가 제주해녀 어휘에 있어 더욱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다.

김영돈(2002)의 경우 크게 해녀 명칭, 해녀 기술, 해녀복과 도구, 해녀 바다로 구분하여 어휘를 설명하였다면 본고에서는 김영돈(2002)의 분류 기준에 따라 명사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어휘를 제외한 어휘를 중심으로 해녀 명칭, 바다, 작업, 해녀복 및 작업 도구, 채취물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된 방식으로 해녀가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이에 따른 분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녀 명칭의 경우 해녀 총칭어를 살펴보고, 기량에 따라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누어 분류를 한다. 바다 어휘와 관련해서는 바다 환경, 바다 상태, 채취물, 기량에 따라 분류를 하고, 조류의 흐름과 세기에 관련된 어휘는 무수기, 미세기로 나누어 분류한다. 작업과 관련된 어휘의 경우 시간, 장소, 행위, 채취물, 도구에 따라 어휘를 분류하고, 해녀복 및 작업 도구의 경우 크게 해녀복과 작업 도구로 나누고, 해녀복은 전통 해녀복, 개량 해녀복 및 도구, 부대용품으로 나누어 분류를 한다. 채취물과 관련된 어휘는 크게 바다 식물과 바다동물로 나뉘게 되는데, 바다 식물의 경우 갈조류 바다 식물, 녹조류 바다 식물, 홍조류 바다 식물로 분류하고, 바다 동물의 경우 연체동물, 극피동물, 절지동물로 나누어 어휘를 분류한다.

제주해녀 관련 어휘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방법론적으로 직접구성요소(IC)를 구성으로 단일어와 복합어 중 복합어를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나눈다. 전부요소는 어기성 전부요소와 접사성 전부요소로 나뉘는데, 다시 어기성 전부요소는 명사성 전부요소와 동사(형용사)성 전부요소로 구분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전부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후부요소 또한 명사성 후부요소와 접사성 후부요소로 구분하여 해녀 어휘에 나타나는 복합어의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이렇게 해녀 관련

7) 주로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의미함.

어휘의 구성 방식을 살핌으로써 해녀 어휘 내부에서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이 해녀 어휘에 어떠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해녀 어휘의 체계와 분류

단어가 낱말의 개별적인 존재라면 어휘는 개개의 단어를 체계화한 집합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 어휘들 사이에는 서로 깊은 유기성이 있다. 만약 어휘들 사이에 아무런 유기성 없이 각 어휘가 개별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언어 사용자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막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대상을 비교하고 유형화하고 추상화하여 인식하는데 그 인식의 결과가 어휘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며 어휘 사이의 의미관계를 인식의 체계로, 사물에 대한 인식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휘의 의미관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어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휘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기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의미론적 유기성은 어휘가 갖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에는 분류, 상하, 부분-전체, 상위-하위 등의 내부 기제가 존재한다(백승창, 2009). 이와 같이 해녀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휘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의 분류 작업은 필수적이다.

기존에 해녀 어휘 연구는 ‘해녀 명칭, 작업류, 바다류, 해녀복 및 작업도구, 채취물’로 어휘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도 기존의 분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분류 기준을 따름으로써 기존에 연구되었던 해녀 어휘를 효율적으로 집합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어휘와 동사를 제외한 명사를 중심으로 ‘해녀 명칭, 작업류, 바다류, 해녀복 및 작업도구, 채취물류’라는 큰 범주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해녀 어휘 전체의 체계망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다.

2.1. 해녀 명칭 관련 어휘의 분류

해녀를 칭하는 어휘는 해녀 자체를 칭하는 총칭어와 물질 능력의 차이, 상황에 따

라 달리 불린다.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로 제주에서는 ‘해녀’, ‘잠녀’, ‘좁녀’, ‘좁네’, ‘잠수’, ‘좁수’라고 한다. 현재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공식명칭은 ‘잠수’(潛嫂)이다. 제주도도 1966년부터 ‘잠수’를 공식적인 행정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좌혜경 2005: 36).

해녀작업을 제주에서는 ‘물질’이라 한다. 해녀들 가운데서도 물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계층을 나눈다. 일반적으로 크게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 세 계층으로 나뉘지는데, 여기에 상군보다도 더 기량이 뛰어난 해녀인 ‘대상군’(大上軍)이 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일정 시기에만 모습을 비추는 해녀를 ‘고망좁수’라고 한다.

이러한 해녀 명칭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어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선행 연구된 해녀 명칭과 관련된 어휘

	해녀 명칭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고망좁네, ㄹ좁네, ㄹ좁수, ㄱ좁네, ㄱ좁수, ㄷ좁네(ㄷ좁수), 돌파리, 똥군, 불락좁네, 불락좁수, 상좁네(상좁수), 애기좁네(애기좁수), 왕좁네(왕좁수), 죽은좁네(죽은좁수), 중좁네(중좁수), 큰좁네(큰좁수), 꼭레좁네(꼭레좁수), 하좁네(하좁수)	27개
김순자 (2009)	ㄹ잠수, 대상군, 돌파리잠수(돌꼭레), 상좁네(상좁수), 새좁수(애기좁수), 중좁네(중좁수, 중해녀), 하좁네(하좁수), 흰벧잠수	14개
전경일 (2011)	고망좁수, 대상군, 불락좁수, 상잠수(상좁네, 상좁수), 세발짜리, 애기잠수, 왕좁네(왕좁수), 죽은잠수, 중잠수, 큰좁네(큰좁수), 돌파리, 꼭레좁수, 퍼뜩발	17개
총 계		58개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는 중복되는 어휘도 있고, 연구자가 새로 발굴한 어휘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해녀 명칭 관련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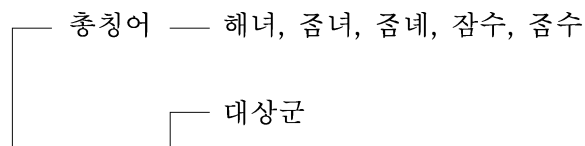
	해녀 명칭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갯좁네, 깍좁네(깍좁수), 덕좁네(덕좁수), 똥군	6개
김순자 (2009)	새좁수, 혼벳잡수	2개
전경일 (2011)	세발짜리, 퍼뜩발	2개
총 계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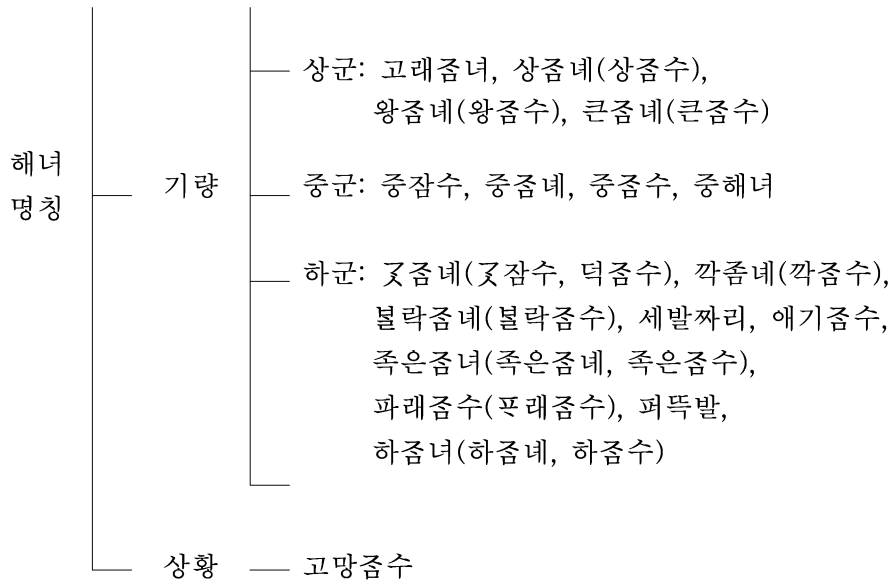
위의 <표 2>를 바탕으로 선행 연구된 자료를 통해서 해녀 명칭과 관련된 어휘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김영돈(1990)에서는 ‘해녀작업에 따르는 어휘’에서 기량에 따라 해녀 계층을 나누었고, 김순자(2009)에서는 ‘해녀 명칭’에서 ‘해녀’를 부르는 명칭과 기량에 따라 부르는 해녀 명칭을 기준으로 어휘를 나열하였다. 전경일(2011)에서는 ‘직무역량에 따른 해녀의 명칭’을 통해 ‘대상군(大上軍)’, ‘상군(上軍)’, ‘중군(中軍)’, ‘하군(下軍)’으로 분류하여 어휘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해녀 명칭이라는 큰 범주에서 분류되었던 해녀 명칭과 관련된 총 어휘를 바탕으로 ‘총칭어’, ‘기량’, ‘상황’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상황’에 해당되는 ‘고망좁수’는 전경일(2011)에서는 ‘하군’에 속하여 설명이 되었지만 본고에서는 ‘기량’보다는 ‘구멍’에 박혀 있다가 나오는 해녀를 일컫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분류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 이는 해녀가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녀 명칭 관련 어휘를 해녀 총칭어, 능력, 상황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해녀 명칭과 관련된 어휘 분류





2.1.1. 기량과 관련된 해녀 명칭

가. 대상군(大上軍)



해녀에게 있어서 바다는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한 터전이면서도 생사가 오고 가는 곳이다.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그 밑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험하고 황량한 바다라는 전쟁터의 총수가 바로 ‘대상군’(大上軍)이다.

대상군은 여러 역량 면에서 검증된 해녀들이다. 단순히 해산물을 많이 채취한다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은 물론, 조류의 변화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군이 지닌 남다른 능력, 즉 상황 판단과 지휘 능력은 나머지 해녀들의 생사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해녀가 대상군으로 단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5년에서 30년 정도(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30)인데, 요새는 이렇게 오랜 기간 물질을 하지 않아서 대상군이 존재하는 어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 상군(上軍)

가장 물질을 잘하고 바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녀를 ‘상군’이라 한다. 상군은 ‘고래잠녀’, ‘상잠네(‘상잠수)’, ‘왕잠네(왕잠수), ‘큰잠네(큰잠수)’ 등으로 불린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아이더라도 물질을 잘하면 ‘애기상군’(김순자 2009: 110)이라 칭했다.

① 고래잠녀⁸⁾: 오랜 시간동안 잠수를 하는 ‘고래’에 빗대어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어휘이다.

② 상잠네: 달리 ‘상잠수’라고 불리는데, 이는 표준어 ‘상잠수’(上潛嫂)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숨이 길고 능숙한 해녀를 일컫는 어휘이다.

③ 왕잠네: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일컫는 어휘로, 일정한 분야나 범위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왕’과 ‘해녀’를 일컫는 제주도방언 ‘잠네’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어휘이다. 달리 ‘왕잠수’라고 한다.

④ 큰잠네: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일컫는 말로 달리 ‘큰잠수’라고 한다.

다. 중군(中軍)

기량이 보통인 해녀로 ‘상군’과 ‘하군’ 사이의 중간 집단이다. 다른 계층의 해녀들보다 수적으로 많다. 달리 ‘중잠녀(중잠네, 중잠수, 중해녀)’라고 한다.

라. 하군(下軍)

해녀로서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를 ‘하군’이라고 부른다. 지역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갯잠네(갯잠수, 덕잠수)’, ‘각잠네(각잠수)’, ‘돌파리잠수(톨파리, 돌파리, 돌파리)’, ‘똥군’, ‘불락잠네(불락잠수)’, ‘세발짜리’, ‘애기잠네(애기잠수, 애기잠수, 새잠수)’, ‘죽은잠네(죽은잠수, 죽은잠수)’, ‘파래잠네(포래잠네, 포래잠수)’, ‘퍼뜩발’, ‘하잠녀(하

8) 안덕면 사계리 김연선 구술.

좁네, 하좁수)’ 등이라 한다.

① 갯좁네: ‘갯’은 ‘가’(邊)의 제주도방언이다. 배를 타고 먼바다에서 물질을 하지 않고, ‘갯바당’인 가까운 곳에서만 해산물을 캐는 해녀를 말한다. 달리 ‘갯좁수’, ‘덕좁수’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물질을 하러 어장으로 나간 해녀를 ‘헌벧잡수’라고 한다.

② 깍좁네: 꼴찌라는 의미의 제주도방언 ‘깍’과 ‘좁네’가 연결되어 불리는 어휘이다. 달리 ‘깍좁수’라고 한다.

③ 돌파리좁수: 기량이 매우 떨어지는 해녀를 비유하기 위해 제대로 된 자격이나 실력이 없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돌팔이’가 비유적으로 쓰인 어휘이다. 달리 ‘톨파리’, ‘돌파리’, ‘돌파르’라고 한다.

④ 똥군: ‘똥군’은 해산물 채취에 따른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를 일컫는데, 이제야 막 물질을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해녀를 지칭하여 쓰이기도 한다.

⑤ 불락좁네: 아직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서툴러 오래 잠수하지 못하고 들어가자마자 나와서 가까스로 숨을 헐떡이는 해녀를 말한다. 달리 ‘불락좁수’라고 한다.

⑥ 세발짜리: ‘퍼뜩발’에 비해 조금 깊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해녀를 칭한다. 즉, 세발 정도는 잠수할 수 있는 해녀라는 뜻이다. 한발이 약 1m 60cm 정도니까 세발이면 약 4m 80cm까지 잠수할 수 있는 해녀(전경일 2011: 38)를 뜻한다.

⑦ 애기좁네: 나이 어린 해녀를 부르는 어휘로 ‘애기좁수’, ‘새좁수’라고 한다. 또한 새로 물질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 해녀를 일컫기도 한다.

⑧ 족은좁네: 나이에 관계없이 물질 기량이 아직 덜 숙련된 신출내기와 서툰 해녀를 통칭하는 말이다(전경일 2010: 39). 달리 ‘족은좁녀’, ‘족은좁수’라고 부른다.

⑨ 파래좁네: 주로 얇은 바다에서 바닷가에 난 파래를 뜯는 해녀를 말한다. 달리 '파래좁네', '파래좁수'라고 한다. '파래'는 표준어 '파래'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⑩ 퍼뜩발: 한발도 못되는 얇은 바다를 퍼뜩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숨이 짧은 해녀(전경일 2011: 38)를 말한다.

⑪ 하좁네: 기량이 낮은 해녀를 일컫는 어휘로, 등급을 셋으로 나눌 때의 맨 끝에 해당하는 한자어 '下'와 '해녀'를 일컫는 제주도방언 '좁수'가 결합된 한자어이다. 달리 '하좁수'라고 한다.

2.1.2. 상황과 관련된 해녀 어휘

고망좁네: 평상시에는 물질을 하지 않다가 일 년에 서너 번 마을 앞 가까운 바다에서 금채했던 해조류를 채취할 때만 나와서 소득을 챙기는 해녀를 말한다. '고망'은 표준어 '구멍'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고망좁수'라고 한다.

2.2. 바다류 관련 어휘의 분류

해녀들의 물질은 어장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에게서 바다는 땅의 밭과 개념을 같이 한다. 그 밭을 해녀들은 ‘갯갯디’, ‘갯갯이’, ‘갯갯디’라고 부른다. 이러한 바다는 해녀에게 있어서 소중한 삶의 터전이면서도 생명을 앗아가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작업장인 바다를 구석구석 꿰뚫고 있다. 자신이 작업하는 어장에 대한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불리어 온다.


바다 어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어휘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선행된 바다류와 관련된 어휘

	바다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고장놀(꽃놀), 기름잔(지름잔), 굽(굽장), 굽녀, 굽비석, 늪은이바다(할망바당), 늪통, 다섯물, 두물, 들랑창, 막물, 머물빳(머을왓, 머을팻, 머흐럭박, 머흐레기, 머흔빳, 머흘왓, 머흘팻), 메역바당, 멩지바당(멩지와당), 모살바당, 문둥절(민둥누, 민둥눌), 물끼(물찌), 분할, 사밭물, 사스레기, 삼성제절, 아끈조금, 아끈철키), 알빳(수두리빳), 옷빳(멩갱이빳, 메기빳), 웨살, 절, 조작지빳, 족살, 족은누, 중간빳(먹보말빳, 보말빳), 지미, 줌네바당(줌수바당), 짝머흘, 큰누, 툄바당(툄바당), 한조금(한철키), 흑교바당, 혼물(두물, 식물, 다섯물, 으숫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물, 열흔물)	71개
김순자 (2009)	갯갯디(갯갯이, 갯갯디), 고기지왓, ㄱ바당, 든물, 막물, 먼바당(웃빳), 모살빳, 몰래바당(몰래판), 물 때, 물들다(들다) 물싸다(싸다), 물찌, 몸바당, 촌물, 아끈조금, 알빳, 영덕, 웨살, 장조금, 조금, 중간바당, 지미(굴형지), 지폰바당, 초조금, 툄빳(툄빳), 필바당, 한물(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으섯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물, 열흔물, 열두물, 열서물, 열너물) 한조금, 해습빳,	50개
전경일 (2011)	ㄱ바당, 난바르(먼바르), 머을바당(머들팻), 모살바당, 소왕집빳, 실경몸통, 안고냥, 작지바당, 지리통, 할망바당	12개
총 계		133개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는 중복되는 어휘도 있고, 연구자가 새로 발굴한 어휘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어휘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6>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바다류 관련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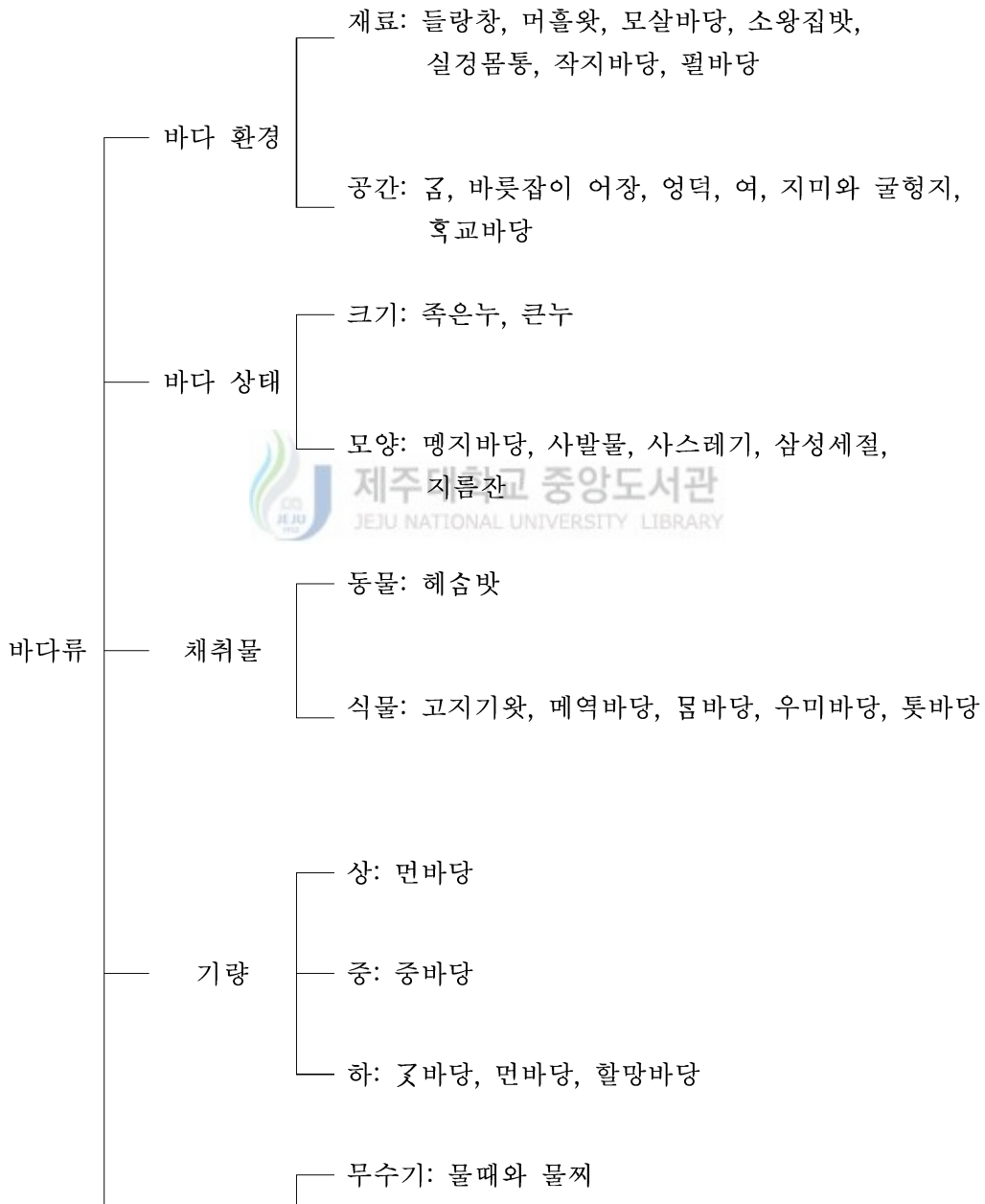
	바다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고장놀(꽃놀), 굽(굽장), 굽녀, 굽비석, 늪통, 텡깡이밭(메기밭), 떡보말밭(보말밭), 멩지와당(멩지바당), 문둥절(민둥누, 민둥눌), 반장바당, 분할, 사발물, 사스레기, 삼성제절, 수두리밭, 이장통, 조작지밭, 족살, 족은누, 지름잔(기름잔), 쩍머홀, 큰누, 흑교바당	31개
김순자 (2009)	갯것디(갯것이, 갯꺾디), 고기지왓, 굴형지, 든물, 막물먼바당, 물래바당, 물들다(들다), 물싸다(싸다), 물초조금, 뭍바당, 쏜물, 웨살, 장조금, 중간바당, 지폰바당, 툫밭(톨밭), 필바당, 해습밭	23개
전경일 (2011)	먼바르, 소왕집밭, 실검몸통 안고냥, 작지바당, 지리통	6개
		60개

위 <표 5>와 같이 선행된 바다류 관련 어휘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김영돈(1990) ‘해녀어장에 따르는 어휘’로 분류하여 바다명칭과 무수기 어휘를 정리하였고, 김영돈(2002)에서는 ‘해녀바다’라는 큰 범주 안에 ‘바다밭 이름’, ‘어장관행’, ‘입어 관행권 분쟁’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김순자(2009)에서는 ‘바다밭’과 ‘조류의 흐름과 세기’으로 분류하여 어휘를 나열하여 정리하였다. 전경일(2011)에서는 ‘역량에 따른 바다밭 이름’과 ‘바다 환경에 따른 명칭’으로 어휘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바다류 관련 어휘를 ‘바다 환경’에서 다시 ‘재료’와 ‘공간’으로 분류하고, ‘바다 상태’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채취물에 따라서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고, ‘기량’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누고, ‘조류의 흐름과 세기’에 따라서 ‘무수기’와 ‘미세기’로 구분하여 어휘를 정리하였다. 이는 기존의 분류 방식보다는 세부적으로 해녀가 사용하는 바다류 관련 어휘를 비슷한 어휘들로 묶어 바다와 관련하여 상황에 맞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바다류와 관련된 어휘를 바다 환경, 바다 상태, 채취물, 기량, 조류의 흐름과 세기 명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7 > 바다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조류의
흐름과
세기

미세기: 혼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으섯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물, 열흔물,
열두물, 열서물, 열너물, 조금, 아끈조금,
한조금, 초조금, 장조금, 물찌, 웨살, 막물

2.2.1. 바다 환경과 관련된 명칭

가. 재료와 관련된 바다 명칭

① 들랑창: 넓적하고 커다란 바위가 해저에 깔린 바다를 말한다. 대체로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이다(현평효 외 2009: 278).

② 머흘왓: 바다 밑에 돌멩이가 깔린 바다를 말한다. 물에서도 발과 같이 지면에 박힌 돌들을 ‘머을’, ‘머흘’이라 하며 돌이 박히고 자갈이 혼한 곳을 ‘머을팻’, ‘머흘팻’, ‘머흘왓’, ‘머을왓’, ‘머을뱓’, ‘머흔뱓’, ‘머흐레기’, ‘머흐력뱓’이라 한다. 이는 발에서 쓰는 어휘가 차용(김영돈 1990: 765)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다 속에 띄엄띄엄 박혀있는 머흘을 ‘찍머흘’이라 한다.

③ 모살바당: 수심이 얇고 모래가 깔린 바다이다. 해산물이 적어 해녀들이 선호하지 않는 바다로 ‘몰래바당’, ‘몰래왓’, ‘모살뱓’, ‘몰래판’이라 부른다. ‘몰래(몰래)’는 표준어 ‘모래(沙)’에 해당한다.

④ 소왕집뱓: 전복이나 소라가 싫어하는 해조류만 무성한 곳으로 잡초만 황폐한 발과 같다(전경일 2011: 124).

⑤ 실경뭉통: 키가 큰 해조류만 무성할 뿐 썰 수 있는 해산물이 없는 바다를

일컫는다. 실속 없는 바다를 의미한다(전경일 2011: 124). 또한 아무것도 켈 것이 없는 바다를 ‘지리통’이라 한다.

⑥ 작지바당: 자갈로 바다 밑이 깔린 바다로 ‘작지’는 표준어 ‘자갈’(砂礫)을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조그마한 자갈이 깔린 바다를 ‘조작지밭’이라 한다.

⑦ 펄바당: 바닥이 물기가 많은 질척질척한 진흙으로 깔려 있는 바다이다.

나. 공간과 관련된 바다 명칭

① 곶: 바위나 바다에 있는 여를 기준으로 어장경계를 확정하는데, 이를 ‘곶’ 또는 ‘곶장’이라 하였다. 김영돈(1990: 765)에서는 물은 자신이 소유한 땅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지만 바다는 공동어장이기 때문에 경계확정이 어려웠다. 경계표지로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곶비석’이라 한다.

② 바룻잡이 어장: 서귀포 지역 바다는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바다를 개방하고 있다. 일부지역 뿐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지역민들이 바다에 가서 ‘바룻’을 잡도록 한다. 예를 들면 남원이나 서귀포시 보목리는 7월 1-2일까지 바룻잡기 체험 어장을 개장하여 수심 30센티까지는 잡을 수 있도록 한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1: 133)

③ 엉덕: ‘엉덕’은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의 비탈진 곳을 말한다. 엉덕에는 해초는 물론 전복과 소라, 바닷고기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김순자 2009: 114).

④ 여: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위로, 썰물 때 드러나는 여는 해산물이 풍부해 해녀들이 가장 선호는 하는 작업 환경이다(전경일 2011: 124). 각 마을마다 여 이름을 모양, 위치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⑤ 지미와 굴형지: ‘지미’와 ‘굴형지’는 바다 속 바위가 있는 곳의 구렁진 데를

말한다. 바다 속 깊은 곳이다(김순자 2009: 114).

⑥ 흑교바당: 어장 일부를 획정하여 그곳에서 캐어내는 해산물을 공동 판매 하여 교육 증축이나 비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둔 바다를 말한다(김영돈 1990: 767). 이를 통해 해녀들은 꾸준하게 교육 시설에도 이바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2.2. 바다 상태와 관련된 명칭

가. 크기와 관련된 바다 명칭

① 작은누: 작은 물결을 말한다. ‘족은놀’이라고도 부르는데, ‘누’ 또는 ‘놀’은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파도)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같은 의미로 ‘고장놀’, ‘뜻놀’도 있다.

② 큰누: 사나운 큰 물결을 말한다. 달리 ‘눗고개’, ‘문둥절’, ‘문둥누’, ‘민둥누’, ‘나부리’ 라고 한다. ‘절’은 물결을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나부리’⁹⁾는 큰 물결을 뜻하는 ‘경주방언’으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새로 발견된 어휘이다. ‘나부리’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물 나부리가 하도 처사아 궤기는 함 바리도 모은 낙곶심더’(물결이 너무도 쳐 쌓아 고기는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큰 물결을 의미하는 경주방언이다(김주석 2001: 327). 육지물질하면서 쓰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구좌에서 ‘나부리’가 조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나. 모양과 관련된 바다 명칭

① 멩지바당: 잔잔한 바다를 명주에 비유하여 ‘멩지바당’, ‘멩지와당’이라 부른다. ‘멩지’는 표준어 ‘명주’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② 사발물: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말한다. 사발에 담긴 물처럼 잔잔하고 고

9) 구좌 행원 고면옥, 흥순공 구술.

요한 상태이다.

③ 사스레기: 자잘하게 이는 물결을 칭할 때 쓰는 어휘로 김영돈(1990: 765)에서는 ‘바당에 사스레기 일엄저’라고 표현한다.

④ 삼성제절: 연거푸 세 번이나 꺾이며 몰려오는 물결을 삼형제물결이란 뜻으로 ‘삼성제절’이라 한다. ‘성제’는 표준어 ‘형제’를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이다. 김영돈(1990: 765)에서는 ‘삼성제절’이 몰려오면 ‘이번은 삼성제로 꺼끔저’라고 말한다.

⑤ 지름잔: 물결이 일지 않는 잔잔한 바다를 말한다. ‘기름잔’에 비유한 어휘로 제주에서는 표준어 ‘기름’을 ‘지름’이라 한다. 달리 ‘기름잔’이라 한다.

2.2.3. 채취물과 관련된 바다 명칭

가. 식물류



① 고지기왓: ‘고지기왓’은 듬북의 일종인 ‘고지기’가 많이 나는 바다 이름이다. ‘고지기’는 지역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고지기’를 ‘고죽뭍’, ‘ㄱ직뭍’, ‘고지기듬북’, ‘고제기’라고 한다. ‘고지기’는 식용하지 않고 주로 밭의 거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음력 칠월경에 채취한다(김순자 2009: 116).

② 메역바당: 썰물 때 수심 10m 내외 유지되는 보다 깊은 바다밭(김영돈 2002: 63)으로 미역이 잘 자라서 해녀들이 즐겨 캐는 어장이다. ‘메역’은 표준어 미역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③ 뭍바당: ‘뭍바당’은 모자반이 많이 나는 바다 이름이다. ‘뭍’은 표준어 모자반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④ 우미바당: 썰물 때 수심 2-3m가 유지되는 바다밭으로 우뭇가사리 바다로

해녀들이 우뚝가사리를 즐겨 캐는 어장이다. ‘우미’는 표준어 ‘우뚝가사리’를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⑤ 툃바당: 툃이 많이 나는 바다로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낸다. ‘툃밭’, ‘툃밭’, ‘툃바당’ 이라고도 부른다. 표준어 ‘툃’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툃’ 또는 ‘툃’이라 부른다.

나. 동물류

① 해슴밭: 해삼이 많이 잡히는 바당을 ‘해슴밭’이라고 부른다. ‘해슴’은 표준어 ‘해삼’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2.2.4. 기량과 관련된 바다 명칭

가. 상(上)



면바당: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로 표준어 ‘난바다’에 해당된다. 기량이 뛰어난 ‘상군’들이 물질하는 바다이다. 달리 바다를 ‘면바르’, ‘난바르’, ‘웃밭’이라고 한다.

나. 중(中)

중바당: ‘중군’이 물질하는 바다로 달리 ‘중간바당’(김순자 2009: 114)이라고 한다.

다. 하(下)

① 갯바당: 바닷가에서 바로 보이는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즉 ‘앞바당’을 뜻한다. 해녀가 되어 물질을 시작하게 된 ‘애가잠수’, ‘갯잠수’ 등 하군 해녀들은 ‘갯바당’, ‘애기바당’에서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량을 기른다. 달리 ‘알밭’이라 한다. 아주 얇은

바다인 ‘안고냥’(전경일 2011: 66) 역시 하군 해녀의 어장이 된다.

② 할망바당: 기량이 떨어진 고령의 해녀들만이 물질할 수 있는 바다를 말한다. 고령의 해녀들이 좀 더 안전하게 물질을 할 수 있도록 마을과 가까운 수심이 3m미만의 바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바다이다. 달리 ‘늪은이바당’이라고 한다.

2.2.5. 조류의 흐름과 세기 명칭¹⁰⁾

해녀에게 있어서 바다가 작업장이므로 조류의 흐름, 즉 ‘무수기’와 조류의 세기 ‘미세기’를 잘 알아야 물질을 잘 치를 수 있다. 조류의 흐름인 무수기와 관련된 어휘로는 ‘싼물’, ‘든물’, ‘물들다(들다)’, ‘물싸다(싸다)’, ‘물때’, ‘물찌’ 등이 있다.

미세기는 ‘물때’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수사를 사용하여 ‘훈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으섯물’, ‘일곱물’, ‘으덥물’, ‘아홉물’, ‘열물’, ‘열훈물’, ‘열두물’, ‘열서물’, ‘열너물’ 등으로 말한다. 이밖에도 ‘조금’, ‘아끈조금’, ‘한조금’, ‘초조금’, ‘장조금’, ‘물찌’, ‘웨살’, ‘막물’ 등이 쓰이기도 한다. 이 물때는 지역에 따라 하루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

가. 무수기

물때와 물찌: 물때는 아침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를 말한다. 이런 물때의 변화는 15일 단위로 되풀이되는데 그 조수의 주기를 ‘물찌’라고 한다. ‘물찌’는 ‘무수기’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동쪽 지역에서는 매달 9일부터 20일까지,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고, 서쪽 지역에서는 음력 매달 10일부터 21일까지,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물때가 한 달에 12일 정도 물질을 나가게 된다.

‘물찌’는 지역에 따라 조류의 세기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즉 ‘물 흐름이 센 때는 일컫는 말’로써 너무날, 다섯무날, 여섯무날 정도를 말한다. 그러나 제주에서 ‘물찌’라고 말할 때는 보통 ‘한물’, ‘두물’, ‘서물’, ‘너물’하는 무수기를 뜻하는 경우가 많

10) 이에 대해서 김순자(2009: 124-130)를 참고함.

다. 달리 ‘물끼’라고 한다.

나. 미세기

‘훈물’은 한무날을 말한다. 음력 9, 10일과 24, 25일의 미세기이다. ‘두물’은 두무날을 말한다. 음력 11과 26일의 미세기이다. ‘서물’은 서무날을 말한다. 음력 12일과 27일의 미세기이다. ‘너물’은 너무날을 말한다. 음력 13일과 28일의 미세기이다. ‘다섯물’은 다섯무날을 말한다. 음력 14일과 29일의 미세기이다. ‘으섯물’은 여섯무날을 말한다. 음력 15일과 30일의 미세기이다. ‘일곱물’은 일곱무날을 말한다. 음력 1일과 16일의 미세기이다. ‘으덥물’은 여덥무날을 말한다. 음력 2일과 17일의 미세기이다. ‘으덥’은 여덥의 제주도방언이다. ‘아홉물’은 아홉무날을 말한다. 음력 3일과 18일의 미세기이다. 아홉의 제주어는 ‘아홉’, ‘아홉’으로 쓰인다. ‘열물’은 열무날을 말한다. 음력 4일과 19일의 미세기이다. ‘열훈물’은 열한무날을 말한다. 음력 5일과 20일의 미세기이다. ‘열훈물’의 ‘훈’은 하나를 뜻하는 ‘한’의 제주도방언이다. ‘열두물’은 열두무날을 말한다. 음력 6일과 21일의 미세기이다. ‘열서물’은 서무날을 말한다. 음력 7일과 22일의 미세기이다. ‘열너물’은 열너무날을 말한다. 음력 8일과 23일의 미세기이다.

‘조금’은 조수(助手)가 가장 낮은 때를 이르는 말이다. 대개 매월 음력 7, 8일과 22, 23일을 말한다. ‘조기’, ‘취기’라고도 한다. ‘아끈조금’은 ‘아끈취기’, ‘아끈조기’라고도 부르는데 표준어 아츠조금에 해당한다. 음력 7, 22일경의 무수기이다. ‘아끈’은 ‘작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다. ‘한조금’은 ‘한취기’, ‘한조곰’이라고도 부르는데 무날을 셀 때 음력으로 여드레와 스무사흘을 이르는 말이다. 밀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때다. 여너무날을 한조금이라고도 한다. ‘초조금’은 무수기의 초기에 드는 조금이다. 한무날, 두무날, 서무날 때를 말한다. ‘장조금’은 무수기의 후기에 드는 조금이다. 열무날, 열한무날, 열두무날 때의 막물과 아츠조금, 한조금 때의 무수기를 말한다. ‘물찌’는 물 흐름이 센 때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너무날, 다섯무날, 여섯무날 때의 무수기를 일컫는다. ‘웨살’은 ‘외살’이라고도 하는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데서 일어나는 세찬 물살을 말한다. 주로 일곱무날, 여덥무날, 아홉무날 때의 무수기를 말한다. 반대어는 ‘족살’이다. ‘막물’은 무수기 가운데 끝에 드는 열무날, 열

한무날, 열두무날을 통틀어서 일컫는다.

2.3. 작업류 관련 어휘의 분류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제주도방언으로 ‘물질’이라 일컫는다. 지역에 따라 ‘무레질’, ‘물에질’이라고 한다. ‘-질¹¹⁾’을 접미어로 하는 어휘야 수두룩하지만, 단지 두 음절로써 긴 설명이 필요한 해녀작업을 간단명료(김영돈 1990: 769)하게 드러냈다.

작업과 관련 어휘에 대해서 선행 연구된 작업류 관련어휘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선행 연구된 작업류와 관련된 어휘

	작업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곱숨비다, 기릿물질, 꺾물질(덕물질), 꺾바르(낫바르), 나리잡다, 난바르(난바르), 닭뿌물질, 텨그르(고말, 구마), 마줍(수중, 수중지, 중참), 마줍꾼(수중꾼, 품중, 풍중), 머정(머쟁이, 머쟁이), 메역물(메역무레), 물숨, 물질(무레질, 개발), 바당풀캐기(풀캐기, 물캐기), 밤바르, 백컬(빈컬), 벳물질, 불턱(봉덕), 성계물(성계무레), 솜비질소리(솜비소리, 솜비, 솜비, 솜비질소리, 솜비소리), 도독물질, 안물, 앞바르(앞바르), 올림이, 우미물(우미무레), 육지물질, 이베리, 좇물, 초용, 해경(허채, 대즈문, 즈문), 헛물	63개
김순자 (2009)	그치다, 금채, 금채기, 나다, 난바르, 돌 일리다, 마중꾼(풍중꾼, 뒤꾼), 마중하다, 메역 널다, 메역 부찌다(메역 부치다), 메역 즈물다(메역 즈문하다, 메역하다), 물건, 물에 들다, 못다, 바르 트다, 바룻 찹다, 바르질, 베카다(베타다, 베칼라다), 벳물질, 불턱(봉덕), 솜바쁘다, 솜비다, 솜비소리, 쟁역허다, 전복 트다, 전중살다, 즈물다(천초 즈물다, 우미 즈물다, 메역 즈물다, 고동 즈물다), 무레질, 초용, 탈의장, 트다(전복 트다, 오분작 트다, 바르 트다, 군벗 트다), 풍중하다, 해경(허채, 대즈문), 헛물에(헛물, 헛무레)	54개

11)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불질, 풀질, 흙질’ 등이 있다.

전경일 (2011)	갯물질, 개뿔기, 난바르, 뱃물질, 불턱	5개
총 계		122개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는 중복되는 어휘도 있고, 연구자가 새로 발굴한 어휘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어휘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9>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작업류 관련 어휘

	작업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개발, 곱습비다, 기릿물질, 꺾물질(덕물질), 꺾바르(낮바르) 나리잡다, 담뿌물질, 덴그르(고말, 구마), 도독물질, 마중꾼, 메역물(메역무레), 물습, 바당풀캐기(풀캐기, 물캐기), 밤바르, 백꺨(빈꺨), 성계물(성계무레), 수중, 수중꾼, 수중지, 안물, 앞바르(앞바르), 올림이, 우미물(우미무레), 육지물질, 이베리, 중참, 좇물, 품중	39개
김순자 (2009)	그치다, 금채, 금채기, 나다, 들 일리다, 마중꾼(풍중꾼, 뒤꾼), 마중하다, 메역 널다, 메역 부찌다(메역 부치다), 메역 즈물다(메역 즈문하다, 메역하다), 물건, 물에 들다, 못다, 바르 트다, 바룻 찹다, 베카다(베타다, 베칼르다), 쟁역하다, 전복 트다, 전중살다, 즈물다(천초 즈물다, 우미 즈물다, 메역 즈물다, 고동 즈물다), 트다(전복 트다, 오분작 트다, 군벗 트다), 탈의장, 풍중하다, 헛물에(헛무레)	39개
전경일 (2011)	개뿔기	1개
총 계		7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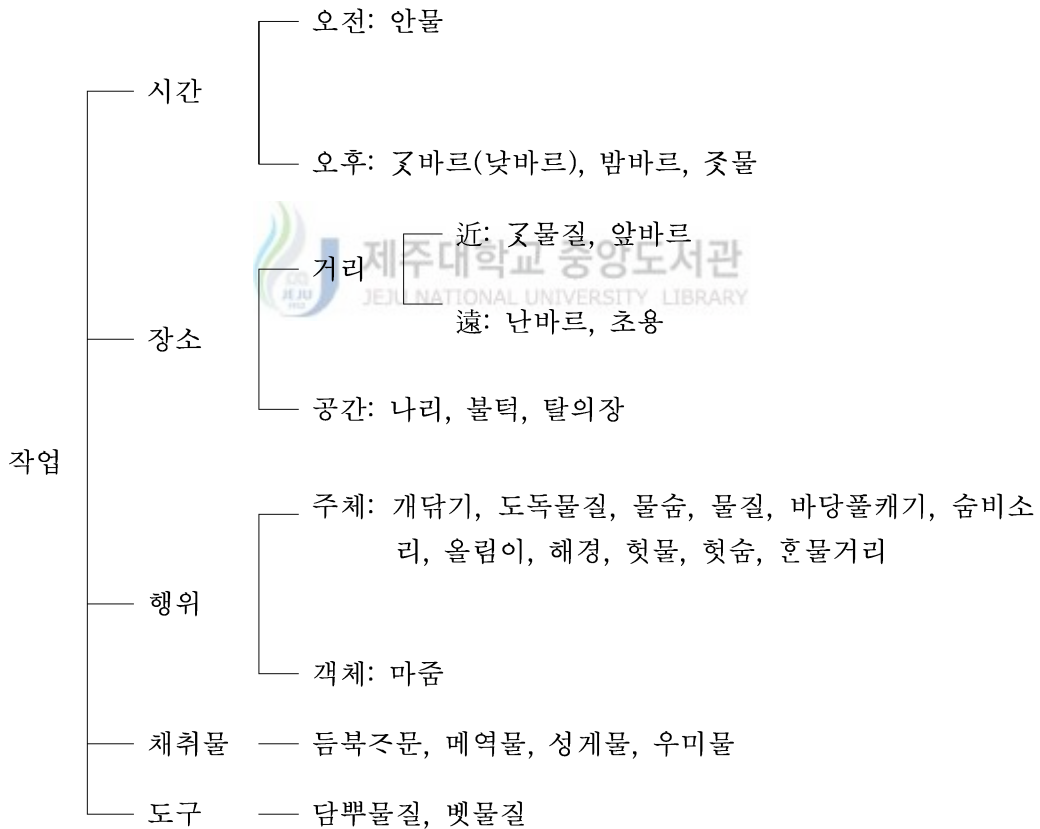
위의 <표 8>과 같이 선행 연구된 작업류 어휘 분류를 살펴보면 김영돈(1990)에서
는 ‘해녀작업에 따르는 어휘’라는 큰 범주안에서 기초어휘를 나열하였고, 김영돈
(2002)에서는 ‘해녀기술’에서 ‘해녀기술’, ‘해경과 미역철’, ‘계층’, ‘입어 위해물’, ‘에환’
을 중심으로 해녀 작업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다. 김순자(2009)는 ‘물질 행위와 방법’
범주 안에서 작업류 어휘를 설명과 함께 제시하였다. 전경일(2011)에서는 무엇을 이
용하여 얼마만큼 멀리 바다로 가느냐에 따라 명칭이 각기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

해녀들의 물질 종류를 나열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녀 작업이 시간, 장소, 행위, 채취물, 도구에 따라서 어휘를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해녀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물질을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시간과 장소의 분류에 속하는 어휘들을 살펴보면 밤·낮, 물의 거리와 상관없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강인한 모습이 분류된 어휘를 통해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작업류 어휘를 시간, 장소, 행위, 채취물, 도구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0> 작업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2.3.1. 시간과 관련된 어휘

가. 오전

안물: 아침나절 때 하는 물질이다.

나. 오후

① 낫바르: 낮에 행해지는 물질로 달리 '낫바르'라고 일컫는다.

② 밤바르: 밤에 하는 물질이다.

③ 좇물: 저녁에 하는 물질이다.

2.3.2. 장소와 관련된 어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가. 거리와 관련된 어휘

① 낫물질: 해녀들이 물 가까이에 있는 바다에 헤엄쳐 나가서 치르는 작업이다.

② 앞바르: 바닷가 가까운 곳에서 하는 물질을 말한다.

③ 난바르: 제주해녀들이 제주해안이 아닌 다른 해안으로 물질을 나갈 때 여러 날 동안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자그마한 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물질을 말한다. '난바르', '난바리'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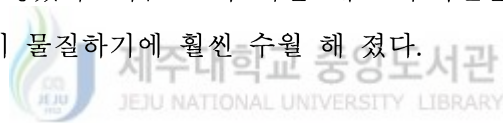
④ 초용: 제주해녀가 처음으로 물질을 하기 위해 제주섬 바깥으로 나가서 지내는 일이다. 다른 지역에 나가서 하는 물질을 '바깥물질'이라고 한다.

나. 공간과 관련된 어휘

① 불턱: ‘봉덕’이라고도 불리는 ‘불턱’은 일종의 탈의실로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추운 바다에서 무자맥질을 하다가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지펴서 쬐는 곳으로 바위 위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곳을 정해 돌담을 등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을 말한다. 불을 쬐면서 해녀들을 가족사, 마을 소식, 해녀회의를 하는 등 해녀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준 공간이다.

무명으로 만들어진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할 때는 바다 속이 추워 작업시간이 길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마다 불턱에서 불을 쬐다가 다시 들어가서 물질을 했었지만 고무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물질하는 도중에 불턱에서 불을 쬐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을에서 불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② 탈의장: 1980년도부터 샤워시설이 갖춰진 탈의장이 생기면서 점차 마을에서는 불턱을 이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각 마을 내 온수시설을 완비한 현대식 탈의장이 설치되어 해녀들이 물질하기에 훨씬 수월해 졌다.



③ 나리: 미역을 말릴 공간을 뜻한다. 그 자리를 미리 확보하는 일을 ‘나리잡다’라고 한다.

2.3.3. 행위와 관련된 어휘

가. 주체와 관련된 어휘

① 개뎁기: 어장 청소 중 하나인 ‘개뎁기’는 해녀가 직접 바다 속의 필요 없는 해초를 제거하는 직업으로서 조간대를 보호하여 해조류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다.

② 도둑물질: 해산물을 캐어서는 안 되는 기간 금채기간인 데도 몰래 물질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이런 불법채취는 엄격히 단속하지만, 그 집안에 대사가 있어

해산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행상 묵인(김영돈 1990: 771)한다. ‘도독’은 표준어 ‘도독’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③ 물숨: 해녀들이 깊은 바닷물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캐는 동안 참는 숨을 의미한다.

④ 물질: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달리 ‘무레질’, ‘물에질’이라 한다.

⑤ 바당풀캐기: 논매기, 밭매기처럼 어장도 재차작업을 해야 우뭇가사리나 툫 따위가 제대로 자란다. 바다 속에 자라나는 불필요한 해조를 ‘바당풀’ 또는 ‘잡풀’이라 이르고, 이를 캐는 일을 ‘바당풀캐기’, ‘물캐기’라고 한다(김영돈 1990: 767). 이는 어장청소 중 일부분이다.

⑥ 숨비소리: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고 물 위로 올라와 숨을 비우는 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물 위에서 막혔던 숨을 한번에 몰아시게 되면서 ‘호오이-’와 같은 소리를 낸다.

⑦ 올림이: 바람에 떠 밀려온 미역과 우미를 주로 음력 정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채취하는 일을 일컫는다(김영돈 2002: 57). 올리는 동작을 명사화하여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⑧ 해경(解警): 해녀들의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금채했다가 합의된 날짜에 금채를 풀고 다 같이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대즈문’, ‘허채’(許採)라고도 한다.

⑨ 헛물: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전복 등을 캐는 작업으로 우뭇가사리, 툫과 같은 특정 해조류를 일정기간에 캐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헛될 수 있으므로 ‘헛물’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소라나 전복을 캐는 때

는 재수가 좋다고 하는데 이를 ‘머정 좋다’, ‘머생이 좋다’, ‘머쟁이 좋다’라고 한다.

⑩ 헛숨: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의 지형을 살필 목적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일을 말한다.

⑪ 혼물거리: 해녀들이 어장으로 나가서 몇 차례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바닷가 불턱이나 탈의장 또는 배 위로 나오는 한 차례의 작업을 의미한다(현평효 외 2009: 897).

나. 객체와 관련된 어휘

마중: 금채기가 끝나고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이나 우뚝가사리 등을 져 나르는 일을 ‘마중’, ‘수중’, ‘수중질’, ‘중참’(김영돈 1990: 771)이라 한다. 이 일을 위해 마중을 가는 사람으로 ‘마중꾼’이라고도 한다. 달리 ‘수중꾼’, ‘폼중’, ‘폼중’, ‘풍중꾼’, ‘뒤꾼’(김순자 2009: 113)이라 한다. 대부분의 경우가 해녀의 남편이나 가족들이고, 가다가 이웃 사람을 빌리는 경우도 있다.

2.3.4. 채취물과 관련된 어휘

① 듬북즈문: 거름용 바다풀인 ‘듬북’을 채취하는 일을 말한다. ‘즈문’은 ‘캐다, 채취하다’라는 의미의 제주도방언 ‘즈물다’의 명사형이 결합된 어휘이다. 듬북을 공동으로 채취할 때는 한 집에서 한두 사람이 동원되었다. 해녀들은 잠수하여 나베기 듬북을 따냈고, 늙은이는 갯가에서 지충을 베어냈다. 그리고 남자들은 지게로 져서 물으로 날랐다(김영돈 1990: 769).

② 메역물: 미역철에 미역만을 캐는 물질이다. 날미역을 말리기 위하여 조짚이나 보릿짚, 바위 위에 너는 행위를 ‘메역 부찌다’라고 한다. 길이가 짧은 미역을 서로 포개면서 붙여서 생긴 용어(김순자 2009: 124)이다.

③ 성계물: 성계를 주로 캐는 물질이다. 봄부터 여름이 제철이다.

④ 우미물: 우뭇가사리를 한창 캐는 기간에 우뭇가사리만을 캐는 물질이다. 4월~6월이 제철이라 이 때 “우미무레 글라”라고 한다.

2.3.5. 도구와 관련된 어휘

① 뱃물질: 해녀들이 배를 타고 정해진 어장까지 나가 치르는 작업으로 ‘궂물질’과 대비되는 어휘이다. 같은 배를 타고 가서 물질하는 해녀 무리를 ‘흔뱃좁수’라고 한다.

② 담뽀물질: 제주해녀들이 물질하면서 사용하는 ‘데와’처럼 일본해녀들이 어장으로 나갈 때 그 부력을 이용하여 가슴에 얹고 나가는 부표를 ‘담뽀’라고 하는데, 이 ‘담뽀’를 이용하여 치르는 물질을 ‘담뽀물질’이라 한다. 이는 한일어의 합성어이다 (김영돈 1990: 769).



2.4. 해녀복 및 작업 도구류 관련 어휘의 분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업복 및 작업도구가 필요하다. 물질의 경우 바다라는 환경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해녀복과 상황에 따라 쓰이는 도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녀복과 작업 도구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녀복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옷으로, 1975년 경 이전까지는 물옷, 물소중의, 물적삼, 물수건, 이망거리, 총각, 까부리, 뚜데기, 물체, 손복닥을 이용하여 물질을 하였다. 고무옷이 나오면서부터 천으로 된 물옷은 현재 물질하는 해녀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 지금의 해녀들은 검정 고무로 만들어진 고무옷과 연철, 오리발, 고무눈을 사용하여 물질을 한다.

해녀복류 어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어휘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선행 연구된 해녀복류와 관련된 어휘

	해녀복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고무눈, 췌눈, 눈, 눈주머니(눈주머니), 눈하꼬, 뚜데기, 물소중이(소중이, 물웃, 속곳, 해녀복), 물수건, 물적삼, 섬눈, 췌빨눈, 엄쟁이눈, 이명거리(이망거리, 임텡거리, 임댕걸이, 미명걸이), 까부리(물까부리, 물모즈), 족은눈(족췌눈), 총각, 큰눈(왕눈, 통눈, 통안경), 후썩안경(후썩눈, 부글레기)	35개
고광민 (2002)	곰, 멜빵(매친), 몸체, 물소중이, 물적삼, 밀, 바대, 벌막작, 벌막작코, 처지, 허리	12개
김순자 (2009)	개지름, 고무눈, 고무옷(잠수복), 췌눈, 귀마개, 주머니(귀마개 주머니), 까부리, 눈, 눈갑, 뚜데기(뜨데기, 뜨레기), 모자, 목고대기, 물수건(수건), 물웃(속곳, 소중이, 소중기, 소징이, 물속곳), 물적삼(물사쓰), 미친(매친, 매큰), 밧, 막작단추(벌막작, 들마기, 들메기), 바대, 소미, 속곳곰, 수세, 수세미, 췌눈, 엄쟁이눈, 연철(빵돌, 봉돌), 오리발, 족은눈(족췌눈, 종깃눈), 큰눈(대본, 왕눈), 풍뎡이모자, 허리, 히오리모자	54개
전경일 (2011)	고무눈, 췌눈, 까부리, 눈, 눈갑(눈뚜갑), 뚜데기, 물수건, 물웃(속곳, 소중기, 물소중이), 물적삼, 물체, 밀, 손복닥, 스포지웃, 엄쟁이눈, 오리발, 이명거리, 족은눈, 큰눈	22개
해녀박물관 (2012)	고무옷(스뿐지웃, 스포치웃), 까부리, 면장갑, 물소중이(소중기, 속곳), 물수건, 물적삼, 나일론 버선, 양말, 연철, 오리발, 찰흙, 코팅장갑	16개
총 계		139개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는 중복되는 어휘도 있고, 연구자가 새로 발굴한 어휘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어휘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2>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해녀복류 관련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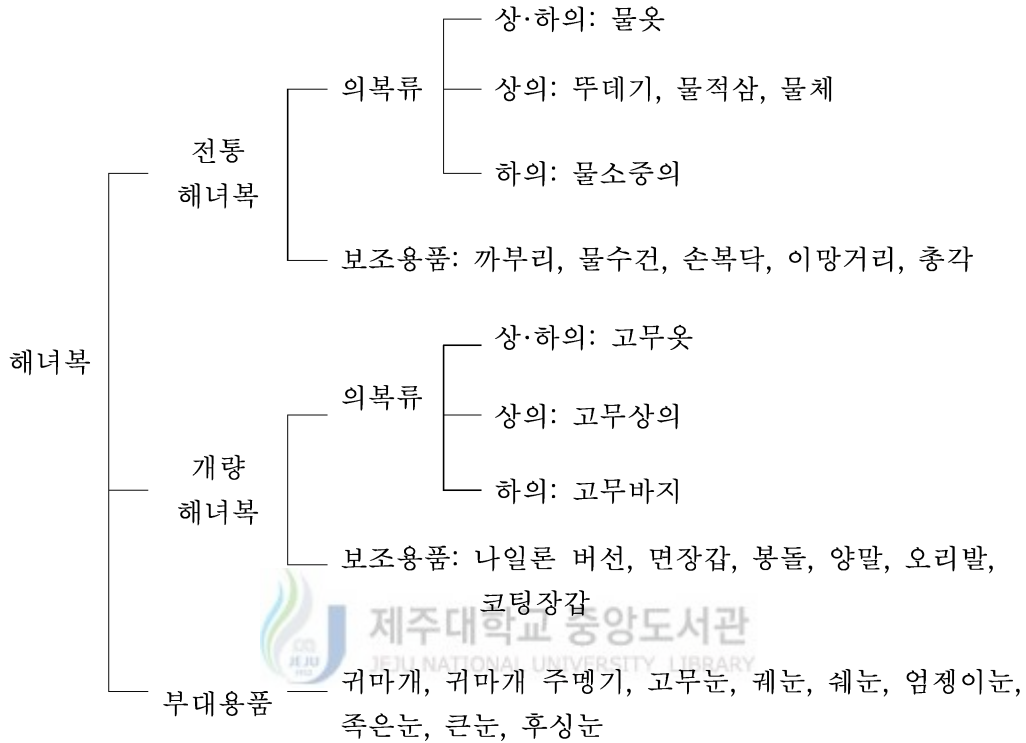
	해녀복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눈주머니(눈주머니), 눈하꼬, 물까부리, 물모조, 섭눈, 손골미, 이명거리(이망거리, 임텡거리, 임댕걸이, 미명걸이), 통눈(통안경), 후쌍안경(후쌍눈, 부글레기)	17개
고광민 (2002)	곰, 몸체, 처지, 허리	4개
김순자 (2009)	개지름, 귀마개, 대본, 뜨데기(뜨레기), 모자, 목고대기, 물사쓰, 미친(매큰), 밧, 막작단추(들마기, 들메기), 소미, 소징이, 속곳곰, 수건, 수세, 수세미, 쇠눈, 종깃눈, 주머니(귀마개 주머니), 풍뎡이모자, 히오리모자	26개
전경일 (2011)	눈뚜갑, 물체, 밧, 손복닥	4개
해녀박물관 (2012)	나일론 버선, 면장갑, 양말, 찰흙, 코팅장갑	5개
총 계		56개

위의 <표 11>과 같이 해녀복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어휘 분류를 살펴보면 김영돈(1990)에서는 ‘해녀도구에 따르는 어휘’라는 큰 범주 안에서 어휘들을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영돈(2002)에서는 ‘해녀복’을 ‘해녀복의 종류’와 ‘물소중이 제작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고광민(2002)에서는 ‘해녀옷’을 ‘물적삼’과 ‘물소중이’로 구분하여 ‘물소중이’에 해당하는 부분명칭을 보여주고 있다. 김순자(2009)은 해녀복을 ‘물옷’, ‘물옷의 보조용품’, ‘고무옷과 보조용품’으로 분류하여 어휘를 설명하고 있다. 전경일(2011)에서는 ‘바다 물질 도구들’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해녀복’을 두고 관련 어휘를 나열하였다. 해녀박물관(2012)의 경우 제주 해녀옷을 ‘전통 해녀옷(물옷)’과 ‘개량 해녀옷(고무옷)’으로 분류하여 역사, 특징, 제작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녀박물관(2011)에서 사용한 분류 방법을 사용하되 전통 해녀복과, 개량 해녀복이 ‘상·하의’, ‘상의’, ‘하의’, ‘보조용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어휘가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녀복류 관련 어휘를 전통 해녀복, 개량 해녀복, 부대용품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해너복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2.4.1. 전통 해너복과 관련된 어휘

2.4.1.1. 의복류와 관련된 어휘

가. 상·하의와 관련된 어휘

물옷: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해너복’으로 불린다. 해너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전통 해너옷으로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든 하의인 ‘물소중의’와 그 위에 입는 상의인 ‘물적삼’과 물질할 때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용도인 ‘물수건’으로 이루어졌다.

나. 상의와 관련된 어휘

① 뚜데기: 해녀들이 불턱에서 불을 쬐 때 어깨에 걸치는 누빈 이불이다. 간편한 작은 이불로도 사용되었다. ‘뚜러 메다’는 ‘들러 메다’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으로 착용 방법과 관련하여 생겨난 어휘로 보인다. 달리 ‘뜨데기’라고 한다.

② 물적삼: 1960년대 이후부터 ‘물소중의’ 위에 흰무명으로 만든 적삼을 입었는데, 추위를 막거나 해파리나 바다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상체에 입는 저고리 형태로 적삼과 셔츠의 복합형태이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 17). ‘물사쓰’라고도 한다.

③ 물체: 숨을 넣어 누빈 긴 상의이다. ‘뚜데기’와 같이 보온용으로 입는다.

다. 하의와 관련된 어휘

물소중의: ‘소중의’, ‘소중기’, ‘속곳’, ‘소징이’라고도 불렸으며, 해녀들이 물질할 때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의 속옷으로도 입었던 옷이다. 속옷과 구분하기 위하여 ‘소중이’에 ‘물’을 결합하여 ‘물소중이’라고 하였다. 물소중이는 속곳의 기능을 대용한 것이어서 처음에는 흰색이 많았으나 물질 할 때 얼룩져서 검은색 등 짙은 색 천에 물을 들여 만들었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 17). 물살이 센 지역은 양쪽에 어깨끈이 달린 ‘어깨말이 소중의’를 착용하였다. 물소중의는 허리, 처지, 몸체, 밑(굴), 바대, 매천(매친, 멜빵), 벌모작(벽모작), 벌모작코, 곰으로 이루어져 있다.

2.4.1.2. 보조용품과 관련된 어휘

① 물수건: 하얀 광목이나 무명으로 만들어진다. 물수건은 물질할 때 머리카락이 흐르러지지 않도록 정돈 해 주고, 보온의 기능을 갖는다. ‘수건’이라고도 불린다.

② 손복닥: 광목으로 손바느질하여 손가락 끝부분만 나오게 만든 장갑이다. 우

못가사리를 채취할 때 손이 상하지 말라고 끼었다. 현재는 면장갑을 사용하고 있다. 달리 손골미(김영돈, 1991: 49)라고 한다. ‘골미’는 표준어 ‘골무’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이다.

③ 이망거리: 이마에 둘러매는 띠이다. 물속에서의 머리카락 흐트러짐을 막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망’은 표준어 이마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이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이멍거리’, ‘임멍거리’, ‘임멍걸이’, ‘미멍걸이’라고 부른다.

④ 총각¹²⁾: 해녀들이 예전에 물질하면서 바다 속에서 작업하기 편하도록 머리 털을 비녀 없이 머리 위에 쪽지고 ‘이멍거리’로 이마에서 뒷머리로 넘겨 묶는 머리 모습 중 하나이다.

⑤ 까부리: 1960년대 일본이나 육지로 출가했던 젊은 해녀들에 의해 물수건 대신 까부리가 보급 되었다. 해녀가 작업할 때 쓰는 모자로 목에는 넓게 프릴이 달려 있어 따뜻하고 햇빛을 가림에도 좋았다. 그러나 까부리를 만들어서 착용하는 해녀는 소수였고, 여름철 개량 해녀옷인 고무옷의 모자대신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12: 18). 달리 ‘끼부리’, ‘까불이’, ‘풍뎅이’, ‘히오리모자’(김순자 2009: 136)라고 한다.

2.4.2. 개량 해녀복과 관련된 어휘

2.4.2.1. 의복류와 관련된 어휘

가. 상·하의와 관련된 어휘

고무옷: 고무옷은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다. 고무라는 재질 때문에 추위를 견디는 능력이 기를 수 있었다. 장시간의 작업과 능률 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로 제주 전역으로 고무옷이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고무모자, 원피스 형태의 고무상의, 고무

12) 이에 대해서 김영돈(1990: 774)를 참고함.

하의로 구성되어 한 벌 구성으로 상, 하의 달리 부르는 명칭이 발달되지 않았다. 달리 ‘스폰지옷’, ‘스뿐지옷’, ‘잠수복’이라고 한다.

나. 보조용품과 관련된 어휘

① 나일론 버전: 오리발을 착용하기 전에 발의 보온을 위하여 나일론 버전 및 양말을 신는다.

② 봉돌: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작업할 때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깊은 바다 속으로 쉽게 잠기도록 허리에 차는 돌이다. ‘연철’, ‘뽕돌’이라고도 한다.

③ 오리발: 물질하러 갈 때 신는 오리발 모양의 물건이다. 오리발을 신으면서 헤엄치기도 쉬워지고, 추운 바다에서 물질하기가 편해졌다.

④ 코팅장갑: 개인마다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을 사용한다. 면장갑이 물 속에서는 마찰이 크기 때문에 해산물이나 채취도구를 잡는데 이점이 있으나 코팅장갑이 질기기 때문에 미끄러워도 코팅장갑을 사용한다고 제주특별자치도(2012: 37)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2.4.3. 부대용품과 관련된 어휘

① 눈: 해녀들이 1900년대 초부터 사용한 물안경을 말한다. 우선 ‘눈’의 테두리의 재료인 고무와 쇠에 따라서 ‘고무눈’과 ‘쇠눈’으로 나뉜다. 보통 ‘고무눈’은 크기가 커서 ‘큰눈’, ‘왕눈’, ‘통눈’, ‘통안경’, ‘대본’이라 부른다. ‘쇠눈’은 알이 작기 때문에 ‘족은눈’, ‘족쇠눈’이라 불린다. ‘족은눈’이 생기기 전까지 쉼뿔에서 안경 테두리가 될 만한 부분을 잘라서 유리를 끼워 잠시 사용하던 ‘쉐뿔눈’과 양쪽 끝에 공기주머니가 달린 쌍알수경인 ‘후쌍눈’ 또는 ‘부글레기’도 사용되었다. ‘부글레기’는 표준어 거품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모습을 형용하였다.

‘눈’이 제작되는 지역에 따라 ‘퀘눈’, ‘엄쟁이 눈’이라 부른다. ‘퀘눈’은 구좌읍 한

동리의 옛지명인 ‘궤’에서 제작된 ‘눈’이고, ‘엄쟁이’는 애월읍 구엄리, 신엄리를 지칭하는 ‘엄쟁이’에서 제작된 눈이라고 김영돈(2002: 117)에서는 밝히고 있다. 수경명이 ‘안경’이 아닌 ‘눈’의 구성을 보이는 데, 이는 신체어 ‘눈’(目)이 도구를 나타내는 어휘로 전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을 하는 데에 있어서 ‘눈’은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나무상자에 간수하였다. 이를 ‘눈뚜갑’, ‘눈갑’이라고 한다. 또한 나무상자가 아닌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이를 ‘눈주머니’, ‘눈주멍기’라고 불렀다. ‘주멍기’, ‘주머니’는 표준어 ‘주머니’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이다.

② 귀마개: ‘귀마개’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막는 귀마개이다. 예전에는 ‘청’(꿀)의 찌꺼기인 ‘밑’을 끓여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문구용 고무찰흙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껌을 씹어서 단물을 뺀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귀마개를 넣는 주머니는 ‘귀마개 주멍기’(김순자 2009: 137)라 부른다.

2.4.4.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



작업 도구류 어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된 어휘는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선행 연구된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

	작업 도구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결망, 굴각지(굴갱이, 굴개기, 호맹이, 까꾸리, 갈꾸리), 성계굴각지(구살호맹이, 쿠사리호맹이, 귀살호맹이, 귀호맹이, 성계호맹이), 나이론테왁(스폰지테왁), 망시리(망사리, 망아리, 홍사리, 홍아리), 메역망시리, 헛물망시리, 존망시리, 나이룽망시리, 짝망시리, 조락(좁망시리, 그물수대, 바르출리), 바구리, 본조갱이(봇조갱이, 봇조개), 비호미(돌호미), 빗창, 소살(작살), 송동바구리(송동바굽지), 쉼가죽고에, 아시, 오분작호맹이(오분자기호맹이, 오분재기호맹이), 문계호맹이(물꾸럭호맹이, 문계호맹이, 무꾸럭호맹이, 문계까꾸리, 문계까꾸리), 죽은테왁(애기테왁), 중테왁, 질구덕, 중계호미(중계호맹이, 물호미), 출구덕, 큰테왁,	64개

	콧테왁(꼰락테왁), 테왁(두렁박)	
고광민 (2002)	갈쿠리, 갈퀴, 거낫, 고무줄소살, 고지기망사리, 공쟁이, 케기조레기, 대조개창, 대칼쇠, 두블메역망사리, 맛살쇠, 메역구덕, 물꾸럭꼰쟁이, 몰레듬북공쟁이, 빅계거낫, 빗창, 소살, 우미망사리, 작살, 적마께, 줄아시, 중게호미, 초블메역망사리, 출구덕, 풍곽닷	25개
김순자 (2009)	공쟁이, 구덕(바구리, 바굽지), 꼰각지, 꼰쟁이, 까꾸리, 너던구덕, 정당구덕, 녹대(관재), 뇌선, 두소살, 망사리(망시리, 망아리, 흥사리, 흥아리), 미망사리, 짝망사리, 나일롱망사리, 메역호미, 문게까꾸리, 본조쟁이(본), 비늘, 비창(빗창), 비호미(돌호미), 성게까꾸리, 세소살, 소살, 웨소살, 이지룽 정게호미(중게호미), 정당구덕, 조락(조레기), 지틀커, 질구덕, 칼, 테왁(두렁박, 두름박, 콧테왁, 테왁박세기, 버국테왁), 에움(어움), 해녀배, 호맹이	53개
전경일 (2011)	갈궁이, 걸망, 고무고에기, 고에기, 공쟁이, 꼰툰조락, 까꾸리, 폐미, 남측망사리, 닷돌, 닷줄, 망사리(흥아리, 흥사리), 메역(미역)망사리, 무지고에기, 물구덕, 물호미, 문게까꾸리, 미망사리, 붓조쟁이, 봉돌(연철), 비너루고에기, 빗창, 성게호맹이, 성기체, 성기칼, 소살, 쉼고에기, 오분재기조락, 오분재기호맹이, 정게호미, 조개흥사리, 조락, 죽은테왁, 테왁(두렁박, 뒤영박, 콧테왁), 파치조락	42개
총 계		184개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는 중복되는 어휘도 있고, 연구자가 새로 발굴한 어휘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어휘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5>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작업 도구류 관련 어휘

	작업 도구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걸그물수대, 메역망시리, 바르출리, 붓조개 성게꼰각지(구살호맹이, 쿠사리호맹이, 퀴살호맹이, 퀴호맹이, 퀴호맹이), 쉼가죽고에, 아시, 애기테왁, 오분작호맹이(오분자기호맹이), 문게호맹이(물꾸럭호맹이, 문게호맹이, 무꾸럭호맹이, 문게까꾸리), 줌망시리, 중테왁,	2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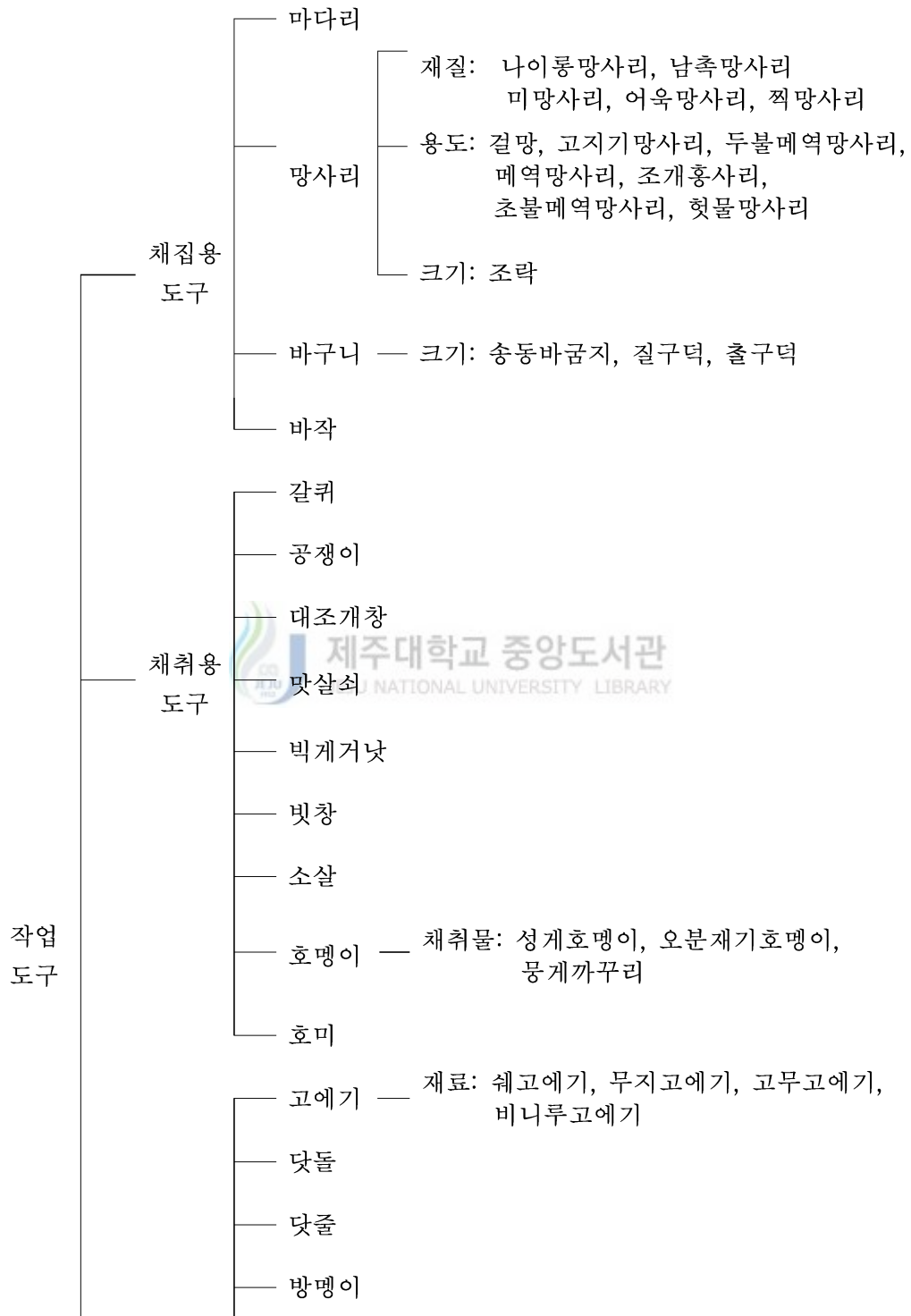
	즌망시리, 큰테왁, 헛물망시리	
고광민 (2002)	뭇레듬북공쟁이, 갈쿠리, 갈퀴, 거낫, 고무줄소살, 고지기망사리, 꿩조레기, 대조개창, 대칼쇠, 두불메역망사리, 맛살쇠, 메역구덕, 빅게거낫, 우미망사리, 적마께, 줄아시, 초불메역망사리, 풍곽닷	18개
김순자 (2009)	구덕, 너던구덕, 정닥구덕, 녹대(관재), 뇌선, 두름박, 두소살, 메역호미, 본, 비늘, 세소살, 에움(어움), 웨소살, 이지룽 정닥구덕, 지틀커, 칼, 테왁박세기, 해너배	21개
전경일 (2011)	갈궁이, 고무고에기, 고에기, 굴룬조락, 꿩미, 남촉망사리, 닷돌, 닷줄, 뒤영박, 무지고에기, 물구덕, 비니루고에기, 성기체, 성기칼, 쇠고에기, 오분재기조락, 조개홍사리, 파치조락	18개
총 계		8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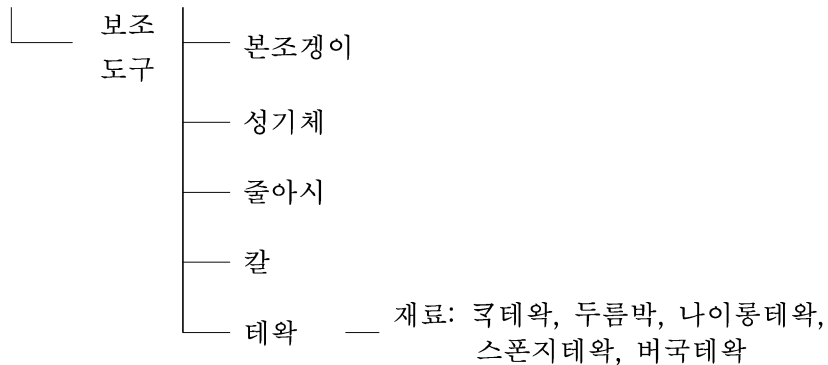
위의 <표 14>와 같이 선행 연구된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를 살펴보면 김영돈(1990)에서는 ‘해너도구에 따른 어휘’로 분류를 하여 작업 도구류를 나열하였고, 김영돈(2002)의 경우 ‘해너복과 도구’에서 ‘눈’, ‘테왁’, ‘망시리’로 분류를 하여 해당되는 어휘를 설명하였다. 고광민(2002)의 경우 ‘제주도의 채조구’를 통해 해조류에 따라 사용되는 어구를 분류하여 채조구를 설명하였다. 또한 ‘풍조 채취구’, ‘제주도의 조개와 어구’, ‘제주도의 갯바구니’, ‘제주도의 작살’로 작업 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분류하였다. 김순자(2009)는 ‘물질 도구’라는 범주에 ‘테왁과 망사리와 조락’, ‘비창과 호미와 호맹이’, ‘질구덕과 해너배’, ‘기타’를 기준으로 어휘를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너의 작업을 ‘채집용 도구’와 ‘채취용 도구’, 이에 따르는 ‘보조 도구’를 기준으로 작업 도구류 어휘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해너는 채취물에 따라서 도구 역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채집용 도구 중 ‘망사리’의 경우 재질과 용도에 따라서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너들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를 채집용 도구, 채취용 도구, 보조도구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작업 도구류와 관련된 어휘 분류





2.4.4.1. 채집용 도구와 관련된 어휘

① 마다리: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자루로 표준어 ‘마대’에 대응하는 제주도 방언이다. 우도에서는 ‘툄’을 채취하고 ‘마다리’에 담고 운반한다. ‘찰리’라고도 한다 (김순자 외 2011: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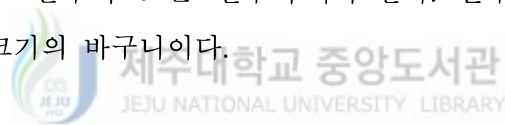
② 망사리: 해녀가 물질하여 채취한 해산물을 담아 넣는 그물을 말한다. ‘망사리’는 ‘테왁’ 밑에 달린다. 달리 ‘망시리’, ‘망아리’, ‘홍아리’, ‘홍사리’라고 불린다. ‘망사리’는 망사리의 재질에 따라서 구별이 되었다. ‘미망사리’는 참역새꽃이 피기 직전의 걸쭉질인 ‘미’로 엮은 망사리이다. ‘어욱망사리’는 참역새로 만든 망사리로 상급의 ‘망사리’이다. ‘짚’을 엮어 만든 망사리인 ‘짚망사리’와 나이롱으로 엮은 ‘나이롱망사리’가 있다(김순자 2009: 139). ‘남측망사리’는 뉴질랜드 원산식물인 신서란의 잎사귀로 짠 망사리이다. 질기지만 물을 머금으면 축 늘어지는 결함이 있다(전경일 2010: 235).

용도에 따라서도 ‘망사리’가 구분된다. ‘헛물망사리’는 전복, 소라, 문어 등 ‘헛물’들 때 쓰는 망사리로 약간 촘촘하게 짜였다. ‘메역망사리’는 미역채취용 망사리이다. ‘조개홍사리’는 조개를 파서 담는 망사리이다. 거름용 해조류인 ‘고지기’를 따내는 데로 담는 ‘고지기망사리’라 한다. 음력 3월 보름 안팎에 첫 번째로 미역 허체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망사리를 ‘초불메역망사리’라고 하고, 두 번째 미역 허체 때 사용하는 망사리를 ‘두불메역망사리’라고 한다(고광민 2002: 18). 밭에 거름용으로 사용되는 감태나 듄복을 채취할 때는 ‘걸망’이 사용된다.

오분자기, 전복과 같이 작은 해산물을 넣기 위해서 사용하는 작은 ‘망사리’를 ‘좁망사리’, ‘조락’, ‘조레기’, ‘그물수대’, ‘바르출리’라고 부른다. 조락의 쓰임새를 살펴보면 그날의 채취물 중 작아서 도저히 팔 수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넣어두는 망사리로 ‘파치조락’이 있다. ‘굴분조락’은 하나의 망사리만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여분으로 가지고 가는 조락을 말하는데 달리 ‘군조락’이라고 한다(전경일 2002: 236). 오분자기를 넣은 조락을 ‘오분작조락’, 우미를 넣은 조락을 김순자 외(2013: 463)에서는 ‘우미조락’이라 한다.

③ 바구리: 표준어 ‘바구니’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이다. 해녀들이 물질을 바닷가를 오갈 때 해녀기구와 해산물을 넣고 다닌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바굼지’, ‘바굼지’라고 부른다.

크기에 따라서 ‘송동바구리(송동바굼지)’, ‘질구덕’, ‘출구덕’으로 나뉜다. ‘송동바구리(송동바굼지)’는 아주 작은 바구니로 ‘송둥이’라고도 부른다. 물건을 지어 나르는 큰 바구니의 일종으로 ‘물구덕’ 또는 ‘질구덕’이라 한다. ‘출구덕’은 허리에 차고 해산물 등을 담은 중간 크기의 바구니이다.



④ 바작: 표준어 ‘발채’에 해당하는 어휘로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을 말한다. ‘바작’은 해녀들이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이나 모자반, 툫 따위를 물으로 젖어 나를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김순자 외 2011: 115).

2.4.4.2. 채취용 도구와 관련된 어휘

① 갈퀴: 북제주군 우도면의 특산물인 넓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두 가닥의 철사를 동백나무 가지에 묶어 만들었다. 달리 ‘갈쿠리’, ‘갈콩이’라고 한다. 추자도에서는 같은 용도로 ‘풍곽닷’을 사용한다(고광민 2002: 12).

② 공쟁이: 바닷가에 떠다니는 해조류를 건져 올리는 갈고리이다. 작살처럼 긴 대나무 끝에 구부러진 쇠고리가 달려 있다(전경일 2010: 238). 바다에 무리를 이루어 떠다니는 해조류인 ‘몰레듬북’을 건져내는 갈퀴를 ‘몰레듬북공쟁이’(고광민 2002:

12)라고 한다.

③ 대조개창: ‘대조개삽’이라고도 하는데 일부 지역의 해녀들이 잠수하여 이것으로 ‘대조개’를 캐낸다(고광민 2002: 32).

④ 맛살쇠: 남제주군 성산읍 오조리에서 ‘맛살(맛조개)’을 찢러 잡는 ‘쇠(창)’다. 구리 철사로 만들었다. ‘대칼(보라맛조개)’을 찢러 잡는 ‘쇠(창)’을 ‘대칼쇠’라고 한다.

⑤ 빅게거낫: 해녀들이 잠수하여 ‘빅게(수염상어)’를 잡는 ‘거낫’이라는 갈퀴다. ‘거낫’은 걸러내는 도구의 뜻을 지닌 제주도방언이다. 해녀 혼자 또는 둘이서 ‘빅게’를 잡았다. 두 해녀가 같이 잡을 때는 ‘빅게거낫’의 손잡이 끝에 서너 발 길이의 줄을 묶었다. 한 해녀만 잠수하여 ‘빅게거낫’의 날을 ‘빅게’의 아가미에 걸고, 줄만 가지고 수면 위로 나온다. 그 줄을 넘겨받은 동아리 해녀는 갯가로 헤엄쳐 나온 해녀는 갯가로 헤엄쳐 나온다(고광민 2002: 143).

⑥ 빗창(비창):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도구로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빗’은 표준어 ‘전복’(全腹)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⑦ 소살: 표준어 ‘작살’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물속에서 물고기를 쏘아 잡는 도구이다. 지역별로 ‘소살을 쏘다’, ‘소살을 박다’¹³⁾라고 말한다. 고무줄로 만든 소살을 ‘고무줄소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940년대부터 고안해낸 고무줄이 달린 작살이다. 살, 대, 고무줄로 이루어졌다. 정착성 물고기는 물론 이동성이거나 민첩한 물고기도 쏘아 잡을 수 있었다.

⑧ 호맹이: 호미와 같이 생겼으나 소라, 성게, 문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지역과 사람에 따라서 ‘굴쟁이’, ‘굴각지’, ‘까꾸리’, ‘까꼬리’라고 부른다. 채취물에 따라서 ‘성게호맹이’, ‘오분재기호맹이’, ‘몽게까꾸리(물꾸럭굴쟁이)’라고 한다. ‘성게호맹이’는 성게 채취용 호미로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다. ‘오분재기호맹이’는 오

13) 서귀포 법환동 문춘선 구술.

분재기 채취용으로 끝이 뾰족하면서 납작하다. ‘뭉게까꾸리(물꾸럭줄갱이)’는 문어 잡이용 호미이다. ‘뭉게’는 표준어 문어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⑨ 호미: ‘호미’는 ‘낫’(鎌)에 해당되는 도구로 미역이나, 툫, 모자반을 썰 때 사용한다. 밭에서 쓰는 호미를 ‘비호미’, ‘들호미’라고 부르고, 바닷물에서 사용하는 호미를 ‘정계호미’, ‘중계호미’라고 한다. 생김새는 밭에서 쓰이는 낫, 즉 ‘호미’와 같지만 날과 자루를 연결시키는 방법이 다르다. 이는 바닷물에서 작업하므로 녹이 슬면 자루가 잘 빠지기 때문에 자루 바깥쪽으로 철사를 고정시킨 형태이다.

2.4.4.3. 보조도구와 관련된 어휘

① 고에기: 질구덕을 등에 질 때 밑바닥의 바깥쪽에 받치는 것으로 바구니에 받침을 하지 않으면 채취한 해산물에서 흘러내리는 물기로 하의가 온통 젖게 된다.

재료에 따라서 고에기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쉐고에기’는 소가죽으로 만든 것이고, ‘무지고에기’는 두꺼운 옷감으로 만든 것이다. ‘고무고에기’는 고무로 만든 것이고, ‘비니루고에기’는 비료를 담았던 푸대로 만든 고에기이다(전경일 2010: 237).

② 닷돌: 해녀가 물질하는 동안 ‘테왁’이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사리’에 끈으로 묶어 바닷속으로 내려뜨려 닷처럼 사용하는 돌멩이다. 표준어 ‘닷돌’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이다.

③ 닷줄: 망사리와 닷돌을 연결하는 줄이다. 작업하는 수심에 따라 다르나 약 15~20미터 정도이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일하는 해녀일수록 닷줄은 길다(전경일 201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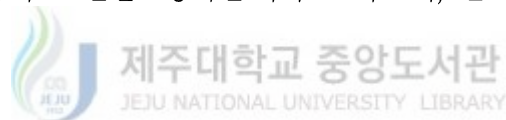
④ 방멩이: 우뚝가사리를 채취한 후 뿌리에 붙은 ‘적’을 떼어내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 ‘방망이’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마께’(김순자 외 2011: 142) 또는 ‘적마께’라고 한다.

⑤ 본조갱이: 해녀가 물에 들어 전복을 발견했는데 숨이 짧아 따지 못할 때 다시 찾기 쉽게 전복껍데기를 그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조갱이’는 전복이나 떡조개의 껍데기를 뜻한다. 본조갱이를 챙기지 못했을 경우 해초 등(모자반)을 뜯어 옆에 두거나 돌멩이 등으로 표시를 해 두었다.

⑥ 성기채: 알루미늄 양푼이나 냄비에 못으로 구멍을 숭숭 뚫어 만든 채로, 간성게알을 여기에 넣어 물에서 살살 흔들면 잡티가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전경일 2010: 238).

⑦ 줄아시: 잠수하지 않고 썰물 때 갯가에서 물속에 있는 미역을 베고 건져내는 자루가 긴 낫이다. 달리 ‘아싯댕이’라고 한다(고광민 2002: 21).

⑧ 칼: 성게 또는 생선을 손질할 때 사용한다. 성게알을 꺼내기 위해 성게를 반으로 가를 때 사용하는 칼을 ‘성기칼’이라고 하는데, 끝이 뾰족하고 짧다(전경일 2010: 238).



⑨ 테왁: 물질할 때 그 부력을 이용하여 수면위에서 몸을 의지하거나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이다. 재료에 따라서 테왁 종류가 나뉜다. 예전에는 박으로 만들어서 ‘꺾테왁’ 또는 ‘쿨락테왁’이라고 했다. ‘꺾’, ‘쿨락’은 표준어 ‘박’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두름박’이라 한다. 스티로폼 겉을 형겅으로 싸서 만든 테왁을 ‘나이롱테왁’, ‘스폰지테왁’이라 한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테왁을 ‘버국테왁’이라고 한다. 테왁에 얹어 묶은 줄을 ‘갑줄’이라고 하는데, 보통 머리털로 꼬아 만들었다.

2.5. 채취물류 관련 어휘의 분류

제주해녀가 물질을 해서 채취하는 것을 크게 바다 식물과 바다 동물로 나눌 수 있다. 바다 식물에는 갈조류 식물인 ‘메역’, ‘메역새’, ‘넙패’, ‘땀’, ‘땀복’, ‘툄’, ‘감태’가

있고, 녹조류 식물인 ‘푼래’, ‘청각’이 있다. 홍조류 식물로 ‘우미’, ‘독고달’, ‘고성초’, ‘가시리’, ‘도박’ 등이 있다.

바다 동물에는 연체동물인 ‘좁복’, ‘오분자기’, ‘구쟁기’, ‘보말’, ‘굴멩이’, ‘물꾸럭’, ‘군벳’ 등이 있고, 극피동물에 속하는 ‘구살’, ‘슴’, ‘해삼’ 등이 있고 절지동물에는 ‘강이’ 등이 있다. 바다 동물에 물고기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현장 조사에서 제보자들에게 물고기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물고기를 잡는 작살을 보급 받지 못하여 물고기 잡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동물에서는 물고기 어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선행 연구된 채취물류와 관련된 어휘는 <표 17>과 같다.

<표 17> 선행 연구된 채취물류 관련 어휘

	채취물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감태, 게석, 고장풀(고상초), 구쟁이(구제기, 구쟁기, 고동), 난미, 넓메역(넓머역, 넓미역), 대구쟁기(대구제기, 대구쟁이), 뎡쟁이, 돌군벳, 돌메역(돌머역, 돌미역), 돌우미, 두불우미, 듬복강이, 독고달(계관초), 마드레, 마타슬, 막물우미, 만곽메역(만곽머역, 만곽미역), 매훈이, 먹보말, 문다드리, 문어(물꾸럭, 무꾸럭, 문게, 문계, 문어), 물군벳, 물우미(수초), 미, 미역(메역, 머역), 민둥구쟁기(민둥구제기, 민둥구쟁이), 몰마타슬, 몸, 배망, 삼반초, 생이벨망, 섭우미, 성계(섬계, 구살, 쿠사리, 퀴살, 퀴, 귀), 소구쟁기(소구제기, 소구쟁이), 소쿠제기(조쿠제기), 쇠마타슬, 수두리, 수첨복, 쌀구쟁기(쌀구제기, 쌀구쟁이), 암첨복, 오갈, 오분자기(오분자귀, 오분제기, 오분작), 우미(천초), 이반초, 일반초, 전복(좁복, 생복), 조곽메역(조곽머역, 조곽미역), 조쿠쟁기(조쿠제기, 조쿠쟁이), 좁쌀구쟁기(좁쌀구제기, 좁쌀구쟁이), 줄메역(줄머역, 줄미역), 중구쟁기(중구제기, 중구쟁이), 지름강이(바위제), 천초, 청초, 초불우미, 춤궂매기, 춤메역(춤머역, 춤미역), 툫(툭), 푼강이, 해삼(해슴, 미)	117개
김순자 (2009)	가시리, 가이우럭, 갈다갈, 듬감은듬, 감태, 갓듬, 개웃(개우, 개웃), 객주리, 거드레기(거드락지, 늪의집살이), 건뎡, 검은성기(검은구살), 검은우럭, 검팍, 검평(검녕), 게(강이, 궁이, 쟁이) 고기지뎡(고직뎡, 고죽뎡, 고제기, 고지기),	238개

	<p>고장풀(고성초), 구두리, 구릿(귀릿), 구문쟁이, 군수(굴맹이, 물토새기), 기쁘레(개쁘레), 갑실뭉, 꽃보말, 꿀적(꿀), 납세미, 넓패(넙패, 넙피), 노랑뭉, 노랑쟁이, 논쟁이, 누루시불락, 다찌, 다살, 대점복, 돌우미, 돌청각, 돛뭉, 듬복, 따개비, 따치, 딱뭉, 똥, 마드레, 마타슬(마타실), 오분자기(오분작, 오분제기, 떡조쟁이, 바르), 군벗(군부), 망치, 명청우럭, 메역, 메역귀, 메역새, 메역쌈, 메옹이(메홍이), 뿔, 멧마구리, 몰그리, 문다드리(문다드리, 문다닥지, 써대기, 문대기, 돌포말, 남뎡이보말, 물꾸럭(무꾸럭, 뭉게), 물토새기, 민둥구쟁이(문둥구쟁이, 대소라), ㄹ작패, 뭉청각, 뭉, 바당 메역, 바당우럭, 바룻제기(제기), 밥게, 베제기(대오살), 벤자리, 벵어뭉, 보라성게, 볼락, 북보말, 불가사리, 북바리, 붉은성게(붉은구살, 붉은성기), 붉은우럭, 붉은우미, 붉은희슴(대죽미, 대죽희슴, 홍삼), 비말(베말, 베망, 쟁베름), 상어, 성게(구살, 귀, 성귀, 성기), 성게알(알, 귀알), 소괵(난메역), 소라(구제기, 구쟁기, 구쟁이, 고동), 소점복, 솔치, 솔치우럭, 수침복(수핏), 승어, 식킹이(식깅이, 식케), 실갱이듬복, 실듬복, 슝, 쌀고동(쌀구쟁이, 쌀구제기, 중엿구쟁이, 중고동, 중소라), 조쿠쟁이(준고동, 줍쌀구쟁이, 줍쌀고동, 존소라), 썩기, 암침복(암핏), 어렁이, 오징에(한치), 오토미(생성, 오테미, 솔라니, 솔래기), 우럭, 우미, 웨보말, 웬보말, 웅이, 자리, 장괵, 장뭉, 조쟁이(빗제기, 설피역, 썩패), 조기, 조청각, 졸락, 주뭉(쥐뭉), 줄메역, 쥐듬복, 지름보말, 줍복(점복, 침복), 천초, 청각(정각), 청우미, 춤뭉, 춤우미, 춤쁘레, 코트데기(곰쟁이, ㄹ메기, 춤ㄹ메기), 툷(툷), 패, 패듬복, 펄미(펄헤슴, 검은희슴), 프레(퍼레), 하이까라성기, 합저(합즈), 황우럭, 혼 주지, 희슴(미)</p>	
전경일 (2011)	마드레, 문어, 물고기, 미역, 뭉, 성게, 소라, 수침복, 암침복, 오분제기, 우뭉가사리, 전복, 툷	13개
총 계		368개

위의 표에 제시된 어휘는 중복되는 어휘도 있고, 연구자가 새로 발굴한 어휘도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어휘는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8> 연구자에 따라 새로 발굴된 채취물류 관련 어휘

	채취물류 관련 어휘	어휘 개수
김영돈 (1990, 2002)	계석, 귀, 난미, 대구쟁기(대구제기, 대구쟁이), 두불우미, 듬북강이, 막물우미, 만곽메역(만곽머역, 만곽미역), 매훈이, 무꾸럭(문게, 문어, 물구럭), 물군벚, 물우미(수초), 바위제, 삼반초, 생이벨망, 섬게, 섬우미, 생복, 소구쟁기(소구제기, 소구쟁이), 이반초, 일반초, 조곽메역(조곽머역, 조곽미역), 중구쟁기(중구제기, 중구쟁이), 청초, 초불우미, 쿠사리, 귀살	41개
김순자 (2009)	가시리, 가이우럭, 감은돔, 갯돔, 개웃(개우, 개웃), 꺾주리, 거드레기(거드락지, 늪의집살이), 건뭍, 검은성기(검은구살), 검은우럭, 검팍, 검평(검녕), 게(강이, 궁이, 쟁이) 고기지뭍(고직뭍, 고죽뭍, 고제기, 고지기), 구두리, 구릿(귀릿), 구문쟁이, 군수(굴맹이), 기쁘레(개쁘레), 갑살뭍, 꽃보말, 꿀적(꿀), 남뎡이보말, 남세미, 넓패, 패, 념패, 념피, 노랑뭍, 노랑쟁이, 논쟁이, 누루시불락, 다찌, 닥살, 대소라, 대점복, 들청각, 들포말, 돛돔, 듬북, 듬북보말, 따개비, 따치, 딱돔, 떡조쟁이(바르), 똥, 망치, 멍청우럭, 메역귀, 메역새, 메역썰, 메옹이(메홍이), 멜, 멧마구리, 몰그리, 문다닥지, 문대기, 물토새기, ㄹ작패, 뭍청각, 바당 메역, 바당우럭, 바룻레기(레기), 밭게, 베체기(대오살), 벤자리, 벵어돔, 보라성게, 볼락, 불가사리, 붉바리, 붉은성게(붉은구살, 붉은성기), 붉은우럭, 붉은우미, 붉은호슴(대죽미, 대죽희슴, 흥삼), 비말(베말, 쟁베름), 상어, 성게알(알, 귀알), 성귀(성기), 소곽(난메역), 소점복, 솔치, 솔치우럭, 승어, 식깅이(식깅이, 식케), 실깅이듬북, 실듬북, 슝, 썰기, 썸대기, 어랭이, 오갈다갈, 오분제기, 오징에(한치), 오토미(생성, 오데미, 솔라니, 솔래기), 우럭, 웨보말, 웬보말, 웅이, 자리, 장곽, 장뭍, 점복(침복), 조쟁이(빗제기, 설피역, 썰패), 조기, 조청각, 줄락, 주뭍(취뭍), 중엿구쟁이(중고동, 중소라), 쥐듬북, 지름보말, 존고동(존소라), 청각(정각), 청우미, 춤뭍, 춤우미, 춤쁘레, 코트데기(곰생이, ㄱ메기, 춤ㄱ메기), 패듬북, 필미(필헤슴, 검은희슴), 썸레(퍼레), 하이까라성기, 합저(합즈), 황우럭	179개
총 계		220개

위의 <표 17>과 같이 선행된 해녀의 채취물류 관련 어휘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김영돈(1990)의 경우 ‘해산물에 따르는 어휘’라는 큰 범주에서 주요해산물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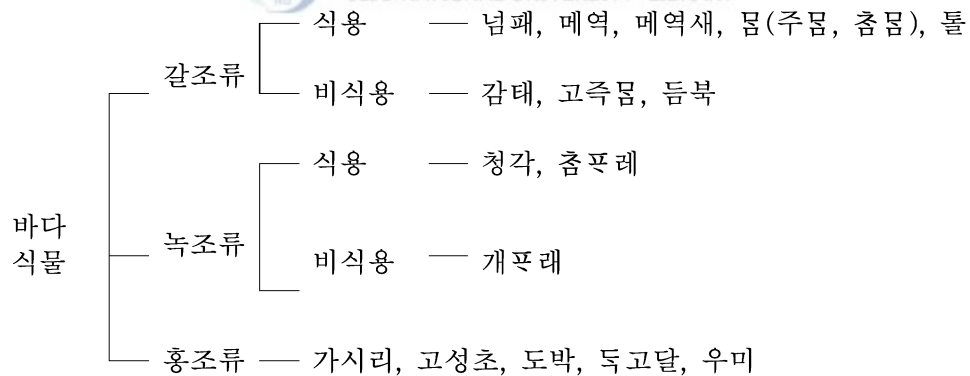
어휘를 설명하고 있다. 김순자(2009)에서는 채취물을 크게 ‘식물’과 ‘동물’로 분류하였는데, ‘바다동물’은 ‘바닷물고기’와 ‘물고기 외의 동물’(절지동물, 극피동물, 연체동물, 원생동물, 강장동물)로 나누어 어휘를 정리하였다. 전경일(2011)의 경우 ‘채취기술’을 통해 주요 채취물에 해당하는 어휘를 나열하여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녀의 채취물 관련 어휘 분류를 기존의 김순자(2009)에서 분류한 방식을 따르되 ‘바다 식물’의 경우 갈조류, 녹조류는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고, ‘바다 동물’의 경우 ‘구쟁기’의 경우 크기 별로 어휘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통해서 해녀가 채취하는 다양한 물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5.1. 바다 식물과 관련된 어휘

바다 식물 관련 어휘를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로 분류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바다 식물과 관련된 어휘 분류



2.5.1.1. 갈조류 식물과 관련된 어휘

① 메역: ‘메역’은 표준어 ‘미역’에 해당되는 갈조류 식물이다. 바다 속 바위에 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미역을 ‘돌메역’, ‘돌머역’, ‘바당메역’이라 한다. 양식미역은

‘줄미역’, ‘줄메역’, ‘육지미역’이라고 한다. ‘넙메역’은 ‘넙괵’이라고도 하는데 우도에서 나는 길이가 2~3미터에 이르는 넓고 큰 미역(김영돈 2002: 776)이다. ‘춤메역’은 표준어 ‘참미역’에 해당되는 제주도방언으로, 보통 제주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을 가르키는 말로 ‘넙메역’과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이름이다(김순자 외 2011: 112). 또한 제철이 되기 전에 말린 미역을 ‘조각메역’이라 하고, 이에 대응하여 늦게 채취하여 말린 미역을 ‘만괵메역’이라고 한다(김순자 외 2011: 113).

‘메역’을 캐는 것을 ‘메역 즈물다’라고 하고, 미역 말리는 것을 ‘메역 부친다’, ‘메역 부찼다’ 또는 ‘메역 널다’라고 한다. 마른 미역 서른 개를 ‘한 단’, 미역 한 묶음을 ‘한 주지’(김순자 2009: 144)라고 말한다.

② 메역새: 바다의 돌에 짙막하게 돋은 미역과 비슷한 갈조류 식물 표준어 ‘미역쇠’이다. 몸길이 1~2m, 폭 50cm이지만 ‘미역쇠’는 높이 25cm, 폭 2~3cm로 ‘미역’보다 짙막하다. 달리 ‘메역쉬’, ‘미역새’라고 부른다.

③ 녀괵: 갈조류 패과에 속하는 해조로 파도가 심하게 치지 않는 조간대(潮間帶) 바위에 붙어 자란다. 표준어 ‘넙괵’에 대한 제주도방언이다. ‘녀괵’, ‘넙괵’, ‘녀피’라고도 불린다. 식용한다.

④ 뭍: ‘뭍’은 갈조류과인 ‘모자반’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뭍망’, ‘뭍망’이라고 한다. ‘뭍’ 종류로는 ‘주뭍’(취뭍), ‘춤뭍’, ‘고기지뭍’(갑썰뭍, 고직뭍, 고죽뭍, 고제기, 고지기), ‘건뭍’, ‘장뭍’, ‘실갱이뭍’, ‘노랑뭍’:‘노랑쟁이’(표준어 팽생이모자반을 말한다) 등이 있다. ‘뭍’은 식용하거나 밭의 거름으로 쓰이는데, 식용하는 ‘뭍’은 ‘춤뭍’과 ‘주뭍’이다. ‘고죽뭍’은 밭의 거름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김순자(2009: 145)에서 밝히고 있다.

⑤ 듬북: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인 ‘듬북’은 밤색 조류(藻類)의 하나로 줄기의 길이는 1미터 이상이고, 가지가 많으며 잎은 길쭉하고 톱니가 있다. 보통 미역 채취가 끝나는 음력 4월경에 채취하는데 제주에서는 보리밭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종류로는 ‘갑썰듬북’, ‘취듬북’ 등이 있다고 김순자 외(2011: 130)에 설명하고 있다.

⑥ 툇: ‘툇’은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로, 표준어 ‘툇’에 해당된다. 툇의 채취는 온 마을이 같이 하는 공동 작업이다. 4월경에 물이 썰 때 바닷가 바위에서 낮으로 베어 채취한다.

⑦ 감태(감태): 갈조류 식물로 주로 전복과 소라 등의 먹이로 중요하며 깊은 바다에서 난다. 또한 밭의 거름으로도 사용된다.

2.5.1.2. 녹조류 식물과 관련된 어휘

① 푼래: 녹조식물 파렛과의 해조류로 표준어 ‘파래’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떠래’라고 한다. 식용과 관련해서 ‘개푼래’와 ‘츄푼래’로 구분된다. ‘개푼래’ 또는 ‘기푼래’는 잎이 넓고 바닷가 조간대 바위에 붙어서 사는데 식용하지 않고 거름으로 사용한다. ‘츄푼래’는 먹을 수 있다고 김순자 외(2011: 147)에서 설명되고 있다.

② 청각: 표준어 ‘청각채’에 해당하는 녹조류 청각과의 해조이다. 달리 ‘전각’, ‘정각’, ‘친각’이라고 부른다. 청각은 종류에 따라서 ‘물청각’, ‘조청각’, ‘돌청각’ 등으로 구분(김순자 2009: 146)한다. 식용이 가능한 것을 ‘츄정각’이라 한다.

2.5.1.3. 홍조류 식물과 관련된 어휘

① 우미: 표준어 ‘우뭇가사리’에 해당하는 홍조류 해조이다. 달리 ‘천초’, ‘천추’라고 한다. 우미는 자라는 곳에 따라서 ‘돌우미’와 ‘섬우미’로 나뉜다. ‘돌우미’는 바위 위에 자라나는 자갈한 우뭇가사리로 하군이나 노파 해녀들이 옷을 입은 채 캔다. ‘섬우미’는 깊숙한 바다 속에서 자라는 질이 좋은 우뭇가사리를 말한다. 또한 바닷가 근처의 바위에서 자라는 ‘갯우미’가 있다.

‘우미’는 채취시기에 따라 이름을 달리한다. 그 해 들어 처음 캐는 경우를 ‘일반초’, ‘일번초’라 하고, 두 번째 캐는 일을 ‘이번초’, 세 번째 캐는 경우는 ‘삼반초’, ‘삼번초’라 한다. 또한 처음으로 해녀가 바다에서 캐낸 우뭇가사리를 일컫는 ‘조각우미’, 가장 늦게 채취한 ‘만괘우미’가 있다.

이밖에도 푸른 빛이 감도는 ‘청우미’와 우뭇가사리의 일종인 표면이 뺏뺏한 ‘광추우미’, ‘중지우미’가 있다고 김순자 외(2011: 141)에서 밝히고 있다.

② 독고달: 한자어 ‘계관초’에 해당하는 홍조류 갈래곰보를 뜻한다. 모양이 닭의 벅과 비슷하다고 하여 ‘독’은 닭, ‘고달’은 ‘벅’을 뜻하는 제주도방언이다.

③ 고성초: 1980년대에 이르러 제주 해안 일부 지역에서 캐기 시작한 해조류로 벅붉은잎에 해당된다. 제주도방언으로 ‘고상초’, ‘고장풀’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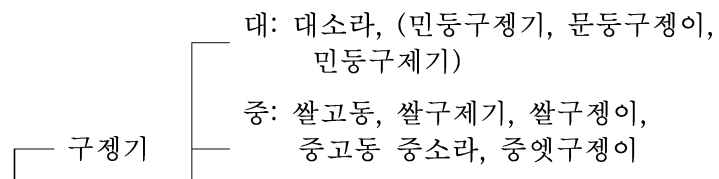
④ 가시리: ‘가시리’는 풀가사리과의 해조류로 식용으로도 이용되나 접착성이 좋아 삶은 물로는 명주, 비단 따위의 옷감에 풀을 한다. 달리 ‘가스리’라고 한다. 우도에서 나는 가시리의 종류를 살펴보면 ‘막가시리(마카시리)’, 식용이 가능한 ‘불통가시리’, ‘주네가시리’ 등이 있다고 김순자 외(2011: 151)에서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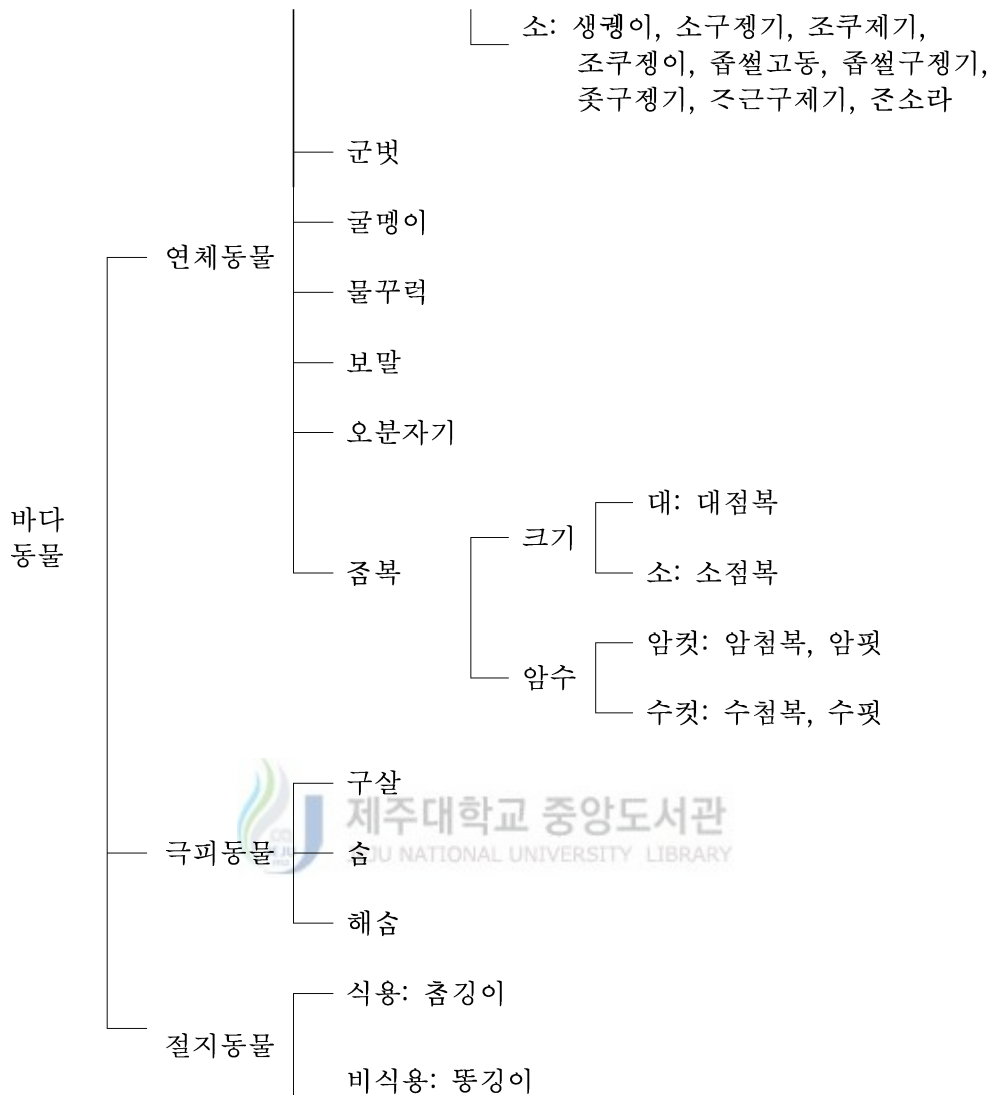
⑤ 도박: ‘도박’은 붉은말에 딸린 바다에 나는 풀을 말한다. 붉은 자줏빛의 가죽 조각 같고 마르면 자줏빛이 되는데, 풀이나 접착제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도박의 한 종류로 ‘멩지도박’이 있는데 길이 매끈매끈하다. 표준어 ‘명주도박’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김순자 외 2011: 149).

2.5.2. 바다 동물과 관련된 어휘

해녀들의 채취물중 바다 동물과 관련된 어휘를 연체동물, 극피동물, 절지동물로 분류하면 <표 20>과 같다.

<표 20> 바다 동물과 관련된 어휘 분류





2.5.2.1. 연체동물과 관련된 어휘

① 구쟁기: ‘구쟁기’, ‘구쟁이’, ‘구제기’, ‘고동’은 연체동물인 소라에 해당된다,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불리는 데, ‘민둥구쟁기’, ‘문둥구쟁이’, ‘민둥구제기’, ‘대소라’는 ‘겉껍질에 생긴 빨모양의 쌀이 민둥민둥하게 닳아진, 아주 크고 성숙한 소라’이다. 겉껍질이 ‘민둥민둥하다’는 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름을 붙였다. 이에 비해서 ‘쌀고동’, ‘쌀구쟁이’, ‘쌀구제기’, ‘중엿구쟁이’, ‘중고동’, ‘중소라’는 ‘중간 크

기의 소라'를 말한다. '조쿠쟁이', '조쿠제기', '생쟁이', '좁쌀구쟁기', '좁쌀고동', '죗구쟁기', '즌소라', '즈근구제기', '소구쟁기'는 크기가 작은 달 성숙한 소라'라고 김순자(2009: 155)에서 밝히고 있다.

② 군벚: 연체동물 '군부'이다. 달리 '굼벚', '군부', '딱지조개'라고 한다. 바다에 사는 군부를 '바당군벚', 바위에 붙어사는 군벚을 '돌군벚' 또는 '췌군벚'이라고 한다. '헤르비군벚'은 털군부의 제주도방언이다(김순자 2009: 158).

③ 굴멩이: 연체동물 '군소'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지역에 따라서 '군수', '물툫', '물도새기', '물토새기', 라고도 부른다. '물도새기'는 군소가 30~40cm 길이로 검은 갈색 바탕에 회색을 띄며 해조류를 갉아먹기 때문에 성장률이 매우 높아 한 달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체중이 불어나는 모습을 돼지에 비유하여 표준어 '돼지'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 '도새기'가 차용됐다고 볼 수 있다.

④ 물꾸럭: 표준어 '문어'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무꾸럭', '문게', '문어', '문에', '문게'라고 부른다.

⑤ 보말: 연체동물 '고동'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종류에 따라서 '떡보말', '수두리보말', '두드럭보말', '문다기보말', '문다드리', '문테기', '문다닥지', '문두레기', '씩는보말', '곰생이보말', '가마귀보말', '남텅이보말', '돌보말', '돌포말', '웬보말', '약보말', '생이보말', '췌보말', '쇠보말', '춤고메기' 등이 있다. '떡보말'은 밤고동에 해당되고 '수두리보말'은 팽이고동에 해당된다. 눈알고동에는 '돌보말', '돌포말', '문다닥지', '문테기', '췌보말', '쇠보말'(김순자 2009: 156)이 있다. '씩는보말' 눈알고동에 '문두다끼', 울타리고동에 '춤감세기', 각시고동에 '꼬치보말'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⑥ 오분자기: 연체동물은 '오분자기'는 전복과 비슷하게 생겼으나 크기가 아기 손바닥 만큼 하고 간조 때에 바위 밑에서 잡을 수 있다. 달리 '오분자귀', '오분재기', '오분자구', '오분작', '바르', '고망바르', '조개', '떡조쟁이' 등으로 불린다. 수산 당국에서는 '오분자기'로 사용하고 있다.

⑦ 줍복: 연체동물인 전복을 제주에서는 ‘점복’, ‘줍복’, ‘침복’, ‘생복’, ‘셈복’, 이라 한다. 표준어 ‘전복’도 함께 쓰인다. 크기에 따라서 ‘대점복’, ‘소점복’ 등으로 나누고, 암수에 따라서 암컷은 ‘암침복’, ‘암핏’, 수컷은 ‘수침복’, ‘수핏’이라 부른다. ‘수침복’은 거무죽죽하고 뭉뚱한 모양이고, 그 껍질이 움푹한 모습에 비하여 ‘암침복’은 살빛이 노르스름하고 납작하다. 크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전복을 ‘마드레’라고 한다.

전복의 창자는 ‘개웃’, ‘개우’, ‘개웃’이라고 하고, 전복 껍데기는 ‘껍평’, 또는 ‘껍녕’이라고 한다. 전복의 새끼는 지역에 따라서 ‘조갱이’, ‘셈페’, ‘설피역’, ‘빗제기’ 등으로 불린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해산물을 한번에 캐지 못하고 물 속에서 나올 때 표시해 두는 도구를 ‘본조갱이’, ‘본’이라 하는데 김순자(2009: 155)에서는 표시물로 사용하는 도구가 작은 전복껍데기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고 있다.

2.5.2.2. 극피동물과 관련된 어휘

① 구살: 극피 동물 ‘성게’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지역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쿠살’, ‘쿠사리’, ‘퀴살’, ‘퀴’, ‘귀’, ‘귀살’, ‘성귀’, ‘성기’, ‘성게’라고 불린다.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붉은 것을 ‘빨간성게’, ‘붉은구살’, 보라색은 ‘보라성게’, 검은 것은 ‘검정성게’, ‘검은구살’이라 부른다. 성게의 외피에 뽕족뽕족하게 나 있는 돌기를 ‘살’, 또는 ‘쌀’이라고 하는데 ‘쌀’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성게는 ‘하이까라성기’(김순자 2009: 153)이다.

② 슝: ‘슝’은 말뚝성게의 제주도방언 이름으로, 성게와 함께 3-4월에 채취하는 해산물이다. 생김새가 둥글고 말뚝 비슷하게 생겼으며 짧은 가시가 많이 나 있다. 달리 ‘양장구’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조천읍 조천리 이정자 해녀에 의해서 조사된 어휘로 ‘성게’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으로 육지물질을 하면서 사용하게 된 어휘로 보인다.

③ 해삼: 제주에서는 극피동물 ‘해삼’을 ‘해삼’, ‘해슴’, ‘히슴’, ‘미’ 이라고 부른다. 색깔에 따라서 붉은 것을 ‘붉은히슴’, ‘대죽미’, ‘대죽히슴’, ‘홍삼’이라 부른다. ‘대

죽미'는 수수처럼 붉은 해삼을 일컫는다.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을 '펼미', '펼헤슴', '검은희슴'이라 한다. 김순자(2009: 154)에서는 '펼미', '펼희슴'은 아주 물기가 많은 질척질척한 진흙을 뜻하는 '뺨'에서 나는 해삼이고, '검은해삼'은 색깔이 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보고 있다.

2.5.2.3. 절지동물과 관련된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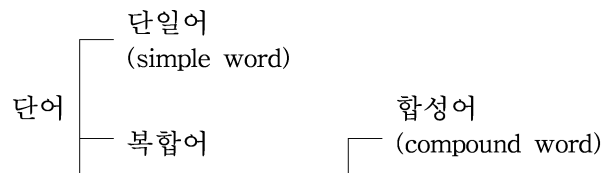
강이: '강이'는 절지동물 '게'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달리 '갱이', '갱이', '궁이', '기', '게' 등으로 불리는데 종류에 따라서 '춤강이', '참갱이', '참궁이', '똥강이', '덕강이', '뭍강이', '식강이', '식강이', '식케', '지름강이', '지름갱이', '으파리강이', '돌강이', '뿔강이', '팻강이', '베락강이', '돌팻강이', '넙파리강이', '거드락지', '거들레기', '거드레기', '게드레기', '거들베기', '늪의집살이'(김순자 2009: 152) 등이 있다. '거들베기'는 서귀포시 법환동 문춘선 해녀에 의해서 새로 수집된 어휘이다. '춤강이'는 식용이 가능하지만 '똥강이'는 먹지 못하는 게를 말한다. '덕강이'는 '덕'(바다 속의 큰 바위)에 서식하는 게를 일컫는다. '지름강이'는 조간대 상층에 서식하는 게의 일종이다. '식강이'는 등어리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는 게를 말한다. '거드락지', '거들베기', '늪의집살이'는 '소라게'를 말한다.

Ⅲ. 해녀 관련 어휘의 구성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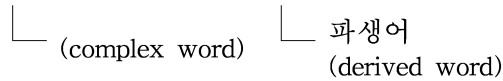
단어의 짜임새는 단일할 수도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단어는 하나의 형태소로 된 것도 있고 둘 이상이 모여 구성된 것도 있다. 단어의 짜임새가 단일한 단어, 즉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낱말을 단일어(simple word)라 하고, 짜임새가 복잡한 단어, 하나의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붙거나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말을 복합어(complex word)라 한다. 복합어는 다시 그 형성 방식에 따라 다시 합성어(compound word)와 파생어(derived word)로 나눌 수 있는데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이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한 단어를 이룬 것이다.

한편 어간(stem)은 ‘용언이 활용할 때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 즉 활용에서 어미에 선행하는 부분’을 말한다. 어기(base)는 용언의 어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단어에서 접사를 제외한 부분 전체를 말한다. 이에 비해 어근(root)은 ‘파생이나 합성에서 의미상 중심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합성어에서는 직접구성성분이 모두 어근이지만, 파생어에서는 직접구성성분이 ‘파생접사가 결합할 때 중심이 되는 부분, 다시 말해 파생접두사에 후행하거나 파생접미사에 선행하는 부분’인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어근이나 어간과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affix)라 한다.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뉜다. 접두사는 어기의 앞에 놓이고, 접미사는 어기의 뒤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이들 접사는 어기와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의존적 요소로 볼 수 있다.¹⁴⁾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1> 단어 형성 방식의 분류



14) 고영근·구본관(2008)을 참고함.



II장에서 살펴본 해녀 관련 어휘의 구성이 복합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합어의 구성 방식을 살펴려면, 복합어가 단일구조가 아닌 복합구조로 이루어진 이상 그 구성성분의 분석을 해보아야 한다. 그 구성성분의 결합 여하로 복합어가 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되기도 하므로 그 형태구조의 배합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I.C 분석¹⁵⁾이 있다. 이익섭(1965)에서 I.C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합어와 파생어의 구별을 분명히 하고서 과거에 복합어로 간주해 왔던 일련의 명사들을 I.C 분석 방법에 따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파생어로 보아야 할 것과 복합어로 보아야 할 것을 가려냈다.

본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해녀 관련 어휘의 I.C 분석을 중심으로 단일어와 복합어 중 복합어를 전부요소와 후부요소 나눈다. I.C 분석은 복합어의 성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로 알려졌다.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직접구성성분을 고려하여 층위적으로 분석하면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고, 복합어를 분석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로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구성의 구조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장에서는 해녀 관련 어휘 가운데 복합어를 대상으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구별하여 살펴봄으로써 해녀 어휘 내부에서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이 해녀 어휘를 구성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부요소와 후부요소의 목록은 앞에서 제시한 해녀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익섭(1965)에서는 Nida(1949: 91-92)에서 제시한 I.C 분석의 기준 가운데 의미와의 상관성, 보다 작은 단위에 의한 대치 가능성, 언어 전(全) 구조에 의한 지원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5) 어떤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나 단어를 그 구조의 직접 성분(immediate constituent, I.C라고도 함)이라 하고, 그러한 성분으로 분석하는 것을 직접 성분 분석(I.C 분석이라고도 함)이라고 한다.

3.1. 전부요소에 따른 어휘 구성

해녀 어휘는 해녀 명칭, 작업류, 바다류, 해녀복, 작업도구, 채취물류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어의 형태적인 짜임새를 기준으로 해녀 어휘를 분류하면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결합한 복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녀 어휘는 단일어보다는 합성법이나 파생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 많다.¹⁶⁾

이 경우 전부요소는 어휘 형성 동기, 유래, 해녀 어휘에 대한 다양한 조어 방식뿐만 아니라 전부수식기능을 지니고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전부요소를 어기성 전부요소와 접사성 전부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어기성 전부요소는 다시 명사성 전부요소와 동사(형용사)성 전부요소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것이다. 이는 동사(형용사)는 명사와는 달리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는 품사이기 때문에 분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어기성 전부요소는 다음과 같다.

3.1.1. 어기성 전부요소

가. 명사성 전부요소



① ‘고무’

(1)ㄱ. 고무눈

ㄴ. 고무바지

ㄷ. 고무버선

ㄹ. 고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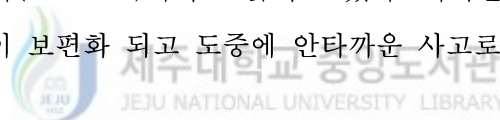
ㅁ. 고무옷

(1ㄱ)은 ‘고무+눈(目)’로 고무로 만들어진 물안경을 일컫는다. (1ㄴ)은 ‘고무+바지’로 고무 재질의 개량 잠수복을 말한다. (1ㄷ)은 ‘고무+버선’으로 추위를 이기기 위해

16) 해녀 관련 어휘 중 단일어에 해당되는 예로는 ‘메역, 호미, 가시리, 갈퀴, 감태, 고성초, 공쟁이, 구살, 구쟁기, 굴멩이, 금채, 금, 나리, 넘패, 도박, 듬복, 마즙, 물건, 바구니, 방멩이, 보말, 봉돌, 소살, 슴, 양말, 여, 오분자기, 우미, 웨살, 잠수, 조락, 지미, 즈녀, 즈수, 청각, 초용, 총각, 칼, 툄, 해경, 해녀’ 등이 있다. 이들은 본 연구의 관심사가 아니다.

양말 위에 신는 버선을 말한다. (1ㄷ)은 ‘고무+상의’로 개량 잠수복 중 상의를 말한다. (1ㄱ)은 ‘고무+옷’으로 고무로 만들어진 개량 잠수복을 말한다. ‘고무’의 특성 때문에 해녀복 및 도구에 ‘고무’가 결합한 어휘가 발달됨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나타나는 공통 성분 ‘고무’는 고무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액으로 만든 물질로 탄력성이 강하고 신축성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복에 ‘고무’를 사용한 것은 해녀 작업 능률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고무옷’을 입기 전에는 광목으로 만든 ‘소중이’를 입었다. 그러나 ‘소중이’는 추위에 약했다. 해녀들은 광목으로 만든 소중의를 입었을 때 보다 고무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되면서 작업 시간이 늘어나 소득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작업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직업병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고무 냄새를 독하게 풍기므로 오랫동안 냄새를 맡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리고 입고 있을 때 몸에 밀착되기 때문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어오르게 된다. 그 밖에도 부력이 증가하여 잠수하기가 힘들게 되므로 납덩어리를 차게 되는데 이것이 허리에 부담을 주고 요통의 원인이라고 김정숙(1989: 24)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겨나면서 해녀들은 약물 복용이 보편화 되고 도중에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② ‘나일론(나이롱)’

(2)ㄱ. 나일론버선

ㄴ. 나이롱망사리

ㄷ. 나이롱테왁

(2ㄱ)은 ‘나일론+버선’으로 재래식 해녀복에 의해 만들어진 어휘이다. (2ㄴ)은 ‘나이롱+망사리’로 나일론 재질로 만들어진 망사리를 일컫는다. (2ㄷ)은 ‘나이롱+테왁’으로 발포 스티로폼으로 만든 테왁이다. 달리 ‘스폰지테왁’으로 불린다. 스티로폼의 특성상 잘 부서지고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스티로폼에 천을 싸서 사용한다. 주재료인 스티로폼을 사용하여 ‘스티로폼테왁’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나이롱테왁’이라고 하는 이유는 테왁에 달려있는 망사리가 예전에는 짚, 억새의 속잎 등으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나일론으로 만들면서 ‘나이롱테왁’이라고 불린다.

③ ‘손’

(3)ㄱ. 손골미

ㄴ. 손복닥

(3ㄱ)은 ‘손+골미’로 ‘골미’는 표준어 ‘골무’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골무’는 바늘로 인해 손가락에 생기는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해녀는 해산물을 채취할 때 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갑을 ‘손’과 ‘골미’가 결합하여 ‘손골미’라고 부르고 있다. (3ㄴ)은 ‘손+복닥’으로 ‘손골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 (3ㄱ,ㄴ)은 ‘손’(手)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불’

불턱

‘불턱’은 ‘불(火)+턱’ 구성으로, ‘턱’은 ‘조금 높은 둔덕’을 뜻하는 ‘덕’의 변이형태이다(강영봉 2011: 252). ‘불턱’은 물질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쬐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었다. 불은 쬐는 공간으로 ‘불(火)’이 결합되어 쓰인 어휘로 보인다.

⑤ ‘닷’

(5)ㄱ. 닷돌

ㄴ. 닷줄

(5ㄱ)은 ‘닷+돌’ 테왁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닷으로 사용하는 돌을 말한다. 닷+줄’로 망사리와 닷돌을 연결하는 줄이다. (5ㄴ)은 ‘닷+줄’로 망사리와 닷돌을 연결하는 줄이다. ‘닷’은 표준어 ‘닷’(碇)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이다.

해녀가 사용하는 어휘 ‘닷’은 사전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테왁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닷’이 결합되어 어휘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닷’은 ‘달>닷>닷’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제주도방언에서 고어의 형태가 남아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⑥ ‘줄’

(6ㄱ). 줄메역

ㄴ. 줄아시

(6ㄱ)은 ‘줄+메역’으로 양식을 통해 수확한 미역을 일컫는다. 미역 양식 방법을 살펴보면 양식장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미역을 붙인 줄을 바다 아래로 내려 키운다. 이를 통해 양식 미역은 ‘줄’을 써야 하는 미역이므로 ‘줄메역’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6ㄴ)은 ‘줄+아시’로 테우 위에서 두 사람이 양끝에 긴 줄을 묶어 물속에 드리우고 해조류를 베어내는 도구이다.

(6ㄱ,ㄴ)의 ‘줄’(槲)은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으로 명사성 전부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⑦ ‘바르’

(7ㄱ). 바르칠

ㄴ. 바르출리

ㄷ. 바르코기

ㄹ. 바르퀘기



⑦의 ‘바르’는 표준어 ‘바다’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바르’는 중세국어 ‘바르’, ‘바를’¹⁷⁾과 관련이 있다.

(7ㄱ)은 ‘바르+ㅎ+질’로 바다에서 해산물을 잡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7ㄴ)은 ‘바르+출리’로 오분자기를 담은 망사리를 말한다. (7ㄷ)은 ‘바르+ㅎ+고기’로 바다 고기, 즉 물고기를 일컫는 어휘이다. (7ㄹ)은 ‘바르+ㅎ+퀘기’로 (7ㄷ)와 같이 물고기를 말한다. (7ㄱ,ㄷ,ㄹ)는 표준어 바다(海)를 의미하는 제주도방언 ‘바르’이고, (7ㄴ)의 ‘바르’는 ‘오분자기’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17) 노피 바린 우횃 들구를 좇는다 《초두해 15:52》
· 물근고 갓 업스며 민 업슬시 바를 곱흐니라 《원각서 29》

⑧ ‘물’

(8)ㄱ. 물도새기

- ㄴ. 물수건
- ㄷ. 물숨
- ㄹ. 물적삼
- ㅁ. 물초조금
- ㅂ. 물소중의
- ㅅ. 물안경
- ㅇ. 물옷
- ㅈ. 물호미

(8ㄱ)의 ‘물도새기’는 ‘물+도새기’의 결합형으로 ‘물+도새기’는 표준어 ‘군소’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물에 사는 ‘도새기’에 ‘물’을 결합하여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는 바다동물인 ‘군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8ㄴ)은 ‘물+수건’으로 해녀가 무자맥질해서 작업할 때 쓰는 하얀 수건으로 물질할 때 머리가 흐트러지 않게 하고 따스하게 감싸주며, 집과 바닷가 사이를 드나들 때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기능(현평효 외 2009: 390)을 한다. (8ㄷ)은 ‘물+숨’으로 해녀들이 물질할 동안 바다 속에서 숨을 참는 것을 일컫는다. (8ㄹ)은 ‘물+적삼’으로 전통 해녀복에서 상의 중 하나이다. (8ㅁ)은 ‘물+초조금’으로 무수기의 초조금에 드는 때를 말한다. (8ㅂ)은 ‘물+소중의’로 전통 해녀복으로 광목이나 무명으로 만든 하의이다. (8ㅅ)은 ‘물+안경’으로 물질할 때 쓰는 도구이다. (8ㅇ)은 ‘물+옷’으로 해녀가 물질할 때 입는 옷을 일컫는다. (8ㅈ)은 물+호미’로 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돌호미’라고 하는데, 전부요소 ‘물’과 ‘돌’을 통해 작업 환경에 따라서 어휘가 달리 나타나고 있다.

(8ㅁ)의 ‘물’은 ‘조수(潮水)’를 달리 이르는 말이고, 나머지 (8ㄱ,ㄴ,ㄷ,ㄹ,ㅂ,ㅅ,ㅇ,ㅈ)의 ‘물’은 바다(海) 따위를 두루 이르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해녀의 작업장이 바다이기에 ‘물’과 결합한 어휘가 발달함을 보여주고 있다.

⑨ ‘할망’

할망바당

‘할망바당’은 ‘상군’이었다가도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져 먼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나이든 해녀를 위해서 일정 구역의 얕은 바다에서 물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바다를 ‘할망바당’이라고 일컫는다. ‘할망바당’은 ‘할망+바당’ 구성으로 표준어 ‘할머니’에 해당하는 제주 방언 ‘할망’(祖母)과 표준어 ‘바다’(海)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 ‘바다’와 결합된 어휘로 ‘할머니 바다’라는 뜻이다. 명사형 전부요소인 ‘할망’을 사용한 어휘를 제주도에서 또 찾아 볼 수 있다. 제주시 도두1동에 위치한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의 ‘할망장터’이다. ‘할망’(祖母)+‘장터’ 구성으로 ‘할머니 장터’를 의미하는 이곳은 65세 이상 할머니들을 위한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한 장소이다. 장날이면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직접 텃밭에서 채배한 농산물 또는 직접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한다.

명사형 전부요소 ‘할망’과 결합된 ‘할망바당’과 ‘할망장터’는 간단명료하게 명명된 어휘이지만, 나이든 해녀 또는 65세 이상의 할머니라는 대상으로 제한을 둬으로써 ‘경로사상’(敬老思想)을 읽을 수 있는 어휘이다.

⑩ ‘개’

개댨기



‘개댨기’는 ‘개+댨기’로 해녀의 작업장인 바다 속의 필요 없는 해초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어장청소이다. ‘개’(浦)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의미하는 명사형 전부요소이다.

⑪ ‘고망’

고망줍수

‘고망줍수’는 ‘고망+줍수’로 평상시에는 물질을 하지 않다가 허채기간 동안에만 물질을 하는 해녀를 일컫는다.

‘고망’은 ‘뚫어지거나 파낸 자리’를 말하는데, 표준어 ‘구멍’(穴)에 해당하는 제주도 방언으로 달리 ‘고냥, 구녕, 구멍, 굽기, 궁기’ 등으로 불린다. ‘구멍;을 뜻하는 어휘는 ‘고-’계열과 ‘구-’계열로 나누어지는데,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 그 말맛

이 조금씩 다르다. ‘고망’은 양성계열에 속한다 아주 작은 구멍을 ‘궁기’라고 말하는데, 이 어휘는 ‘구무’라는 중세 어휘가 격 변화할 때 주격이 연결된 ‘굵기’가 변한 말이다.¹⁸⁾

⑫ ‘메역’

- (12)ㄱ. 메역구덕
- ㄴ. 메역망사리
- ㄷ. 메역물
- ㄹ. 메역바당
- ㅁ. 메역새
- ㅂ. 메역호미

(12ㄱ)은 ‘메역+구덕’으로 채취한 미역을 담은 바구니를 일컫는다. (12ㄴ)은 ‘메역+망사리’로 (12ㄱ)과 같은 의미이다. (12ㄷ)은 ‘메역+물’로 미역을 채취하러 가는 일을 의미한다. (12ㄹ)은 ‘메역+바당’으로 미역이 잘 나는 바다를 일컫는다. (12ㅁ)은 ‘메역+새’로 바다의 돌에 짚막하게 돋은, 미역과 비슷한 해초를 의미한다. (12ㅂ)은 ‘메역+호미’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12ㄱ~ㅂ)의 ‘메역’은 ‘메역’은 표준어 ‘미역’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달리 ‘머역’이라 한다. 이는 옛 문헌어¹⁹⁾에 실린 어형을 통해 변화 과정을 거친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⑬ ‘멩지’

멩지바당

‘멩지바당’은 ‘멩지+바당’으로 ‘멩지’는 표준어 ‘명주’(明紬)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명주와 같이 파도가 거세지 않고 잔잔하고 보드라운 바다를 소망하여 명명된

18) 강영봉 외 (2010: 46)를 참고함.

19)· 머육: 海菜 《역어유해 上 54》

· 머육: 잇다감 머육과 찰와 좁과 가져다가 주더라《속삼 효》

· 메육: 메육《이문집랍 2:3》

어휘이다. 바다에서 자맥질하여 해조류와 패류를 채취하는 해녀는 바다모습에 매우 민감하다. 바다 모습에 따라서 그날 물질의 여부가 나뉘게 되고 더 나아가 경제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바다의 환경이 물질하기 더할 나위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이 어휘에 잘 드러나 있다.

⑭ ‘빋’

빋창

‘빋창’은 ‘빋+창’(槍)으로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으로 길이는 30cm정도 되고, 둥그랴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끈이 달려 있다(현평효 외 2009: 473-474).

‘비’는 『계림유사』에 ‘鰓曰必’가 나오는데 ‘必’에 대응한다. 같은 책의 ‘소왓필음필’(梳曰苾音必)에 따라 ‘복왓필’의 ‘필(必)’을 ‘빋’ 또는 ‘비’로 읽을 수 있다. 『한자고음사전』에서도 ‘필(必)’의 음을 [pi, pit, piët]으로 읽고 있어 또한 [비, 빋]을 얻을 수 있다(강영봉 2003: 9).

또한 제주에서는 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를 지칭하는 어휘 ‘비바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비바리’는 ‘비’+‘-바리’로 분석되며, ‘비’는 ‘전복’(鰓)을 뜻하고, 접미사 ‘-바리’는 사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가치 부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비바리’는 ‘전복을 다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해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을 뜻하다 의미가 축소되어 ‘처녀를 낮잡아 이르는 말’(강영봉 2003: 11-12)이 되었다.

‘빋창’과 ‘비바리’를 통해 아직 제주도에서 고어 ‘비, 빋’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⑮ ‘도독’

도독물질

‘도독물질’은 ‘도독+물질’로 해산물을 캐어서는 안 되는 금채 기간에 몰래 물질을 하는 일을 말한다. ‘도독’은 표준어 ‘도둑’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공동으로 다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녀들은 공동으로

그 어장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해녀가 입어할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 있고, 입어와 작업 시기는 해산물 종류에 따라 정해진다. 해녀들은 일 년 내 내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작업을 한다. 소라, 전복, 해삼, 성게를 잡는 ‘헛무레’는 여름 산란기에는 금어(禁漁) 하다가 음력 10월에서 3월까지 작업을 한다. 우뚝가사리, 툫, 천초, ‘독고달’이라고 하는 고장초와 같은 해초류는 4월에서 6월까지 채취한다. 전복은 음력 8월이 산란기여서 8월과 9월에는 금채(禁採)한다.

감태는 7월에 작업하며, 미역은 12월부터 금채(禁採) 기간에 들어가 3월 중순 쯤 모든 해녀들이 다 같이 작업을 한다(김영돈 2002: 85-108).

이렇게 1년 내내 해녀가 원하는 날에 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에 어장 단속은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금채(禁採) 기간에 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몰래 숨어서 ‘도둑물질’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급한 사정이 있을 땐 눈감아주기도 한다.

나. 동사(형용사)성 전부요소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관형형어미가 결합되어 후부요소를 꾸며 준다. 동사나 형용사성 전부요소 중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명사와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① ‘죽은-’

(1)ㄱ. 죽은누

ㄴ. 죽은눈

ㄷ. 죽은좁녀(죽은좁네)

ㄹ. 죽은테왁

(1ㄱ)은 ‘죽은-+누’로 ‘작은 물결’을 뜻한다. (1ㄴ)은 ‘죽은-+눈’으로 알이 작은 물안경을 의미한다. (1ㄷ)은 ‘죽은-+좁녀(좁네)’로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를 말한다. (1ㄹ)은 ‘죽은-+테왁’으로 크기가 작은 테왁을 말하는데, 어린 소녀들이 물질을 익힐 때 사용하기도 한다.

‘족은-’은 표준어 ‘작다’(小)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족다’의 명사형이다. ‘족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는 뜻을 지닌다(강영봉 외 2011: 415). 이를 바탕으로 (1ㄱ,ㄴ,ㄷ,ㄹ)의 ‘족은-’은 비교 대상보다 덜하다는 형용사성 전부요소가 결합된 어휘이다.

② ‘큰-’

(2)ㄱ. 큰누

ㄴ. 큰눈

ㄷ. 큰좁네(큰좁수)

ㄹ. 큰테왁

(2ㄱ)은 ‘큰-+누’로 ‘큰 물결’을 뜻한다. (2ㄴ)은 ‘큰-+눈’으로 알이 큰 물안경을 지칭한다. (2ㄷ)은 ‘큰-+좁네(좁수)’로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부르는 말이다. (2ㄹ)은 ‘큰-+테왁’으로 크기가 큰 테왁을 일컫는다. 여기서 ‘큰-’(大)은 ‘크다’의 어간 ‘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ㄴ’이 붙은 ‘큰’이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의미의 관형어로 사용되었다.

③ ‘난-’

난바르

‘난바르’는 ‘나다(出)+ㄴ+바르’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를 의미한다. 해녀들이 배를 타고 ‘난바르’로 물질을 나가는 게 된다. ‘난-’은 ‘나다’(出)의 형용사성 전부요소가 결합된 어휘이다.

④ ‘먼-’

먼바르

‘먼바르’는 ‘먼-+바르’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바다를 일컫는다. 이는 ‘멀다’(遠)의 형용사성 전부요소인 ‘먼-’이 결합된 어휘이다.

⑤ ‘걸-’

걸망

‘걸망’은 ‘걸-+망’으로 밭에 거름용으로 사용되는 감태나 듬복을 채취할 때는 ‘걸망’이 사용된다. 이는 ‘걸다’의 어간 ‘걸-’이 동사형 전부요소로 사용된 어휘이다.

⑥ ‘질-’

질구덕

‘질구덕’은 ‘질-+구덕’으로 ‘질’은 ‘물건을 꿰어서 등에 엮다’ 의미를 지닌 동사 ‘지다’ 어간에 관형형어미 ‘-르’이 연결된 ‘질’과 표준어 ‘바구니’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 ‘구덕’이 연결된 어휘이다. ‘질구덕’은 물건을 넣고 등에 져 나르는 데 쓰이는 좀 큰 대바구니로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를 드나들 때 해녀 연장과 해산물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된다(현평호 외 2009: 787).



⑦ ‘출-’

출구덕

‘출구덕’은 ‘출-+구덕’으로 ‘츄다’(차다)[佩] 어간에 관형형어미 ‘-르’이 연결된 ‘출-’에 ‘구덕’이 연결된 것으로 보아 바구니를 사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명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츄다’는 문헌어²⁰⁾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질구덕’보다 크기가 작은 ‘출구덕’은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이다.

⑧ ‘넙-’

(8)ㄱ. 넙메역

ㄴ. 넙패

20)· 츄다: 佩帶 《동문유해 上 58》
· 몸 우회 츄거나: 帶身上 《농업경언해 7: 46》

(8ㄱ)은 ‘넓+폐역’으로 갈조류 미역과의 해조로 줄기의 윗부분이 앞으로 되어 있으며, 앞은 넓은 띠 모양이다. (8ㄴ)은 ‘넙+패’로 갈조류 패과의 해조로 가지 끝 부분은 기낭처럼 부풀어 있고 황갈색인데 건조하면 검은색으로 된다. (8ㄱ,ㄴ)는 형용사 어간 ‘넓-’에 연결어미가 개입하지 않고 직접 명사와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1.2. 접사성 전부요소

① ‘대-’

(1)ㄱ. 대상군

ㄴ. 대소라

ㄷ. 대좁복

(1ㄱ)은 ‘대-+상군(上軍)’으로 해녀 중에서도 가장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일컫는다. 상군 앞에 ‘대-(大)’를 붙여 물질 능력이 뛰어남을 나타내고 있다. (1ㄴ)은 ‘대-+소라’로 껍질에 생긴 빨모양의 쌀이 민둥민둥하게 닳아진, 아주 크고 성숙한 소라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를 결합하여 불린다. (1ㄷ)은 ‘대-+좁복’으로 크기가 큰 전복인 ‘대전복’(大全腹)을 말한다. ‘좁복’은 표준어 ‘전복’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1ㄱ,ㄴ,ㄷ)의 ‘대(大)-’는 공통적으로 명사 앞에 붙어 ‘큰, 위대한, 훌륭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사용되었다.

② ‘중-’

(2)ㄱ. 중고동

ㄴ. 중군(중해녀, 중좁네, 중좁수)

ㄷ. 중바당

ㄹ. 중소라

(2ㄱ)은 ‘중-+고동’으로 중간 크기의 소라를 말한다. (2ㄴ)은 ‘중-+군(軍)’으로 기량

이 보통인 해녀로 ‘상군’과 ‘하군’ 사이의 중간 집단의 해녀를 일컫는다. 달리 ‘중해녀’, ‘중좁네’, ‘중좁수’라 하는데 구성을 살펴보면 ‘중-+해녀’, ‘중-+좁네’, ‘중-+좁수’으로 나타난다. (2ㄷ)은 ‘중-+바당’으로 ‘중군’(中軍)이 물질하는 바다를 말한다. (2ㄹ)은 ‘중-+소라’로 (2ㄱ)과 같은 의미로 중간 크기의 소라를 일컫는다.

(2ㄱ, ㄷ, ㄹ)의 ‘중-’은 규모나 크기에 따라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으로 구분하였을 때에 중간 것을 이르는 말이고, (2ㄴ)의 ‘중-’은 등급, 수준, 차례 따위에서 가운데를 일컫는 말이다.

③ ‘소-’

(3)ㄱ. 소구쟁기

ㄴ. 소좁복(소점복)

(3ㄱ)은 ‘소-+구쟁기’로 크기가 작은 덜 성숙한 소라를 일컫는 어휘이다. (3ㄴ)은 ‘소-+좁복’으로 크기가 작은 전복을 일컫는다. 달리 ‘소점복’이라고 하는데 ‘좁복’, ‘점복’은 표준어 ‘전복’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3ㄱ, ㄴ)의 ‘소-’는 명사 앞에 붙어 ‘작은’(小)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사용되었다.

④ ‘똥-’

(4)ㄱ. 똥군

ㄴ. 똥강이

(4ㄱ)은 ‘똥-+군’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 즉 하군(下軍)을 비유하기 위해서 ‘질이 낮은’ 의미의 접두사 ‘똥-’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4ㄴ)은 ‘똥-+강이’로 민물과 바다 중간 하천에 사는 등껍질이 말랑말랑해서 먹지 못하는 게를 일컫는 어휘이다. ‘똥강이’에서 ‘똥’은 ‘먹을 수 없는’ 의미의 접두사로 ‘똥(糞)-’이 결합된 어휘이다.

⑤ ‘춤-’

(5)ㄱ. 춤강이(춤쟁이, 춤궁이)

- ㄴ. 춤메역
- ㄷ. 춤뭍
- ㄹ. 춤우미
- ㅁ. 춤정각
- ㅂ. 춤푼래

(5ㄱ)은 ‘춤+강이’로 표준어 ‘참깨’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춤강이’는 먹을 수 있는 게다. 달리 ‘춤갱이’, ‘춤궁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춤+갱이’, ‘춤+궁이’로 볼 수 있다. (5ㄴ)은 ‘춤+메역’으로 갈조식물 다시마목 미역과의 바닷말인 ‘참미역’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5ㄷ)은 ‘춤+뭍’으로 ‘참모자반’으로 식용이 가능하다. (5ㄹ)은 ‘춤+우미’로 ‘참우뭇가사리’를 일컫는 제주도방언이다. (5ㅁ)은 ‘춤+정각’으로 먹을 수 있는 ‘청각’을 의미한다. (5ㅂ)은 ‘춤+푼래’로 먹을 수 있는 파래를 일컫는다.

‘춤-’은 ‘참(眞)-’의 제주도방언으로 ‘좋은 맛의, 품질이 우수한’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동·식물 어기에 결합을 하여 의미를 더한다. ‘춤-’과 대립되는 것으로 ‘질이 낮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④의 ‘똥-’이다.

⑥ ‘개-’

- (6ㄱ). 개지름
- ㄴ. 개푼래

(6ㄱ)은 ‘개+지름’으로 눈에 핀 기름을 일컫는 어휘이다. ‘지름’은 표준어 ‘기름’(油)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개기름’은 얼굴에 번질번질하게 끼는 기름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다. (6ㄴ)은 ‘개+푼래’로 먹을 수 없는 파래를 일컫는다. ‘푼래’는 표준어 ‘파래’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6ㄱ)의 ‘개-’는 비속의 의미를 지니고, (6ㄴ)의 ‘개-’는 ‘질이 떨어지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사용되었다.

⑦ ‘갯-’

(7)ㄱ. 𪗇물질

ㄴ. 𪗇바당(𪗇바르)

ㄷ. 𪗇우미

ㄹ. 𪗇좁수(𪗇좁녀, 𪗇좁네)

⑦의 ‘𪗇-’은 ‘가’ [邊] 를 뜻하는 명사형 제주도방언으로 ‘ㄴ-’으로도 나타난다. ‘𪗇’²¹⁾은 중세국어 문헌에도 남아 있는데, ‘𪗇>궘>ㄴ>가’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다.

(7ㄱ)은 ‘𪗇+물질’로 가까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을 ‘𪗇물질’이라 한다. (7ㄴ)은 ‘𪗇+바당’으로 바닷가에서 바로 보이는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즉 ‘앞바당’을 뜻하며, ‘𪗇바르’로도 나타난다. (7ㄷ)은 ‘𪗇+우미’로 바닷가 근처의 바위에서 자라는 우미를 일컫는다. (7ㄹ)은 ‘𪗇+좁수’로 바다 가까운 데서만 물질하는 해녀를 부르는 어휘이다. 즉 기량이 떨어지는 하군을 일컫는다. 달리 ‘𪗇좁녀’, ‘𪗇좁네’로 불린다.

(7ㄱ,ㄴ,ㄷ,ㄹ)의 ‘𪗇-’은 ‘가까움, 바다 주변’의미로 사용됨을 보여준다.



⑧ ‘암-’

(8)ㄱ. 암침복

ㄴ. 암핏

(8ㄱ)은 ‘암ㅎ+침복’으로 전복의 암컷을 일컫는다. (8ㄴ)은 ‘암ㅎ+핏’으로 (8ㄱ)과 같은 전복의 암컷을 일컫는다. (8ㄱ,ㄴ)의 ‘암-’은 성의 구별이 있는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새끼를 배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였다.

⑨ ‘수-’

21) · 네 𪗇 버텨길헤 《월인석보 7: 64》
· 𪗇 업슨 사르미 《月印釋譜 13: 41》
· 𪗇 업시 저지고져 흐시니라 《月印釋譜 18: 38》

(9)ㄱ. 수침복

ㄴ. 수뿔

(9ㄱ)은 ‘수침+점복’으로 전복의 수컷을 일컫는다. (9ㄴ)은 ‘수뿔+뿔’으로 (9ㄱ)과 같은 전복의 수컷을 일컫는다. (9ㄱ,ㄴ)의 ‘암’은 성의 구별이 있는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붙어 ‘새끼를 배지 않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였다.

⑩ ‘헛-’

(10)ㄱ. 헛물

ㄴ. 헛물망사리

ㄷ. 헛숨

(10ㄱ)은 ‘헛+물’로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 있는 물질을 일컫는다. (10ㄴ)은 ‘헛+물+망사리’로 막연하게 소라·전복 등을 캐고 답는 망사리를 말한다. (10ㄷ)은 ‘헛+숨’으로 해산물 채취가 아닌 바다 속의 지형을 살피러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일을 말한다. (10-ㄱ,ㄴ,ㄷ)의 ‘헛-’은 명사 앞에 붙어 ‘이유 없는’, ‘보람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사용되었다.

3.2. 후부요소에 따른 어휘 구성

해녀 어휘 구성에서 나타나는 후부요소를 명사성 후부요소와 접사성 후부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녀 어휘 내부에서 어떠한 후부요소가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해녀 어휘 구성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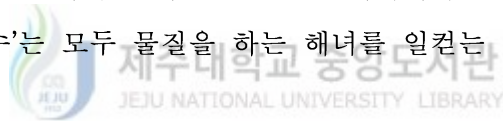
3.2.1. 명사성 후부요소

① ‘줍녀’

- (1)ㄱ. 고래줍녀
- ㄴ. 죽은줍녀
- ㄷ. 하줍녀

(1ㄱ)은 ‘고래+줍녀’로 해녀들은 한번 잠수하여 깊이 20m 바다 속에서 보통 잠수 시간은 1분 내외지만 상군은 2분 이상 잠수를 하여 물질을 한다. ‘고래줍녀’는 바로 ‘상군’(上軍)에 해당하는 해녀를 일컫는 어휘이다. ‘고래’처럼 오랜 시간동안 잠수를 하여 기량이 뛰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래’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대한 크기이다. ‘중군’(中軍), ‘하군’(下軍)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상군’(上軍)의 크기는 ‘고래’만큼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기량이 뛰어난 ‘줍녀’를 ‘고래줍녀’라고 부른다. (1ㄴ)은 ‘죽은+줍녀’로 기량이 가장 떨어지는 하군(下軍)을 일컫는다. (1ㄷ)은 ‘하(下)+줍녀’로 (1ㄴ)과 마찬가지로 기량이 가장 떨어지는 해녀를 일컫는 어휘이다.

(1-ㄱ,ㄴ,ㄷ)의 ‘줍수’는 모두 물질을 하는 해녀를 일컫는 어휘로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② ‘줍수’

- (2)ㄱ. 고망줍수
- ㄴ. 깎줍수
- ㄷ. 왕줍수
- ㄹ. 죽은줍수
- ㅁ. 중줍수
- ㅂ. 큰줍수
- ㅅ. 폭래줍수
- ㅇ. 하줍수

(2ㄱ)은 ‘고망+줍수’로 평상시에는 물질을 하지 않다가 허채(許採) 기간이 되면 슬금슬금 물질하러 나오는 해녀를 일컫는 어휘이다. ‘구멍’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

다가 ‘허채’(潛艘) 기간에만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생겨난 어휘로 보인다. 예전에는 바위에 붙은 미역을 채취하였지만 지금은 양식을 해서 얻기 때문에 ‘고망좁수’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2ㄴ)은 ‘깍+좁수’로 기량이 떨어지는 하군(下軍)을 일컫는다. (2ㄷ)은 ‘왕--+좁수’로 기량이 뛰어난 상군(上軍)을 칭하는 어휘이다. (2ㄹ)은 ‘죽은--+좁수’로 기량이 떨어지는 하군(下軍)을 칭하는 어휘이다. (2ㅁ)은 ‘중--+좁수’로 중간 기량을 지닌 중군(中軍)을 일컫는 어휘이다. (2ㅂ)은 ‘큰--+좁수’로 기량이 뛰어난 상군(上軍)을 지칭한다. (2ㅅ)은 ‘파래+좁수’로 주로 얕은 바다에서 파래를 뜯는 해녀를 부르는 말로 하군(下軍)을 부르는 말이다. (2ㅇ)은 ‘하--+좁수’로 하군(下軍)을 칭한다.

(2-ㄱ~ㅇ)의 ‘좁수’는 해녀를 일컫는 단어로 주로 기량을 나타내는 접사 ‘왕-’, ‘죽은-’, ‘중-’, ‘큰-’, ‘하-’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고망’과 ‘파래’와 결합하여 다양한 해녀를 나타내고 있다.

③ ‘좁네’

- (3ㄱ). 상좁네
- ㄴ. 왕좁네
- ㄷ. 큰좁네
- ㄹ. 중좁네
- ㅁ. 꺾좁네
- ㅂ. 깍좁네
- ㅅ. 하좁네



(3ㄱ)은 ‘상--+좁네’로 기량이 뛰어난 상군(上軍)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3ㄴ)은 ‘왕--+좁네’로 (3ㄱ)와 같이 기량이 뛰어난 상군(上軍)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3ㄷ)은 ‘큰--+좁네’로 앞에 나온 (3ㄱ,ㄴ)과 같이 기량이 뛰어난 상군(上軍)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3ㄹ)은 ‘중--+좁네’로 기량이 중간정도 하는 중군(中軍)을 일컫는 어휘이다. (3ㅁ)은 ‘꺾--+좁네’로 가까운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기량이 낮은 하군(下軍)을 지칭하는 어휘이다. (3ㅂ)은 ‘깍--+좁네’로 표준어 ‘펼쳐’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 ‘깍’이 결합되어 기량이 낮은 하군(下軍)을 칭하는 어휘이다. (3ㅅ)은 ‘하--+좁네’로 (3ㅁ,ㅂ)과

같이 기량이 떨어지는 (下軍)을 일컫는 어휘이다.

(3ㄱ~ㅇ)의 ‘즘수’는 해녀를 일컫는 단어로 주로 기량을 나타내는 접사 ‘상-’, ‘왕-’, ‘큰-’, ‘중-’, ‘갯-’, ‘하-’와 결합하여 다양한 해녀를 나타내고 있다.

④ ‘바당’

- | | |
|---------|---------|
| ㄱ. 갯바당 | ㅇ. 작지바당 |
| ㄴ. 먼바당 | ㄷ. 중바당 |
| ㄷ. 메역바당 | ㄹ. 툃바당 |
| ㄹ. 멩지바당 | ㅋ. 펠바당 |
| ㅁ. 몰래바당 | ㆁ. 할망바당 |
| ㄴ. 뎡바당 | ㅅ. 흑교바당 |
| ㅇ. 우미바당 | |

④ ‘바당’은 표준어 ‘바다’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바당’은 중세 어휘 ‘바당’²²⁾과 관련이 깊다.²³⁾

(4ㄱ)은 ‘갯+바당’으로 바닷가에서 바로 보이는 그리 깊지 않은 바다, 즉 ‘앞바당’을 뜻한다. 주로 하군이 물질하는 바다를 말한다. (4ㄴ)은 ‘먼+바당’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를 일컫는 어휘이다. (4ㄷ)은 ‘메역+바당’으로 미역이 잘 나는 바다를 일컫는다. (4ㄹ)은 ‘멩지+바당’으로 잔잔한 바다를 일컫는다. (4ㅁ)은 ‘몰래+바당’으로 수심이 얇고 모래가 깔린 바다이다. 해산물이 적어 해녀들이 선호하지 않는 바다이다. (4ㄴ)은 ‘뎡+바당’으로 모자반이 잘 나는 바다를 일컫는 어휘이다. (4ㅇ)은 ‘우미+바당’으로 우뚝가사리가 잘 나는 바다를 일컫는다. (4ㅇ)은 ‘작지+바당’은 자갈로 바다 밑이 깔린 바다이다. (4ㄷ)은 ‘중+바당’으로 ‘중군’이 물질하는 바다를 의미한다. (4ㄹ)은 ‘툃+바당’으로 툃이 많이 나는 바다를 칭하는 어휘이다. (4ㅋ)은 ‘펠+바당’으로 물기가 많은 질척질척한 진흙으로 깔려 있는 바다를 말한다. (4ㆁ)은 ‘할망+바당’으로 나이가 들어 물질이 힘든 할머니 해녀를 위한 바다이다. (4ㅅ)은 ‘흑교+바당’으로 어장 일부를 획정하여 그곳에서 캐어내는 해산물을 공동판매하여

22) 바다ᄃ: 香水 바다ᄃ니 《월인석보 1:23》

23) 강영봉 외(2011: 212)를 참고함.

교육증축이나 비품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둔 바다를 말한다.

(4-ㄱ~ㄷ)을 통해서 해녀의 작업장인 ‘바다’가 전부요소의 수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절’

(5)ㄱ. 민둥절

ㄴ. 삼성제절

(5)ㄱ)은 ‘민둥+절’로 크게 치는 물결을 의미한다. (5)ㄴ)은 ‘삼성제+절’로 분석된다. ‘삼성제’는 ‘삼형제’를 일컫고, ‘절’은 ‘물결’을 의미한다. 이는 연거푸 세 번 꺾여 치는 물결을 일컫는다. ‘절’은 ‘절’은 ‘물결’의 ‘결’이 구개음화되어 ‘절’로 나타나고, 또 단모음화 과정을 거쳐 ‘절’이 된 것이다(강영봉 외 2010: 402).

⑥ ‘누’

(6)ㄱ. 민둥누

ㄴ. 작은누

ㄷ. 큰누



(6)ㄱ)은 ‘민둥+누’로 크게 치는 물결을 의미한다. (6)ㄴ)은 ‘작은+누’로 크기가 작은 물결을 칭하는 어휘이다. (6)ㄷ)은 ‘큰+누’로 크기가 큰 물결을 의미한다. (6)ㄱ~ㄷ)에서 ‘누’는 크기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연결하여 물결을 의미하는 어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⑦ ‘놀’

(7)ㄱ. 꽃놀

ㄴ. 고장놀

(7)ㄱ)은 ‘꽃+놀’로 작은 물결을 비유하는 어휘이다. ‘꽃’은 ‘꽃’(花)을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으로 ‘꽃, 고장’이라고 부른다. 중세국어²⁴⁾ ‘꽃(꽃)’이 ‘꽃’으로 변화하였다. 이

를 통해 제주도방언에 중세국어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ㄴ)은 (7ㄱ)과 같은 의미로 작은 물결을 의미하는 어휘이다.

⑧ ‘조금’

(8)ㄱ. 아끈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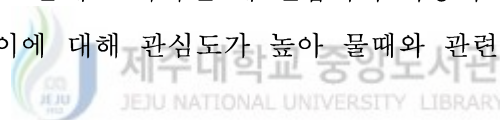
ㄴ. 장조금

ㄷ. 초조금

ㄹ. 한조금

(8ㄱ)의 ‘조금’은 ‘아끈+조금’으로 음력 이레와 스무 이튿날의 조수를 일컫는 어휘다. (8ㄴ)은 ‘장+조금’으로 무수기의 후기에 드는 조금을 말한다. (8ㄷ)은 ‘초+조금’으로 무수기의 초기에 드는 조금을 의미한다. (8ㄹ)은 ‘한+조금’으로 밀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는 날이다.

(8ㄱ~ㄹ)의 ‘조금’은 물때는 나타낼 때 결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해녀가 물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해 관심이 높아 물때와 관련된 어휘가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⑨ ‘망사리’

ㄱ. 고지기망사리

ㄴ. 미망사리

ㄴ. 나이롱망사리

ㄷ. 어욱망사리

ㄷ. 남촉망사리

ㄹ. 짝망사리

ㄹ. 두불메역망사리

ㄷ. 초불메역망사리

ㄹ. 메역망사리

ㅈ. 헛물망사리

(9ㄱ)의 ‘망사리’는 ‘고지기+망사리’로 거름용 해조류인 ‘고지기’를 따내는 대로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망사리를 일컫는다. (9ㄴ)은 ‘나이롱+망사리’로 인조 섬유인 하나인 나이론으로 만들어진 망사리를 뜻하는 어휘이다. (9ㄷ)은 ‘남촉+망사리’로 신서

24) · 꽃 도교 여름 하느니 《용비어천가 2》
· 도훈 고즈란 꼭디 말오 《월인석보 1:9》

란의 앞사귀로 짚 망사리이다. (9ㄹ)은 ‘두불--+메역+망사리’로 두 번째 미역 허채 때 사용하는 망사리이다. (9ㅍ)은 ‘메역+망사리’로 채취한 미역을 담은 망사리이다. (9ㅂ)은 ‘미+망사리’로 참역새로 만든 망사리이다. (9ㅅ)은 역새로 만든 망사리이다. (9ㅇ)은 ‘짚+망사리’로 ‘짚’을 엮어 만든 망사리이다. (9ㅈ)은 ‘초불--+메역+망사리’로 첫 번째 허채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망사리이다. (9ㅊ)은 ‘헛물+망사리’로 소라, 전복 등 헛물 들 때 사용하는 망사리이다.

(9ㄱ, ㄴ, ㄷ, ㄹ, ㅈ, ㅊ)의 ‘망사리’는 채취물과 결합하여 채취물을 담은 용도의 망사리로 사용되었고, (9ㄴ, ㄷ, ㅂ, ㅅ, ㅇ)의 ‘망사리’는 망사리를 만든 재료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하고 있다.

⑩ ‘구덕’

(10)ㄱ. 너던구덕

ㄴ. 메역구덕

ㄷ. 물구덕

ㄹ. 정당구덕

ㅍ. 질구덕

ㅂ. 출구덕



(10ㄱ)의 ‘구덕’은 ‘너던+구덕’으로 ‘멀리줄’(머루줄)로 짚 구덕을 말한다. (10ㄴ)은 ‘메역+구덕’으로 미역을 채취하고 담은 바구니를 말한다. (10ㄷ)은 ‘물+구덕’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담은 큰 바구니이다. (10ㄹ)은 ‘정당+구덕’으로 ‘정당줄’(땡땡이땡굴)로 짚 구덕을 말한다.²⁵⁾ (10ㅍ)은 ‘지다+ㄹ+구덕’으로 등에 지는 바구니라는 의미를 지닌다. (10ㅂ)은 ‘츄다+ㄹ+구덕’으로 허리에 차서 사용하는 바구니이다.

위에 들어 있는 공통 요소 ‘구덕’은 ‘구덕’을 만드는 재질이나, 채취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⑪ ‘고예기’

(11)ㄱ. 고무고예기

25) 김순자(2009: 142)를 참고함.

- ㄴ. 무지고에기
- ㄷ. 비니루고에기
- ㄹ. 췌고에기

‘고에기’는 질구덕의 밑바닥을 받치는 것을 말한다. (11ㄱ)은 ‘고무+고에기’로 고무로 만든 고에기이다. (11ㄴ)은 ‘무지+고에기’로 두꺼운 옷감으로 만든 고에기이다. (11ㄷ)은 ‘비니루+고에기’로 비료를 담았던 푸대로 만든 고에기를 말한다. (11ㄹ)은 ‘췌+고에기’로 소가죽으로 만든 고에기이다.

위에 들어 있는 공통 요소 ‘고에기’는 ‘고에기’를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어휘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⑫ ‘창’

- (12)ㄱ. 대조개창
- ㄴ. 빗창

(12ㄱ)은 ‘대+조개+창’으로 대조개를 켈 때 사용하는 삽이다. (12ㄴ)은 ‘빗+창’(槍)의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12ㄱ,ㄴ)은 채취물에 따라 ‘창’이 결합하여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⑬ ‘소살’

- (13)ㄱ. 고무줄소살
- ㄴ. 두소살
- ㄷ. 세소살
- ㄹ. 웨소살

‘소살’은 표준어 ‘작살’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13ㄱ)은 ‘고무줄+소살’로 고무줄로 만든 소살을 일컫는 어휘이다. (13ㄴ)은 ‘두+소살’은 비늘이 두 개 달린 소살을 일컫고, (13ㄷ)은 ‘세+소살’로 비늘 세 개 달린 소살을 말한다. (13ㄹ)‘웨+소살’은 비늘이 하나 달린 소살을 말한다. (13ㄱ)의 ‘소살’은 재료와 함께 결합되어 쓰이

고, (13ㄴ,ㄷ,ㄹ)의 ‘소살’은 수 관형사가 결합된 어휘이다.

⑭ ‘테왁’

- | | |
|----------|---------|
| ㄱ. 나이롱테왁 | ㄷ. 죽은테왁 |
| ㄴ. 버국테왁 | ㄹ. 중테왁 |
| ㄷ. 스폰지테왁 | ㅅ. 큰테왁 |
| ㄹ. 아기테왁 | ㅇ. 꼭테왁 |

‘테왁’은 해녀들이 부력(浮力)을 이용하여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해녀에게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둥그런 테두리로 만든 박’이라고 하여 ‘테박’의 ‘박’이 ‘ㄷ>ㄹ>ㅍ’의 과정을 겪어 ‘테왁’이 되었다.

(14ㄱ)은 ‘나이롱+테왁’으로 스티로폼 겉을 형겉으로 짜서 만든 테왁이다. (14ㄴ)은 ‘버국+테왁’으로 스티로폼으로 만든 테왁을 말한다. (14ㄷ)은 ‘스폰지+테왁’으로 스폰지로 만들어진 테왁을 일컫는다. (14ㄹ)은 ‘아기+테왁’으로 물질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하군(下軍)이 사용하는 테왁이다. (14ㅁ)은 ‘죽다+ㄴ+테왁’으로 크기가 작은 테왁을 일컫는다. (14ㄴ)은 ‘중+테왁’으로 크기가 중간정도 한 테왁을 일컫는다. (14ㅅ)은 ‘크다+ㄴ+테왁’으로 크기가 큰 테왁을 일컫는다. (14ㅇ)은 ‘꼭+테왁’으로 박으로 만든 테왁을 일컫는다. ‘꼭테왁’은 해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익은 박을 따서 작은 구멍을 뚫고 속에 내용물을 꺼낸 후 건조시킨 후 ‘어움’(둥그런 테두리)을 통해 망사리와 연결시켜 사용했다. 이렇게 제작 시간과 방법이 복잡하고 잘 깨지는 ‘꼭테왁’과 비교하여 ‘나이롱테왁’은 가볍고 썩지 않으며 제작하기도 간편하기 때문에 오늘날 ‘꼭테왁’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4ㄱ,ㄴ,ㄷ,ㅇ)은 ‘테왁’이 만들어지는 재료에 따라서 불리고 있고, (14ㄹ)은 기량에 따라서, (14ㅁ,ㄴ,ㅅ)은 크기에 따라서 ‘테왁’이 달리 불리고 있다.

⑮ ‘호맹이’

- (15)ㄱ. 성게호맹이
ㄴ. 오분재기호맹이

‘호맹이’는 ‘호맹이’는 소라, 성게, 문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어 ‘호미’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이는 ‘호미’에 의미가 없는 명사형 접미사 ‘-앵이’가 결합한 어휘이다. 또한 호미의 고어가 호피²⁶⁾임을 바탕으로 ‘피’는 이중모음이고 ‘미’는 단모음이다. 그래서 이중모음에서 단모음으로 음운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 제주도방언 호맹이의 ‘맹’은 이중모음이니까 고어의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호맹이’는 그 앞에 수식하는 어형이 오는데 주로 용도를 나타낸다. (15ㄱ)은 ‘성게+호맹이’로 성게를 썰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15ㄴ)은 ‘오분재기+호맹이’로 오분자기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일컫는다. (15ㄱ,ㄴ)에서 살펴본 ‘호맹이’는 그 앞에 수식하는 어형이 오는데 주로 용도를 나타낸다.

⑩ ‘굴각지’

성게굴각지

‘굴각지’는 ‘호미’를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소라, 성게, 문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성게굴각지’는 ‘성게+굴각지’로 성게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⑪ ‘굴갱이’

물꾸럭굴갱이

‘굴갱이’는 ‘호미’를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소라, 성게, 문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 ‘굴갱이’는 후벼 파는 뜻의 ‘꼭다’와 명사형 접미사 ‘앵이’가 결합된 단어이다. ‘물꾸럭굴갱이’는 ‘물꾸럭+굴갱이’로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⑫ ‘왓/땃’

26) 호피를 가지고 범을 쏘러더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 | |
|---------|---------|
| ㄱ. 고지왓 | ㅇ. 알밭 |
| ㄴ. 땡갱이밭 | ㅈ. 옷밭 |
| ㄷ. 머흘왓 | ㅊ. 조각지밭 |
| ㄹ. 몰레밭 | ㅋ. 중간밭 |
| ㅁ. 빌레왓 | ㅌ. 툐밭 |
| ㅂ. 소왕집밭 | ㅍ. 희습밭 |
| ㅅ. 수두리밭 | |

‘왓/밭’은 ‘밭’(田)의 제주도방언으로 ‘밭>밭>왓’의 변화 과정을 거쳐 ‘밭’, ‘팻’ 등으로 나타난다. 해녀가 사용하는 ‘왓/밭’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이는 물의 밭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해녀들이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녀들은 물의 밭 대신에 바닷가나 바다 속에 있는 바다밭을 자신의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8ㄱ)은 ‘고지기+왓’으로 들판의 일종인 ‘고지기’가 많이 아는 바다 이름이다. (18ㄴ)은 ‘땡갱이+밭’으로 보밭의 종류 중 하나인 땡갱이가 잘 잡히는 바다로 갯가의 맨 위층을 일컫는다. (18ㄷ)은 ‘머흘+왓’으로 땅바닥에 돌이 박아져 있고 흙에 자갈이 많이 섞인 밭을 ‘머흘왓’이라 한다. 해녀들은 작업장이 밭이 아닌 바다이기 때문에 해녀들이 사용하는 ‘머흘왓’은 바다 밑에 자갈들이 수북이 깔린 바다를 의미한다. (18ㄹ)은 ‘몰레+밭’으로 모래가 깔린 바다를 일컫는다. 해녀들에게 있어서 ‘몰레밭’은 ‘대엽’, ‘조개’ 등이 나오는 모래밭이었지만, 지금은 예전과 모래 상태가 달라 해산물 채취가 어렵다고 하고 있다. 조개는 원래 깨끗하고 맑은 모래에서 서식하는데 지금은 환경이 오염이 되어 조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18ㅁ)은 ‘빌레+왓’으로 ‘빌레’는 너럭바위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이다. 이는 넓적하고 평평한 돌들이 땅바닥이나 땅에 많이 묻혀 있는 밭으로 농사짓기 힘든 땅을 일컫는다. 해녀에게 있어서도 ‘빌레왓’은 물질하기 어려운 바다를 일컫는다. (18ㅂ)은 ‘소왕집+밭’으로 전복이나 소라가 싫어하는 해조류만 무성한 바다를 일컫는다. (18ㅅ)은 ‘수두리+밭’으로 수두리보밭이 잘 나오는 바다를 일컫는다. (18ㅇ)은 ‘알+밭’으로 갯가의 하층을 칭하는 어휘이다. (18ㅈ)은 ‘옷+밭’으로 갯가의 상층을 일컫는 어휘이다. (18ㅊ)은 ‘조+작지+밭’으로 작은 자갈이 깔린 바다를 일컫는다. (18ㅋ)은 ‘중

간+뱃'으로 갯가의 중간층을 칭하는 어휘이다. (18ㄲ)은 '툄+뱃'으로 툄이 많이 나
는 바다를 말한다. (18ㄷ)은 '히슴+뱃'으로 해삼이 잘 나는 바다를 말한다.

이들 '왓/뱃'은 그 앞에 수식하는 어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18ㄱ,ㄴ,ㄷ,ㄱ,
ㄲ,ㄷ)과 같이 채취물 어형, (18ㄷ,ㄷ,ㄱ,ㄷ)와 같이 재료에 따른 어형, (18ㄱ,ㄷ,ㄱ)과
같이 위치에 따른 어형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⑱ '소리'

(19)ㄱ. 숨비질소리

ㄴ. 숨비소리

(19ㄱ)은 '숨비+질+소리'로 해녀들이 물속에서 물질을 마치고 물 밖에서 참았던
숨을 길게 내뿜게 되는데 이때 가쁘게 내쉬는 소리를 말한다. (19ㄴ)은 '숨비+소리'
구성으로 (19ㄱ)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이다. (19ㄱ,ㄴ)의 '소리'는 해녀가 물 위에
떠오를 때마다 내는 '호오이'와 같은 소리를 의미한다.



⑳ '눈'

(20)ㄱ. 고무눈

ㄴ. 켓눈

ㄷ. 섭눈

ㄷ. 엄쟁이눈

ㄱ. 족은눈

ㄷ. 큰눈

'눈'은 신체어 눈(目)이 아닌 물질할 때 사용하는 물안경을 의미한다. (20ㄱ)은 '고
무+눈'으로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물안경이다. (20ㄴ)은 '켓+ㅅ+눈'으로 구좌읍 한동
리에서 만들어진 물안경으로 한동리의 속칭이 '켓'이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20ㄷ)은
'섭+눈'으로 임시로 쓰던 물안경이다. (20ㄷ)은 '엄쟁이+눈'으로 애월읍 신엄리에서
만들어진 물안경으로 '족세눈'의 한 종류이다. '엄쟁이'는 신엄리의 속칭이 '엄쟁이'
므로 붙여진 이름이다.²⁷⁾ (20ㄱ)은 '족다+ㄴ+눈'으로 물안경 알이 작은 수경을 칭하

는 어휘이다. (20ㄴ)은 ‘크다+ㄴ+눈’이 결합하여 물안경 알이 큰 수경을 칭하는 어휘이다.

명사성 후부요소인 ‘눈’은 (20ㄱ)과 같이 재질에 따라서, (20ㄴ,ㄷ)과 같이 만들어진 지명에 따라서, (20ㄹ,ㄴ)과 같이 크기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㉑ ‘물’

- | | | |
|--------|--------|--------|
| ㄱ. 혼물 | ㅅ. 일곱물 | ㅌ. 열서물 |
| ㄴ. 두물 | ㅇ. 으뜸물 | ㅎ. 열너물 |
| ㄷ. 서물 | ㅈ. 아홉물 | 1. 막물 |
| ㄹ. 너물 | ㅊ. 열물 | 2. 안물 |
| ㄹ. 다섯물 | ㅋ. 열흔물 | 3. 우미물 |
| ㅂ. 으뜸물 | ㅋ. 열두물 | 4. 성계물 |

(21ㄱ~ㅎ)은 수사와 ‘물’이 결합하여 무수기를 일컫는 어휘이다. 여기서 ‘물’은 바닷물을 의미한다. (21-1)은 ‘막+물’은 무수기 끝에 드는 열무날, 열한무날, 열두무날을 말한다. (21-2)는 ‘안+물’은 오전에 하는 물질을 말한다. 여기서 ‘물’은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따는 일을 일컫는 ‘물질’에서 ‘-질’이 생략되어 바닷물이라고 볼 수 있다. (21-3)은 ‘우미+물’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21-4)는 ‘성계+물’로 성계만 채취하는 작업이다.

㉒ ‘물질’

- (22)ㄱ. 꺾물질
 ㄴ. 도둑물질
 ㄷ. 벳물질
 ㄹ. 육지물질

‘물질’은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것을 의미한다. (22ㄱ)은 ‘꺾+물질’로 해녀들이 가까운 바다에서 작업을 치르는 것을 말한다. (22ㄴ)은

27) 김영돈(1990: 775)를 참고함.

‘도둑+물질’로 해산물을 캐어서는 안 되는 금채 기간에 몰래 물질을 하는 일을 말한다. (22ㄷ)은 ‘벧+물질’로 배를 타고 물질을 하러 가는 것을 의미한다. (22ㄷ)은 ‘육지+물질’로 육지로 나가서 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㉓ ‘복닥’

손복닥

‘손복닥’은 ‘손+복닥’으로 결합된 합성어이다. ‘복닥’은 물건에 씌워진 껍질을 의미하는 제주도방언으로 몽골에서 차용된 어휘이다. 제주도와 몽골은 사신을 파견할 때 제주 성주를 동행하게 한 1266년부터 고려에 귀속되는 1367년까지 약 100년 동안 관계를 맺는다. 100여 년이란 긴 시간을 접촉하면서 생활·문화 등에 주고받은 영향이 크다. 이는 언어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몽골어에서 차용된 어휘 중 하나가 ‘복닥’이다. 제주도방언 ‘복닥’은 ‘물건에 씌워진 겹겹질’ 또는 ‘물건 위에 덧씌워진 모자 따위’를 일컫는 말로, 몽골어 ‘복토’에서 온 어휘이다. 몽골에서 ‘복토’는 결혼에 즈음하여 여자가 쓰는 모자를 뜻한다(강영봉 1999: 9-10). 여기서 우리는 몽골 문어 ‘boytu’에서 제주어 ‘복닥’이 차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몽골 문어: boytu(cap worn by married women)
- 동부몽고어: boqtoq(腰線 coiffure des femmes mariées)

‘손복닥’은 광목으로 만든 손장갑의 일종으로 우뭇가사리를 채취할 때 끼었던 장갑 형태로 손가락 끝은 노출시킨 것이다. 해녀들 각자가 자기 손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우뭇가사리 채취방법은 손으로 잡아 뜯는 것이다. 이때 맨손으로 하면 손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다음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손복닥’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㉔ ‘해습’

(24)ㄱ. 흥해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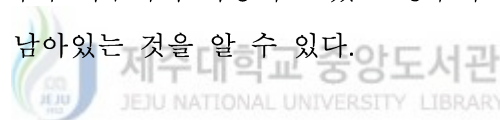
ㄴ. 흑해삼

ㄷ. 빨해삼

(24ㄱ)은 ‘홍+해삼’으로 붉은 색을 띄는 해삼을 일컫는다. (24ㄴ)은 ‘흑+해삼’검정 색을 띄는 해삼을 일컫는데 달리 ‘검은해삼’, ‘흑미’라 불린다. (24ㄷ)은 ‘빨+해삼’으로 ‘빨’에서 나는 해삼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해삼’은 표준어 ‘해삼’(海蔘)에 해당하는 제주도방언이다. ‘해삼’은 극피동물 해삼강에 속하는 해삼류의 총칭이다. 약효가 인삼과 같다고 하여 이름 지어졌다. 해녀가 수심 10m 이내의 연안 어장에서 물속에 잠수하여 직접 손으로 건져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긴다. 4~5월에 많이 잡히며 가을부터 맛이 좋아지기 시작하여, 동지 전후에 가장 맛이 좋다. 제주에서는 ‘해삼’과 달리 ‘미’라고도 부른다.

‘해삼’은 중세국어에서 ‘희삼’²⁸⁾에 기록되어 있다. ‘해삼’은 ‘희삼>해삼>해삼’으로 변화되었다. ‘미’의 원형은 문헌어 ‘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는 ‘뫼>뫼>미’의 변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를 통해 중세국어가 제주도방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㉕ ‘까꾸리’

(25)ㄱ. 뭉게까꾸리

ㄴ. 성게까꾸리

‘까꾸리’는 소라, 성게, 문어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25ㄱ)은 ‘뭉게+까꾸리’로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25ㄴ)은 ‘성게+까꾸리’로 성게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25ㄱ,ㄴ)은 채취물에 따라서 ‘까꾸리’가 달리 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3.2.2. 접사성 후부요소

28) · 뫼 海蔘, 해남자海南子: 《물보 수족》
· 뫼 海蔘, 해남자海南子, 흑중黑蟲: 《유씨물명 2 수족》

‘-질’

(1)ㄱ. 무자맥질

ㄴ. 바르질

ㄷ. 수중질

ㄹ. 숨비질

‘-질’은 명사 뒤에 붙어 동작이나 행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사용된다. (1ㄱ)은 ‘무자맥+-질’로 물속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놀리며 뗏다 잠겼다 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1ㄴ)은 ‘바르+-질’로 해녀들이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1ㄷ)은 ‘수중+-질’로 (1ㄴ)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ㄹ)은 ‘숨비+-질’로 숨을 죽이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의미로 앞에 나온 (1ㄴ,ㄷ)과 같은 어휘로 볼 수 있다.

(1ㄱ~ㄹ)의 접사성 후부요소인 ‘-질’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또는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해녀 관련 어휘를 목록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 나아가 해녀 관련 어휘의 조어론적으로 분석하여 정리하는 데 2차적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해녀와 관련된 어휘들은 꾸준히 조사되어 왔으나 연구자에 따라 산발적으로 연구되었고 이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논의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어휘와 연구자가 현장 조사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본고에 해녀 관련 어휘를 집약시켰다. 또한 해녀 어휘를 구성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제주해녀 관련 어휘를 집약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어휘와 필자가 직접 현장 조사한 어휘를 한데 모아 정리하였다. 40년 이상 물질을 해 온 해당 조사지역의 해녀 9명을 통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해녀 어휘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기존에 연구되었던 공통적인 어휘 분류방식에 따라 해녀 명칭, 바다류, 작업류, 해녀복 및 작업 도구류, 채취물류로 분류하였다.

해녀 관련 명칭은 39개의 어휘를 중심으로 해녀를 총칭하는 어휘와 기량에 따른 어휘, 상황에 따른 어휘로 분류하였다. 특히 기량이 낮은 ‘하군’을 일컫는 어휘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량이 낮은 해녀에게 익살스러운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잠수가 서툴러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넙락잠수’나 나이가 어린 해녀를 일컫는 ‘애기잠수’ 등의 어휘를 통해 알 수 있다.

바다류는 57개의 어휘를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바다 환경을 재료와 공간으로 분류하고, 바다 상태는 크기와 모양, 채취물은 동물과 식물, 물질 실력에 따라, 조류의 흐름과 세기에 따라 바다류와 관련된 어휘를 세부적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이는 해녀의 작업장인 바다에서 상황에 따른 어휘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녀 작업과 관련된 어휘는 30개의 어휘를 중심으로 행동, 도구 사용, 채취물, 장소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벧물질’, ‘메역물’, ‘성계물’ 등의 어휘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 채취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와 ‘물질’ 또는 ‘질’이 생략된 ‘물’이 결합되어 행동을 나타내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어휘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해녀복과 관련된 어휘는 ‘고무’를 중심으로 한 어휘가 발달하였다. 또한 전통 해녀복에 비해 개량 해녀복 어휘수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통 해녀복의 특성상, 하의가 분리되고, 보온을 위한 의복의 수가 다양했었지만, 개량 해녀복의 경우 고무재질로 만들어진 한 벌의 ‘고무옷’이 보급되면서 그에 해당되는 어휘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작업 도구류 50개의 어휘인 경우 채집용 도구중 하나인 ‘망사리’는 그물의 재질, 용도,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취용 도구 중 하나인 ‘호멍이’는 해당 채취물과 결합하여 불리고 있다.

채취물과 관련된 어휘는 55개가 확인이 되었다. 이들은 해조류, 연체동물, 절지동물에 관한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면이 바다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이 제주도방언에 있어 채취물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가 만들어 졌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녀 관련 어휘는 대체로 형태 결합의 측면에서 복합어가 두드러지게 많았다. 이러한 복합어의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요소와 후부요소로 분류하여 IC 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우선 전부요소 중 어기성 전부요소 가운데 명사성 전부요소는 ‘고무’를 비롯하여 14개의 요소를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명사성 전부요소에 비해 ‘바르’나 ‘물’이 전부요소로 쓰인 어휘가 발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해녀의 작업장이 ‘바다’라는 것을 점을 보면 어휘 결합에 있어 근원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동사(형용사)성 전부요소는 ‘죽은-’을 비롯하여 7개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해녀 어휘에서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직접 명사와 결합하는 비통사적 합성어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동사성 전부요소 중 하나인 ‘출-’은 ‘차다’에 대응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중세국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제주해녀 어휘가 제주도방언의 하위방언으로서 중세국어의 형태가 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녀들의 고유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어학적 접근 또한 가치 있는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접사성 전부요소는 ‘대-’를 비롯하여 9개의 요소를 살펴 볼 수 있다. 이 중 접두사 ‘똥-’, ‘춤-’이 동·식물 앞에서 수식해 줌으로써 이와 관련된 어

휘가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를 일컫는 데도 사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후부요소 중 명사성 후부요소는 ‘즘녀’를 비롯하여 24개의 요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즘녀’, ‘즘수’, ‘즘녀’의 경우 채취물, 기량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부요소와 결합하여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또한 ‘호맹이’, ‘까꾸리’, ‘굴각지’, ‘굴갱이’의 경우 앞에서 수식하는 어형에 따라서 용도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사성 후부요소는 ‘-질’로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 ‘그것과 관계된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기능을 하고 있다.

해녀가 사용하는 어휘를 정리해 보고 그 어휘 내부에서 어떠한 구성요소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해녀가 사용하는 어휘에는 제주해녀가 가지고 있는 직업적 특수성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결합된 해양문화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의 자료조사를 위해 만났던 제보자들은 대개가 고령이었다. 또한 해녀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해녀 어휘의 사용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유 언어가 인간에게 전달하는 정체성은 존중받고 지켜내야 마땅하다. 제주해녀 어휘가 제주도방언의 단순 하위분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학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보존과 기록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고를 통해 앞으로 제주해녀 어휘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미시적 언어학에서 벗어나 거시적 언어학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제주해녀 어휘는 선행 연구된 자료와 해녀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했으나 대표성을 띠는 어휘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 제시하지 않은 특이 유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태부사와 의성부사, 속담 등의 연구는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예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이 문제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비유적 표현은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관용어와 속담 등 추가적인 기술로 보완한다면 더욱 의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대원(1970),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 _____ (2001), 『제주잠수권익투쟁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 강영봉(1994), 『제주의 언어 1』, 도서출판 제주문화.
- _____ (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1997), 『제주의 언어 2』, 도서출판 제주문화.
- _____ (1999),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의 비교 연구」,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 _____ (2002), 「제주어 몇 어휘에 대하여」, 『영주어문』 2, 영주어문학회.
- _____ (2003), 「제주어(濟州語) ‘비바리’ 어휘(語彙)에 대하여」, 『영주어문』 5, 영주어문학회.
- 강영봉·김동윤·김순자(2010), 『문학 속의 제주 방언』, 글누림.
- 강영봉 외(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 사전』, 각.
- 고광민(2002), 『漁具』, 제주대학교 박물관.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국립해양유물전시관(2003), 「해녀, 물에 끈들의 삶과 문화」, 국립해양전시관.
-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 김병길(1970), 「한국 해녀의 최대산소섭취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기(2010), 「제주해녀의 일본 진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일어문논집』 14, 한일어문학회.
- 김순자(2008), 「제주 바다의 소라·고동·전복 이름(1)」, 『영주어문』 15, 영주어문학회.
- _____ (2009), 『해녀·어부·민속주: 제주도의 민족생활어』, 글누림.
- _____ (2011), 「제주도방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3), 「제주도방언의 어류 명칭 연구」, 『영주어문』 25, 영주어문학회.

- 김순자 외(2011), 『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국립국어원.
- _____ (2013), 『2013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1』, 국립국어원.
- _____ (2013), 『2013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2』, 국립국어원.
- 김영돈(1990), 「海女集團의 特殊語彙에 관한 研究」, 『성곡논총』 21, 성곡학술문화재단.
- _____ (1991), 「濟州海女 調査研究: 특히 민속학적측면에서」,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_____ (1999), 「濟州海女集團의 特殊語彙研究에 따른 文獻및 그 課題」, 『제주도연구』 6, 제주도연구회.
- _____ (2000), 「제주해녀의 실상과 의지」, 『비교민속학』 18, 비교민속학회.
- _____ (2002), 『한국의 해녀』, 민속원.
- 김영돈 외(1996), 「해녀의 명칭」, 『제주의 해녀』, 제주도.
- 김윤창 외(2013), 『해녀문화해설사』, 제주해녀문화보존회.
- 김일병(2000),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
- 김정숙(1989), 「제주도 해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택(1992), 『국어 어휘론』, 탐출판사.
- 김주석 외(2001), 『경주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남광우(2014), 『고어사전』, 교학사.
- 백승창(2009), 『物名考』類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어휘 분류와 조어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정(1998),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와 사회적 정체성」, 『제주도연구』 16, 제주학회.
- 양원홍(1999),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찬(1987), 「제주도 해녀들의 거친 삶」, 『새가정』, 새가정사.
- 유철인(1998),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31-1, 한국문화인류학회.
- 유형숙(2014), 「“해녀관광”에 관한 인지도, 이미지 및 기대가치의 비교분석」,

- 『동북아관광연구』 10-2, 동북아관광학회.
- 이석주·이주행(2007), 『한국어학 개론』, 보고서.
- 이성훈(2006), 「<해녀 노 젓는 소리> 창자 이기순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학학회.
- 이익섭(1965), 「國語 複合名詞의 IC 分析」, 『국어국문학』 30, 국어국문학회.
- _____ (2012),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종관(1968), 「韓國 海女の 末梢部 體熱發散量과 血流量과의 相關性에 關한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홍빈·한재영(1993),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최종연구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전경수(1992),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화』, 『제주언어민속농촌』, 제주문화.
- 전경일(2010), 『해녀처럼 경영하라』, 다빈치북스.
- 제주도(1997), 『제주의 해녀』,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2014), 「2014 해양수산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2009), 「제주해녀사료집」,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_____ (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_____ (2011), 「제주해녀의 재조명」,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_____ (2012), 「제주해녀 옷 이야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 좌혜경(2006), 『제주해녀와 일본의 아마 해녀』, 민속원.
- _____ (2008), 「해녀 생업 문화와 민속지식과 언어표현 고찰」, 『영주어문』 15, 영주어문학회.
- 좌혜경 외(2009),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도연구』 32, 제주학회.
- 현평효 외(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Saussure, F. D(2006), 『일반언어학 강의』, 민음사.

<Abstract>

The research for the vocabulary of Jeju woman diver

Yang Hee Joo

This research has the purpose to check from the expletive aspect of these by arranging the vocabulary in relation to Jeju Woman diver and classifying these systematically and further. There is the feeling that the woman diver related vocabulary has been realized sporadically, the woman diver related vocabulary discussed previously is arranged and it aims to be analyzed expletively in this manuscript. It has been classified as the name of woman diver, the type of sea, the type of work, the woman diver's uniform and the working tools and the collected items according to the common classification method of vocabulary researched previously to arrange and classify the Jeju woman diver related vocabulary systematically based on this.

The woman diver related name has been classified as the vocabulary naming generically, the vocabulary according to the skill and the vocabulary according to the situation. Especially it could be known that the vocabulary meaning 'the low-group' with the low skill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the vocabulary of the type of sea, the marine environment is classified as the material and the space, the state of sea is classified as the size and shape, the collected items is classified as the animal and the plant and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vocabulary in relation to the type of sea has been possible according to the ability of collecting items, and the flow and the strength of current. This is showing that the vocabulary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the sea being the work place of woman diver is being used variously. The vocabulary in relation to the woman diver's work has been arranged by classifying as the action, the use of tool, the collected items and the place. It could be known that some nouns

showing the tool, collected items and the simple and clear vocabulary showing the action combined with 'the object' that 'the substance' or 'the substantia' has been omitted have been developed. In terms of the vocabulary in relation to the woman diver's uniform, the vocabulary focused on 'the rubber' has been developed. It could be known that 'the mangsari', one out of tools for collection of kinds of working tools is being called variously according to the material, the use and the size of net. The vocabulary concerning the marine algae, the molluscs and the arthropod have been developed in terms of the vocabulary in relation to the collected item.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Jeju called 4 faces are sea is verifying the point that the various vocabulary in relation to the collected items has been made in Jeju dialect.

The vocabulary in relation to the woman diver checked above generally has a lot of compound word remarkably from the aspect of form combination. I.C. analysis has been used by classifying it as the front part element and the rear part element to understand this component of compound word properly. As a result, first, it is showing that the vocabulary that 'bareu' or 'mul' is used as the front part element has been developed compared to the other noun front part element out of base sharing phenomenon front part element out of front part element. This may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in the combination of vocabulary if the point that the work place of woman diver is 'the sea' is looked. Especially 'eu' being one of verbal front part element is Jeju dialect coping with 'chada' may be checked in the medieval Korean language. It is showing that the vocabulary in relation to this has been developed that the prefix 'ddongeu', 'eu' modifies in front of animal, plant in terms of the affix front part element. The noun rear part element out of rear part element, in case of 'nyeo', 'soo', and 'nyeo' is being used variously by combining with the noun front part element showing the collected items, the skill. Also, in case of 'homainggi', 'kkakkuri', 'gakji', 'geanggi' it appeared to have different use according to the modifying word form in the front.

vocabularies being used by the woman diver has been arranged, it has been checked if a component factor appeared within the vocabulary. But, the research for the mimicry adverb, the imitative adverb and the proverb, etc. is not included in the discussion.

There is the necessity to research this problem systematically in future as these case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Also, even though the figurative expression has not been handled in this manuscript, it would be developed to further meaning if it is secured with the additional technology.

